

태권도

TAEKWONDO



NEW CONTENTS

TAEKWONDO & LIFE

이동섭 국회의원

PHOTO OF THE MONTH

窓: STEVEN'S EYE

COVER STORY

2019 己亥年을 맞이하며!

신년 좌담회

NATIONAL TEAM

기해년(己亥年), 맨체스터를 향한
'왕좌의 게임' 이 시작된다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SEASON 2019 I

SPECIAL INTERVIEW

이봉 국기원 연구소장

LEGENDARY PLAYER

세계 선수권 대회 4회 우승 금자담 최연호

PLAYER OF THE MONTH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 장준

VOL. 172 2019

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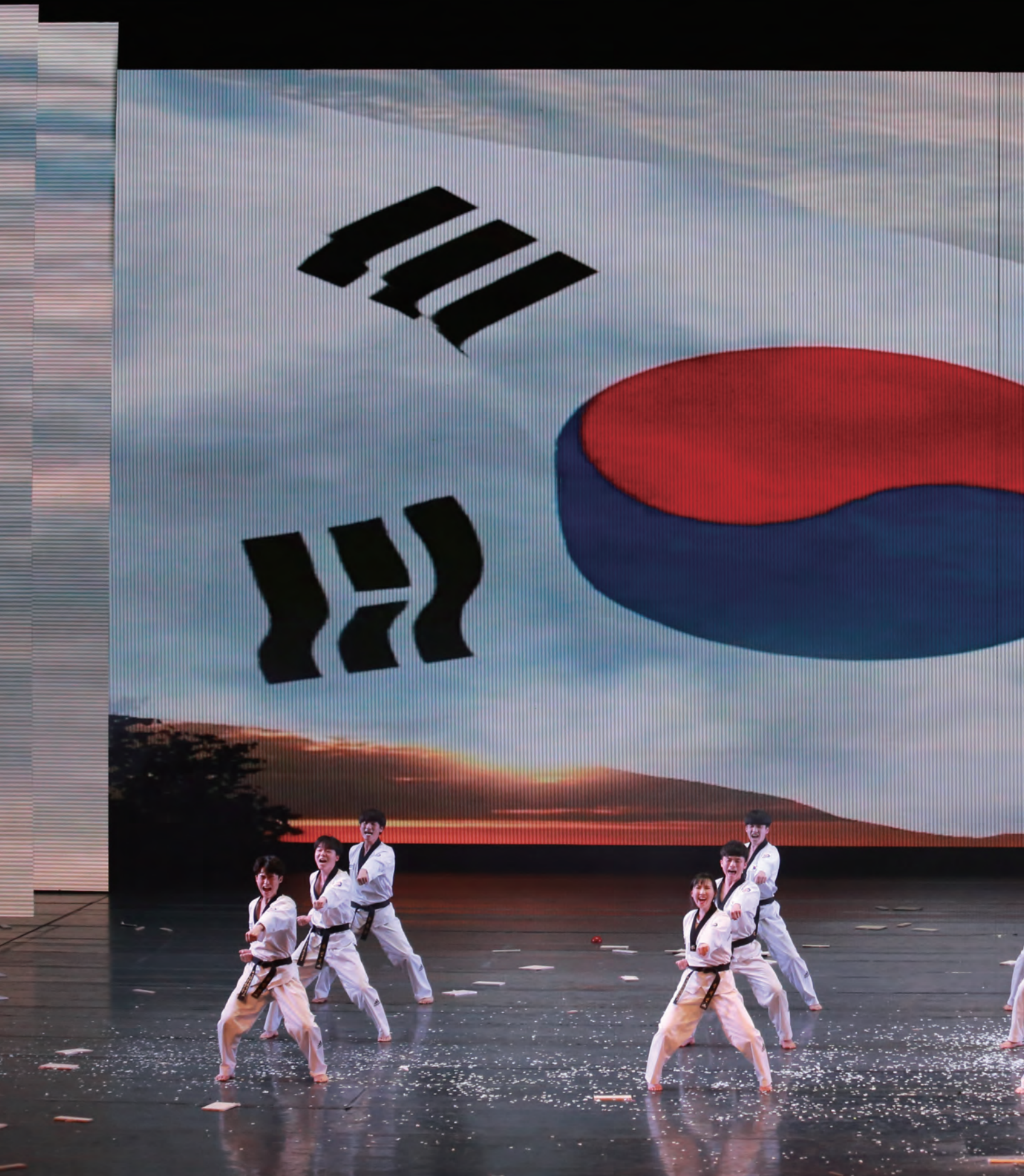


대한태권도협회 KTA
KOREA TAEKWONDO ASSOCIATION











“한국 태권도가 용틀임하여 역사의 장을 열 2019년을 회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기(國技) 태권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밝히는 첫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어둠을 가라앉히며 피어오르는 햇 무리는 붉은빛으로 온 누리를 휘감습니다. 신이 빛은 절묘한 숨씨에 감복하며 순백의 열정으로 2019 기해년(己亥年)을 여는 해를 맞이합니다. 벽차오르는 감동으로 갈망을 담아 열리는 하늘을 마중합니다. 그 황홀한 광채만큼이나 이 한 해에 한국 태권도가 한껏 용틀임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원망도 성냄도 날려 버립니다. 미움도 탐욕도 묻어 버립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기쁘게 첫 해를 맞이합니다. 소박한 행복을 담아 기도하려 합니다. 저 찬란한 원단의 해가 희망에 부푼 마음을 고이 어루만지며 밀어를 들려 주는 듯합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과 운명을 함께할 영혼의 반력로서, 앞으로 면면히 생명의 불꽃을 태우리라.”

자연스레 축복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결코 꺾이지 않는 열정에 불타는 한민족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어찌 쇠잔의 그늘에서 허덕일 리 있겠습니까? 굳센 기상과 진취적 정신이 이룬 조화를 바탕으로 밝은 내일을 개척하리라 소망합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설렘이 시작됩니다. 비상의 나래를 펴고 천하를 뒤덮는 역사의 장을 열 그날이 그려집니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며 전 세계에 화합의 합창을 자아낸 태권도는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태권도』지(誌)는 이러한 시대상에 발맞춰 한 알의 씨앗이 되려는 정열을 끊임없이 불사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 여러분!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의 거울을 만들겠다.’는 소명 의식을 늘 일깨우는 『태권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 기해년 원단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최창신**



그래도 희망이 ... 올해 태권도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

글 서완석



모두 위기라고 한다. 경기(競技) 태권도도, 무도(武道) 태권도도 한결같이 어렵다는 얘기뿐이다. 경기 태권도는 인간이 배제된 채 채점을 기계에 맡긴 이후 더욱 황폐해졌다. 판정 부정을 일삼던 인간에 대한 태권도의 통쾌한 복수라 할 만하다. 판정 시비는 사라졌다 하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태권도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 겨루기 경기를 관전하다 보면 “저게 무슨 태권도냐?”라며 혀를 차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제 겨루기 선수는 전자호구의 특성에 맞춰 점수 내는 발차기만 즐기기 위해 연습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인된 복수의 전자호구 특성이 달라, 대회마다 발차기 연습 방법마저 달라졌다고 한다.

무도 태권도를 힘들게 지켜 왔던 도장들의 경영 상황도 새해 들어 개선될 여지가 적어 보인다. 게다가 경기(景氣)마저 어렵다. 타 개책으로 어린이 대신 성인부를 활성화하자고 한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관중과 사범들마저 성인부를 지도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지난 50년간 어린이 중심으로 쉽게 도장을 경영했던 안일함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경기 태권도, 무도 태권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을 것이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경기 태권도는 태권도 기본기가 점수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경기 규칙을 바꿔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기계에 맡긴 판정을 인간이 되찾아 오도록 태권도 정신과 철학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무도 태권도 수련을 위해 일선 도장도 태권도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상당수 도장은 놀이 위주다. 태권도 도장은 체육관이 아니고 도장이 돼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올 들어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발 벗고 나선다. 종주국 협회는 그 역할과 소명이 다른 경기단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태권도 경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새로운 경기 규칙을 고민해 왔다. 이제 4월이면 현재의 세계태권도연맹(WT) 경기 규칙의 약점을 극복한 몇 가지 시안을 갖고 공개적 시연을 할 계획이다. 이는 종주국 협회의 의무라 해야겠다. 축구 종가 영국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창설(1904년)되기 전인 1886년 국제축구평의회(IFAB)를

구성, 경기 규칙 제정을 담당해 왔다. 영국이 국제 축구계에서 중가로 추앙받는 이유는 바로 규칙 제정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KTA는 이와 함께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뜻밖의 사랑을 받은 품새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상금을 내건 창작 품새 대회를 개최한다. TV 중계도 한다. 이 대회는 국내 대회 사상 처음으로 관중에게 돈을 받을 방침이다. 태권도인 스스로 콘텐츠가 공짜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대회를 도장 활성화와 연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 재도약을 위해서는 KTA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KTA의 1차 책무는 선수들을 육성 관리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태권도계는 무르익는 남북 해빙 무드에서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화해 무드에 앞장선 것은 바로 태권도였다. 하지만 기대만큼 소득이 없었다. 상호 방문을 통한 시범 경연이 전부였다. 그것도 남북 태권도의 교류라기엔 웅색한 WT와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 간의 교류였다. 올해 남북 태권도 교류는 KTA와 조선태권도위원회가 주도하는 교류가 돼야 한다.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다. 서울과 평양 간 축구 교류를 하자는데 FIFA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북쪽도 조선태권도위원회가 최홍희 사후 삼분된 ITF보다 훨씬 파워가 세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태권도 경기 규칙 제정을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현재 일방적으로 WT가 만드는 경기 규칙을, 앞으로는 종주국 협회와 협의하여 만들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유도의 경우 종주국 일본은 세계연맹 회장직은 한국의 박용성 등 외국인에게 허(?)했지만 경기 규칙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끝까지 일본인이 맡아 왔다.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던 셈이다. 이같은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WT 총재를 외국인이 맡아도 한국이 주도하는 태권도의 본질이 변치 않을 것이다.

위기라고 하나 위기의 본질을 알고 있는 이상 처방은 있다. 60여년 전 태권도를 만들고 전 세계로 보급했던 태권도인들의 저력·독심·지혜가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새해다. 뭐라 해도 희망은 있다.



016



038



062



장준

태권도
TAEKWONDO

VOL. 172 2019

01·02

006 신년사

한국 태권도가 융합하며 역사의 장을 열
2019년을 환영합니다

COVER STORY

2019 己亥年을 맞이하며!

016 신년 좌담회

태권도 융성을 꿈꾸며 나아갈
첫걸음의 해, 2019년을 만들자

022 2019년, 태권도 백년대계 세운

첫해라 추억할 수 있기를

026 희망봉에 닿으려는 KTA가 설정한

2019년 방향타는?

028 2019년 KTA에 바란다 ①

태권도의 '엘랑 비탈(Elan Vital)' 을 기대하며

029 2019년 KTA에 바란다 ②

도장 지원 정책,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해야

030 KTA. 2019 기해년 어떤 운세일까?

032 2019년을 기억할 겨울철 담금질 ①

지리산 정기로 담금질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034 2019년을 기억할 겨울철 담금질 ②

태권 꿈나무의 함성이 겨울을 깨우다

036 2019년 일정표는 어떻게 흘러갈까?

EDITOR'S LETTER

007 그래도 희망이...

올해 태권도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

PROLOGUE

014 新年詩

'종가'의 흥성을 바라는 마음을
저 원단의 해에 담아

NATIONAL TEAM

038 기해년(己亥年), 맨체스터를 향한

'왕좌의 게임'이 시작된다

SPECIAL INTERVIEW

062 이봉 국기원 연구소장

"위기의 태권도, 새로운 거버넌스로 극복하자"

PHOTO ESSAY

066 영남루를 노래한 시인의 노래보다

가파른 계단에 담긴 작은 배려가 더 아름다워

068 패배의 쓰라림을 올림픽 등정의

디딤돌로 삼아야

PHOTO NEWS

070 중국 리장과 둔황에 올려 퍼진 태권도 함성

PHOTO OF THE MONTH

072 "산타 할아버지,

행복한 기해년을 가져다주세요"

窓: STEVEN'S EYE

073 기계에 판정을 맡긴 위기의 태권도를

구할 책임도 한국인에게

PROPOSAL

074 태권도 지원에 극히

상반된 행보의 두 나라, 한국·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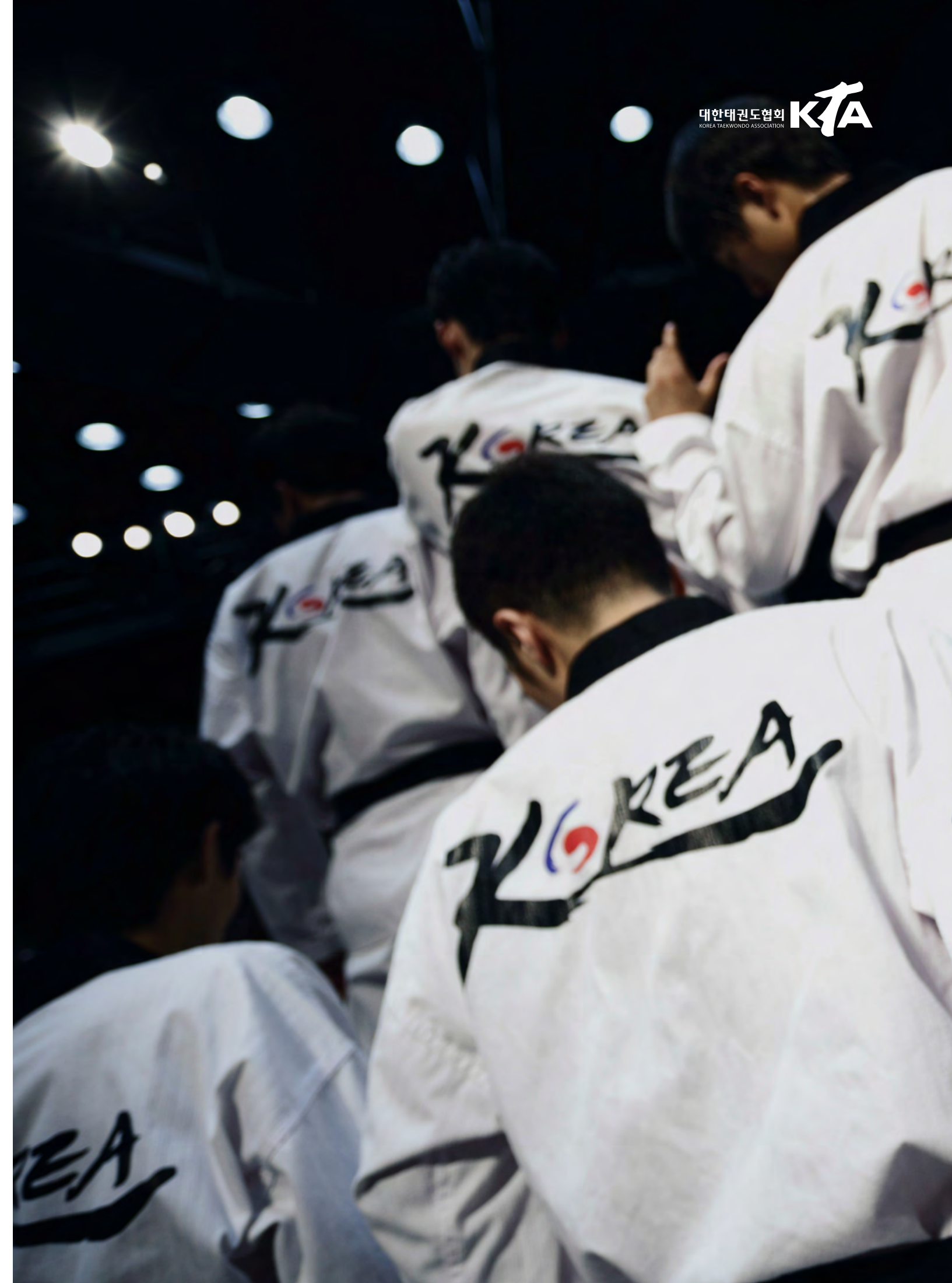
COMPETITION

088 2018 우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태호(太湖)에서 가린 그랜드 슬램,
고교생 장준이 웃었다

ISSUE

092 태권도,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다





058



076



084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SEASON 2019 I**

- 044 힘들어도 태권도가 중심에 서야
- 046 KTA 지상 강좌 지도법 <1>
태권도 기본기술 지도법
- 050 KTA 지상 강좌 경영법 <1>
2019 신학기 광고의 뉴 트렌드
SNS 광고 전략 세우기
- 054 미국 태권도장 탐방을 마치고
- 058 도장 탐방 <6> 진천 만승 태권도장
“다 함께 태권도! 성인부 활성화,
어렵지 않다”

TAEKWONDO & LIFE

- 076 <1> 이동섭 국회의원
‘영원한 반려’ 태권도와 함께
미지의 삶을 개척해 오다

HISTORY

- 080 한국 태권도의 자취를 찾아서 <6>
‘친북’ 최홍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태권도에 기여한 공적은 인정해야
- 083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시절 <6>

LEGENDARY PLAYER

- 084 <5> 세계 선수권 대회 4회 우승 금자탑 최연호
지도자서 연구원 변신
‘레전설’ 최연호, 호주서 미래 준비

VISION & TREND

- 094 한민족 전통 무예 시리즈 <5>
목검으로 춤추는 용담검무 ...
동학 교도들의 얼이 서린 전통 무예

PLAYER OF THE MONTH

- 098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 장준
“나는 2020 도쿄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다.”

OUR FAMILY

- 100 <10>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중국몽(中國夢)’을 꿈꾼다
- 103 <11>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어린이 꿈 키워 나가는 태권도 ‘젓줄’

OUR WORLD

- 106 YOUNG’ S EYE
대학생 명예 기자 마당

KTA & NEWS

- 111 KTA 동정 &

CALENDAR

- 116 1·2월 주요 일정

PUZZLE

- 118 SUDOKU



태권도

TAEKWONDO

발행인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편집인	서완석 전 국민일보 체육 전문기자
편집장	최규섭 전 일간스포츠 편집국 부국장
편집위원	김창완 태권도신문 편집국장 고진현 스포츠 서울 편집국 부국장
자문위원	▲ 도장 = 장권(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최훈민(가천대학교 강사) ▲ 학교 = 김중현(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임신자(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 경기·심판 = 김경일(대한민국태권도협회 겨루기 경기위원장) 이종관(대한민국태권도협회 품새본부장) ▲ 지도자 = 권오민(코치협의회 회장) 김종기(겨루기 국가대표팀 감독) ▲ 시범 = 이규형(전 국기원 원장) 이춘우(국가대표 시범 공연단 단장) ▲ 언론 = 정태화(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정희돈(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 각 분야별 가나다순
객원 기자	양택진 태권도신문 취재부 차장 류호경 태권도신문 취재부 기자
제작 실무	김충환 전략사업부 부장 김영필 전략사업부 차장 강경훈 전략사업부 과장
시도 협회 통신원	임성수(서울) 김도호(부산) 전종열(대구) 박종석(인천) 고남기(광주) 강정덕(울산) 강성현(세종) 심덕진(경기) 한성진(강원) 김영근(충남) 양희락(전남) 장태영(경북) 백성경(경남)
대학생 명예 기자	▲ 경희대학교 = 김민서 김수진 박진주 박해진 정혜나 ▲ 계명대학교 = 정준우(교육대학원) ▲ 용인대학교 = 안정현 이태성 ▲ 전주대학교 = 공찬욱
등록 번호	송파, 마00047
발행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TEL	02-420-4271~3
발행 연월일	2019년 1월 16일
등록 연월일	2004년 12월 7일
제작	(주)명진 C&P

한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태권도 전문 잡지 『태권도』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힘찬 날갯짓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한결같이 독자의 곁에서 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태권도』를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격월간)마다 여러분을 찾아 한국 태권도의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태권도』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태권도』에 실린 글·그림·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합니다.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

新年詩 ‘종가’의 흥성을 바라는 마음을 저 원단의 해에 담아

글 최규섭 사진 양택진





보아라!

저 눈부시도록
찬란한 원단의 해를.
온 누리를 붉은 기운으로 휘감고
어둠을 물리치며 하늘을
활짝 여는 장엄함을.

맞이하라!

한 해의 염원을 안고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구름바다가 한데 모여 응접하듯
이슬 맺힌 맑은 햇살을
순백의 마음으로.

들어라!

벽산 감격에 절로 몽클해지는
희망의 속삭임을.
늘 함께하고 지켜 주리라 다짐하며
휘광으로 어루만지는
따듯한 손길에 안기면서.

느껴라!

세계로 뻗어 나가 응비할
한국 태권도의 한 해를.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아
하늘의 뜻으로 화해 내리리라
확연히 깨닫기를 그리며.

외쳐라!

넘볼 수 없는 기개로
천하에 우뚝 선 동방의 '종가'임을.
은근과 끈기의 한민족
용틀임으로 영광을 빚어내니
사해를 진동시킬 환희의 아우성을.

노래하라!

넘실넘실 어리는 생기에
행복으로 가득 찼 한 해를.
덩실덩실 춤추고
헤실헤실 미소를 흘리며
2019 기해년(己亥年), 그해는 으뜸이었음을.

(“2019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하며.”)

태권도 융성을 꿈꾸며 나아갈 첫걸음의 해, 2019년을 만들자

정리 최규섭 사진 박성욱 KTA 경기부장, 김규리 KTA 경기부 주임



신년 좌담회

때	2019년 1월 3일 오전 11시~
곳	KTA 회장실
참석자	▲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 손성도 KTA 심사관리위원장 ▲ 김태훈 태권도 국가대표(수원시청)
사회	최규섭 『태권도』 편집장

『태권도』지(誌)는 태권도 중흥의 원년이 될 2019년을 맞이하여 신년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최창신 KTA 회장, 손성도 KTA 심사관리위원장, 최규섭 『태권도』 편집장, 김태훈 태권도 국가대표 (오른쪽 두 번째부터 시계 방향으로).

행복에 가득 찬 한 해를 기약하는 2019년 원단의 해가 섰다. '찬란한 꿈이 영글어 가는 기해년(己亥年)이 되소서.' 그 염원을 포근하게 꺼안은 희망의 해다. "그해는 참 즐겁고 기뻛노라." 충만한 만족감에 젖어 추억할 수 있는 2019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신년 좌담회를 마련했다. '태권도 중흥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리라.' 갈망을 담은 한마음 한뜻의 자리였다.

2020 도쿄 올림픽 성과를 가름할 소중한 한 해

사회 "춘음을 다투는 분들이신데, 기꺼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이

한국 태권도의 흥망을 가름할 운명의 한 해가 되리라는 의식이 공감대를 이룬 데서 비롯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올해를 맞이하는 뜻에서, 덕담 또는 마음가짐을 나누거나 밝히셨으면 합니다."

최창신 회장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한국 태권도가 새 지평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갈림길에서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전 태권도인이 화합을 이뤄 정진할 때, 지금 지닌 위기감이 이해의 마지막엔 행복감으로 변환되리라 믿습니다."

손성도 위원장 "2019년은 '황금 돼지 해'라고 하더군요. 태권도인 모두 그에 걸맞은 꿈을 꾸고 이뤘으면 합니다. 아울러 올해 태권

도가 밟아야 할 길에 장밋빛이 가득 내리기를 빕니다."

김태훈 국가대표 "훌륭한 덕담에 감사드립니다. 송구스러운 마음마저 드는데, 한국 태권도가 앞으로 올릴 수확에 작게나마 밀거름이 될 수 있도록 2019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온 힘을 쏟겠습니다."

사회 "2020 도쿄(東京) 올림픽이 한 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맥락에서도, 중요하기만 한 2019년입니다. 같은 무도 스포츠인 일본 가라테(唐手)와 중국 우슈(武術)의 거센 도전에 맞닥뜨려 도쿄 올림픽에서 맺을 과실의 종류와 형태가 한국 태권도의 앞날에 크게 작용하리라 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 실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

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최 회장 “전 체급 석권이 목표라고 한다면, ‘과욕이다.’ ‘망상이다.’는 비난이 쏟아질 듯하네요(웃음). 물론 주관적 관념론에 입각한, 세계태권도연맹(WT)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게 만든 데서 비롯된 과녁입니다. WT는 2016 히우(리우) 올림픽부터 자동 출전권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국가는 남녀 2체급씩 4체급으로 출전이 제한되던 종전과 달리 남녀 4체급씩 8체급 모두에 출전할 수 있게 됐죠.”

사회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 회장 “다소 명중시키기 힘든 과녁임엔 분명합니다. 특히 남자 -80kg급에서 자동 출전 티켓을 확보하기엔 벅찰 정도죠. 그러나 목표의 가치는 도전에 있다고 봅니다. 노릴 만한 값어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타이베이(臺北)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총 36개 금메달 가운데 23개를 휩쓸었습니다. 창설(2006년) 대회에서부터 11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는데, 한마디로 ‘종가’의 참모습을 뽐낸 압도적 전과였습니다. 또 그 며칠 뒤 2018 푸자이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서도, 남녀 6체급에 걸쳐 7명이 결승 고지에 오르며 대회 사상 최대 풍작(금 4= 3+동 1개)을 올렸죠. 그런 종가의 저력을 믿는 데서 나온, 어느 정도 현실에 바탕을 둔 이상론적 목표라 하겠습니까.”

사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울러 실재론적 목표도 밝혀 주시죠.”

최 회장 “(금메달) 세 개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목표 아닐까요? 달성의 변수는 여자 쪽입니다. 히우 올림픽 댄 여자에서만 두 개(-49kg급 김소희, -67kg급 오혜리)의 금메달이 나왔는데, 도쿄 올림픽 댄 남자 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렇긴 해도 여자 경기는 불확실성이 많은 데다 금 고지에 가깝게 다가간 선수

들이 있어 내심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사회 “희망봉으로 나아가는 항해엔 암초도 많으리라 봅니다.”

최 회장 “사실 야망의 실현 뒤에 도사린 세계 태권도계의 질시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2018 품새 세계 선수권 때 우리가 쌓은 금자탑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완연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모함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어쨌든 이번 올림픽은 1964년 도쿄 대회 뒤 56년 만에 같은 곳에서 열립니다. 일본은 잊을 수 없는 민족적 관계와 애환이 깃든 나라죠. 그 나라의 무도인 가라테와 무형의 각축을 피할 수 없는 무대가 내년 올림픽입니다. 많은 체육인이 가라테가 태권도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결전의 장을 1년 반 남짓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시동을 강하게 걸려고 합니다.”

사회 “일선 도장 지도자분들은 2020 올림픽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요?”

손 위원장 “한국 태권도장은 위기 상황이다’는 말이 옛보이듯, 사실 일선 관장분들은 도장 활성화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내년 올림픽에서 어떤 결실을 올릴지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드릴 수 있겠네요. 그분들 역시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태권도가 도쿄 땅에서 풍작을 거두기를 한마음으로 바란다고요.”

사회 “국가대표로서 도쿄 올림픽이 어떻게 비치고 한국이 어떤 성과를 거두리라 보는지 궁금합니다.”

김태훈 “2019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남아 있을뿐더러 2020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시야를 좁혀 저에 국한한다면, 올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잘해야 올림픽 마당에서 뛰놀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펼쳐 보인다는 마음가짐으로, 동계 훈련을 충실히 쌓으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꿰뚫고 묘책을 내놓는 지도자 나와야

사회 “올림픽 농사는 결국 국가대표팀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레 국가대표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겠고요. 그런데 ‘국가대표팀 관리 매뉴얼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쿄 올림픽 대풍의 꿈은 신기루로 끝날 수 있다.’는 비관론적 시각이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대표팀 지도자를 단기(1년) 임기제로 선임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곤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최 회장 “일장일단이 있어요. 올림픽 또는 세계 선수권대회에 맞춰 4년이나 2년 동안 지휘봉을 맡기면, 그 지도자는 권위를 갖고 팀을 일사불란하게 이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인 물이 썩는다’는 속담처럼, 자만심과 아집에 사로잡혀 도리어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엔 국가대표 코칭스태프를 욕망하는 지도자가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커,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봐야죠. 그 폐단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 로테이션을 의식한 단기 선임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엔 지도자가 ‘시간’이라는 여건상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남기기 힘들겠지요. 얽히고설킨 경기 외적 요인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국가대표 코칭스태프 선임 방식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 위원장 “그 연장선상에서, 전공 또는 자질



“전 체급 석권이 목표예요. 목표의 가치는 도전에 있다고 봅니다. 노릴 만한 값어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운동할 때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고 운동에 대한 적응 효과 따위를 공부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운동생리학 전공 지도자를 요구함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좋은 보기로, 박주식 계명대학교 교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운동생리학에 바탕을 둔 지도 방법으로, 페루 국가대표팀을 맡은 지 몇 개월 만에 우승자를 배출시켰으니까요. 한 나라의 국가대표라면 기술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과학적 체력 관리가 팀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 “좋은 관점입니다. 경기 스케줄에 맞춰 훈련 시간을 조절하는 지도 방식도 맥이 닿는다고 여겨지네요. 체급별로 16강이 출전해 금메달을 다투는 올림픽을 예로 들어 볼까요. 하루에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치러지는 특성상, 8강전→4강전→결승전으로 갈수록 시간 공백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를 감안한 훈련이 필요한데, 이를 의식해 훈련을 실시하는 지도자는 좀처럼 찾기 어렵더군요.”

사회 “지도자로서 달리 갖춰야 할 필요한 소양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 회장 “지도자 자질론이라기엔 뭐하고, 지도자들에게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대훈(대전광역시 체육회)·김태훈 선수 같은 월드 스타는 올림픽 금메달 꿈을 부풀리는 모든 선수의 타깃이지 않겠습니까? 두 선수에게 초점을 맞춘

그들은 둘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테고요. 그렇다면 상대의 의표를 역으로 찌를 승부수가 필요하겠죠. 병가의 으뜸인 『손자병법』을 정독하다 보면 그 묘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운용하는 제갈공명 같은 병법가가 나오면 업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손 위원장 “전략과 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승패를 가르는 첫째 요인은 기술이 아니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회 “맞춤형 전략·전술 부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훈 “저는 필수조건보다는 충분조건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현재 상위 랭킹 선수들은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노출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전에 작전을 짜고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기는 상대성이라, 뜻대로만 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좋은 공격력을 지닌 상대에게 점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전술로 맞섰을 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뜻한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아 점수를 뺏기면, 전술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미리 짜 놓은 전략과 전술이 반드시 승리로 가는 연결 고리는 아님을 실감한 경기가 많습니다. 이런 경기에선, 자신이 잘하는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때 승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최 회장 “결국은 같은 뜻인데, 전략과 전술은 ‘움직이는 생물’이지 ‘고착화된 무생물’이지 않아요. 사전 대비책 못지않게 경기 상황에 따른 방책을 강구해 승리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전략과 전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끊임없이 구상을

가다듬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사회 “선수로서 앞으로 구성될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게 바라는 바가 있을 텐데요.”

김태훈 “훈련 스케줄을 정확하게 알고 훈련했으면 합니다. 미리 짜인 스케줄을 알고 그에 따라 마음가짐을 다지고 자세를 가다듬으면, 훈련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훈련을 즐겁게 치를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효과 극대화에 한몫할 것입니다. 훈련을 소화하는 데 지쳤을 때, 누구나 ‘축구 한번 하자’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 회장 “좋은 생각이군요. 선수에게 용기·보람·자신감·즐거움을 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겠죠.”

사회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바도 곁들였으면 좋겠네요.”

김태훈 “(잠시도 생각하지 않는 즉각적 답변이 돌아왔다.) 없습니다.”

손 위원장 “아! 큰 선수네요. 어린 나이답지 않게 대국적 측면에서만 생각하더니...”

올림픽 풍작, 도장 활성화 지름길

사회 “방향을 도장 활성화 쪽으로 바꿔 볼까요. 『태권도』지는 지난해 4월 복간 때부터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는 주제를 갖고 그 처방전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존재할까요?”

최 회장 “체육인으로서 살아온 지난 50여 년의 오랜 시간과

“그분들 역시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태권도가 도장에서 풍작을 거두기를 한마음으로 바라죠.”





“올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잘해야 올림픽
마당에서 뽀빠를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경험에 비해 볼 때, 올림픽에서 어떤 결실을 올리느냐가 가장 크게 작용하리라 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남승룡 선수가 각각 금·동메달을 획득하자. 한반도가 크게 요동쳤어요. 이 땅의 젊은이 모두 틈만 나면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쳇말로 ‘달리기 광풍(狂風)’이 분거죠. 1964 도쿄 올림픽(정신조·밴텀급)과 1968 멕시코시티(지용주·라이트 플라이급)에서 잇달아 은을 따낸 복싱이 일으킨 선풍도 대단했구요. 이처럼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태권도가 풍성한 수확을 올리면 도장 발전의 길이 절로 열리리라 봅니다. 문제는 길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손 위원장 “저도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문대성 선수가 +80kg급 금메달을 거머쥐었을 때 실감한 사실입니다. 그때 문 선수를 저희 태권도장에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는데, 그 반응에 무척 놀랐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현수막만을 내걸었는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엄청난 인파가 도장을 물샷틈없이 꽂 메우더군요.”

사회: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0 시드니 대회 때부터, 한국이 금메달을 쟁취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선 도장은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손 위원장 “도장이 얻을 수 있는 총량이 커지면서 도장이 늘어나야 할 텐데, 그렇지 못

한 데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신뢰성 있는 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도장 적정선은 5,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상반된 수치를 보이고 있죠. 포화 상태를 넘어서 1만 3,000여 개 도장이 난립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출생률 저하는 생존 환경을 더 어려운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 회장 “관록과 권위를 갖춘 도장 전문가에게 현실을 미분적으로 분석해서 급소를 찾는 진단이네요. 젊은 시절 지도자로서 활동했고 오랜 세월 체육 행정가로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짚어 볼까 합니다. 작금의 위기 상황은 도장 자체의 문제로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데서 초래됐다고 하겠습니다. 일찍이 몇 년 전, 전국의 태권도학회가 40개를 넘어서실 때, 제가 예측했던 상황이죠. ‘앞으로 재앙이 닥칠 것이다’고 예상한 바 있어요. ‘한국 태권도가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큰 고통에 맞닥뜨리리라’고 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죠.”

사회: “세상사는 상충하는 양극단이 서로 통하는 데서 삶의 묘미를 느끼고 활력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기를 호기로 바꿀 묘책이 분명히 존재하리라 봅니다.”

최 회장 “도장이 안 되는 이유는 출산률 저하가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해도 전부는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00층을 뛰어 올라가면 숨이 가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쓸데없는 호승심에서 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지렁이나 독불장군에 지나지 않겠죠. 돌파구를 알고 있거나 찾았으면 적응하고 순응해야지, 오히려 도외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올림픽 농사는 결국 국가대표팀이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겠고요.”

‘태권도장엔 태권도가 있어야 한다.’ 그게 진리이자 묘방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애써 이를 피하려는 인상을 질게 받습니다. 1960년대 중반, 제가 가르치던 시절인데요. 아마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범은 저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도장에 들어서면, 슬그머니 도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는 수련생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태권도에 충실한 태권도장을 만드려 애썼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태권도장인지 놀이 프로그램 가르치는 체육관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요. 태권도장에 태권도가 존재하지 않는 요즘의 풍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태권도장이 태권도장다워야, 놀이보다 태권도 본연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빠져나가지 않는 수련생이 중심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탄실함을 갖춘 도장이 될 것입니다.”

손 위원장 “맞습니다. 2019년의 트렌드자 콘셉트를 명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김태훈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적절한 수요를 올바르게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에만 치중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불렀던 태권도학과 개설 바람은 현실이 반영되며 크게 세기가 꺾였습니다. 지금은 반 이하로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해결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의 손길이 해결 방향으로 힘을 실어 주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손 위원장 “시장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봅니다. 관장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





“재미있는 태권도가 뿌리내릴 원년, 2019년이란 가치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지며 올해를 맞았어요.”

係)가 다른 실정에서, 절충점을 찾아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는 KTA의 처지와 노력을 이해(理解)하게 됐죠.”

사회 “일선 도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손 위원장 “심사 제도입니다. 이대로 두면 도장 활성화는 두

하는 도장은 살길을 찾아 활성화의 구름판으로 삼을 수 있겠죠. 반면 그렇지 못한 도장은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리라는 걸 누구라도 쉽게 내다볼 수 있을 듯합니다. 승·품단 인원 수 변화 추이에서도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장 경영 악화 폭에 비하면, 승·품단 인원 수 변화 폭은 미미할 정도예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최근 줄기차게 힘을 쏟아 온 도장 활성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음을 보여 주는 실체적 증거라 하겠습니다.”

심사 제도 변화 절실, 그러나 국기원은...

사회 “심사관리위원장으로서는 제도권에 발길을 들여놓으신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제도권 안과 밖에서 느끼는 현실의 온도 차가 있으리라 보는데요.”

손 위원장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의식 변화에 깜짝 놀라며 당혹스러워 자신을 되 돌아보고 합니다. 바깥에 있을 때엔, 태권도장 활성화에 미온적이라고 비치는 KTA의 태도가 불만족스러웠죠. 그러나 안에 들어와 현실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사안의 본질에 다가가면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KTA는 그 의지를 갖고 있으나, 갈등이 내연된 각 시도 협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외적 환경 때문에 힘든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각 시도 협회 나름대로 이해관계(利害關

꺼운 한계의 벽에 부딪쳐 활로를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런데 심사 제도를 관장하는 국기원은 요지부동의 자세예요. ‘특정 국가의 실정에 맞춘 심사 제도 변경은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죠. 곧,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을 위한 조직이므로, 한 국가의 애로점을 일일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권도 ‘종가’입니다. 그렇다면 KTA가 그 위상에 걸맞게 심사 제도 개선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사회 “심사 표준 매뉴얼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1년간 심사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이 많을 텐데요.”

손 위원장 “심사 표준 매뉴얼 자체는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이지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그 해결 주체가 KTA가 아니라 국기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 경우가 중·장년층 수련생 유입 및 확대를 위한 심사 제도 마련입니다. 남자 어린이 위주 수련생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심사 제도 변경은 중·장년층 확대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은 한국만의 문제라며 이런 주장에 귀를 닫고 있어요. 게다가 심사 강화는 당위성이 있으나, 무턱대고 강화만 해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좀처럼 처방전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듯, 지금은 태권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지요. ‘진짜’ 태권도, 곧 ‘무도’ 태권도를 해야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기만 한 제도의 벽인데, 언젠가는 기필코 뛰어넘어야 하리라 봅니다.”

재미있는 태권도 원년 가치 구현할 묘책은?

사회 “태권도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중흥이나 퇴보냐 고비의 갈림길에 서 있는 태권도의 앞날을 판가름할 첫걸음을 내디딜 2019년이라는 데서, 올해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최 회장 “2019년에 한국 태권도의 운명이 결판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KTA 전 임직원이 ‘재미있는 태권도가 뿌리내릴 원년, 2019년’이란 가치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지며 올해를 맞았어요.”

사회 “구체적 구현 방안도 세우셨을 텐데요.”

최 회장 “물론이지요. 모든 분야 - 겨루기·품새·시범 -에서 재미있는 태권도를 선보이려 합니다. ▲ 품새는 3월 ▲ 겨루기는 4월에 그 시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 시범은 아직 시기를 정하지 못했고요.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모았던 품새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첫선을 보일 품새 대회인데, 종전과 전혀 다른

콘셉트로 열려고 해요. 무대와 경기 진행 방식 등에서 일신





“효자 종목이라며 메이저 종합대회에서만 열광하다가 곧 시드는 팬들의 태도가 이해되긴 해도, 단단한 현실의 벽에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사에 따라 컬러 도복을 착용하도록 한 뒤 그 반응을 살펴보려 합니다. 겨루기는 좀 더 시간을 들여 테스트할 계획이고요. 호응도가 높으면, 앞으로 WT에 건의해 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겠죠. 아, 그리고 아까 언급이 빠졌는데, 시범은 공연 무대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된 모습이 연출되리라 기대합니다.

K-아트홀에 특설 코트 - 될 수 있으면 한 코트 - 를 만들고 조명 장치를 운용하며 아나운서가 각 선수의 특징점을 소개하는 등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여러 방안을 거듭 검토하고 있죠. 일반 팬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TV 생중계와 하이라이트 재방 등이 필수적인데, 이미 한 방송사(SPOTV)와 이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또 단 몇 푼이라도 입장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좀 과장을 곁들인다면, 대통령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정도만 빼고는 모두 입장권을 끊고 들어오게 하려고요(웃음).”

손 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듯, 지금은 태권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죠. 회장님 말씀대로 ‘진짜’ 태권도, 곧 ‘무도’ 태권도를 해야 합니다.”

김태훈 “겨루기 선수로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좀 쑥스러운데, 품새는 무대 예술 요소를 다수 함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특징을 살려 KTA가 국내 대회에서라도 더욱 다채로운 색깔의 도복을 입고 출전할 수 있도록 타진함은 어떨지요?”

최 회장 “그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세계 품새 선수권대회 때 선수들에게 ‘세 가지 색깔 도복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는데, 모두 ‘좋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3월에 창설되는 품새대회 때 자유 의

악순환 고민에 빠진 태권도,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 “마지막으로 한국 태권도를 위한 제언 혹은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밝혀 주시죠.”

최 회장 “지난해 러시아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조별 라운드에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두 골을 넣자, 곧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한 팀이 계약금 1,200억 원과 연봉 240억 원을 제시하며 그를 영입하려 했죠. 한국인으로선 의당 기뻐해야 했지만, 한편 태권도인으로선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대훈·김태훈 같은 태권도 선수는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접을 받아야 하나 생각하니 화까지 치솟았어요. 선배 태권도인으로서 후배 선수들의 살길을 열어줘야 할 텐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다가 깨면 잠을 이루지 못하죠. 전 태권도인이 화합해 태권도가 좋은 방향으로 알려지도록 한결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김태훈 “선수와 경기 규칙을 잘 알아야 그 종목을 사랑하고 응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악순환이겠으나, 팬이 선수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응원할 대상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인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 규칙도 이해하기 힘든 데다가 전문가마저 선수가 어떤 공격으로 득점했는지 알기 힘들 때

가 있으니, 좀처럼 팬들의 사랑을 받기가 힘듭니다. 단순히 ‘효자 종목’이라며 메이저 종합대회에서만 열광하다가 곧 시드는 팬들의 태도가 이해되긴 해도, 단단한 현실의 벽에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최 회장 “김태훈 선수의 말이 진리예요. 지구촌 가족 대부분이 사랑하는 축구를 보세요. 경기 규칙을 전혀 모르는 100세 노인이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경기가 축구죠. 그렇게까지 태권도 규칙을 단순화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이 다가서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손 위원장 “도장 관장과 사범은 진실 된 땀을 흘리는데도, 고객인 학부모님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까닭은 그 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일선 지도자가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장 활성화에 힘을 보탬 한 요인이니까요. 또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은 틈새 시장 공략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하죠. 최근 교육부는 초등학교 1~2년생의 수업 시간 내 체육 활동 장려 및 만 5세 이상의 생존 수영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책 방향으로 가면, 아무래도 인성 교육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 태권도장에선 틈새를 노려 인성 교육에 주안점을 둔 방향으로 나아가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이뤄지는, 행복으로 가득 찬 기해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이뤄지는, 행복으로 가득 찬 기해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9년, 태권도 백년대계 세운 첫해라 추억할 수 있기를

글 최규섭 사진 태권도신문 제공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가 솟는다. 밝고 희망에 가득 찬 2019년을 비추겠노라 말하는 듯 넉넉함이 배어나는 해다. 염원을 담아 맞이한다. “태권도가 새로운 지평을 연 기해년(己亥年)이 되게 하소서.” 저 해는 우리네 기원을 품어 주려는 양 포근한 손길을 내밀어 화답한다. 그렇다. 2019년은 남다른 한 해로 기억돼야 한다. 태권도 백년대계의 첫걸음을 내디딘 소중한 해였다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뚜렷한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가짐을 다지고 지혜를 모아 한길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재미있는 태권도’를 해야 하나?

‘태권도는 재미없다.’ 태권도인이라 자부한다면 참으로 곤혹스럽게 들릴 듯싶은 명제다. 선뜻 “무슨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여 강변할 태권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하물며 비태권도인이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쉽게 짐작이 간다. ‘종가’를 자처하는 한국 태권도계가 좀처럼 포용하기 힘든 서글픈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태권도의 미래는 암울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언제 쓰러질 운명에 맞닥뜨릴지 모른다. 19

년 전, 2000 시드니 올림픽 때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열린 데 힘입어 곧추세웠던 자존감은 시나브로 사그라져 중국엔 흔적조차 찾기 힘들 듯싶다. 신흥 무도 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우수(武術)와 일본 가라테(唐手)의 거센 도전은 이런 우려를 더욱 부채질한다. 일각에선 “태권도가 우수와 가라테의 추격에 휘말려 수년 내에 올림픽 종목 퇴출의 비운에 직면할까 염려된다.”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때 무도 스포츠계에서 핵심 지위에 올라섰다고 자부하던 태권도는 지금 언제 붕괴될까 전전긍긍하는 초라한 신세다. 살길은 없을까? 마땅히 찾아야 한다. 단순한 진보와 퇴보의 갈림길이 아니라, 사활이 걸린 기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묘방을 구하고 처방을 써야 한다. 늦어질수록 회생의 가능성은 줄어들 뿐이다. 위기와 호기는 양 극단에 대치해 있다. 얼핏 서로 어울리기 힘든 대척적 존재로 생각된



김소희(왼쪽)

다. 그러나 이럴수록 상통의 가망성이 높을 게 세상사다. 위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호기로 반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짜낼 때, 그 극적 효과는 높을 수밖에 없다. 곧, '태권도는 재미 없다'는 '태권도는 재미있다'로 쉽게 치환할 수 있는 명제다.

관중 없는 스포츠는 존재할 수 없다. 무도 스포츠 태권도도 대중과 유리되어선 설 자리가 없다. 그들의 눈을 사로잡아 경기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재미있는 태권도를 해야 한다. 매력에 넘치는 태권도가 펼쳐질 때, 당연히 살길이 열린다. 이 맥락에서, '태권도는 재미 있다'는 명제는 당위성을 띠었음은 물론 높은 효용성마저 갖췄음을 쉽게 엿볼 수 있다.

태권도 본연의 모습에서 묘방을 구하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는 2019년을 각별하게 바라본다. 태권도가 중흥의 가치를 높이 들고 앞으로 뻗어 나가느냐, 아니면 쇠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허덕이느냐를 가름할 한 해로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KTA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한 묘책이 크게 약효를 발휘하리라는 희망을 부풀린다. KTA가 강구를 거듭해 마련한 처방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재미있는 태권도'다.

사실 KTA는 어떻게 해야 태권도가 매력(魔力)을 내뿜는 무도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 방책을 찾는 데 오랜 시간 공들였다. 최창신 회장 체제가 출범한 2016년 말부터 줄곧 묘계를 짜내려 골몰해 왔다. 지난해엔 태스크 포스(TF)팀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마침내 묘약 완성 단계까지 다다랐다. 이제 시험 무대에서 약을 쓰고 제대로 효능을 발휘하는지 과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2019년을 재미있는 태권도 원년으로 보고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배경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오로지 변화의 물결을 좇고 있다. 공정성과 흥미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허울뿐인 개혁을 추구하다가 태권도가 재미없는 무도 스포츠로 전락하는 고비를 자초했다. 복잡다단한 흐름의 갈래 속에서, 변혁은 모멘텀을 잃었다. 정체성 확립이 요원하게만 보이는 상황이다.

WT는 오직 변화의 수용만이 도태의 운명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듯한 태도다. 무게감을 찾기 힘든 행보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듭되는 경기 규칙 개정, 각국 태권도협회는 벅찬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 국기원도 다르지 않다. 통일된 기술 체계 보급에 힘이 부친 듯한 모습이 역력할뿐더러 무력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좋은 실례가 있다.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전자 호구 시스템은 초기에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그런데 초심을 잃은 채 개혁만을 내세운 잦은 변화에, 역설적으로 태권도 본연의 모습은 차츰 찾기 힘든 상태다. 전자 호구 시스템 아래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생존 의식은 변칙 기술만을 양산하고 있다. 도장에서 가르치는 기본 동작은 정작 대회에선 보기 힘들다. 종전엔 볼 수 없었던 발 펜싱이 판침으로써 "저게 무슨 태권도 발차기냐?"라는 자조적 푸념이 이곳저곳서 터져 나올 정도다. 자연스레 무도 스포츠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동떨어진 태권도의 매력을 잃은 모습에 팬은 실망감에 빠져 경기장을 외면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KTA는 이런 어리석은 행보를 더는 맹목적으로 답습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지고 있다. 재미있는 태권도의 정수를 태권도 고유의 모습에서 찾은 까닭이다.

"태권도의 원류를 되찾아 본연의 모습을 갖출 때, 위기를 호기로 반전시킬 수 있다. 태권도의 미래가 걸린, 무릇 태권도인이라면 진지하게 고심하고 추구해야 할 과업이다."



정윤조(오른쪽)

강한 설득력을 띠고 호응을 받는 최창신 회장의 주창이다. 근본을 잊지 않고 변화에 순응할 때 발전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변화의 겉모양과 속도에 발맞추려 급급할 때, 갈 길을 잃은 채 미로에서 방황하는 수순은 필연이다. 해답은 본바탕에 담겨 있게 마련이다.

모든 세상이 그렇듯, 변화 또한 순(順)과 역(逆)의 양면성을 지닌다. 순으로 기능했을 때엔 발전으로 향하는 변혁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작용했을 때엔 퇴보가 도사린 변재(變災)다. 근본을 잊지 않고 변화에 순응할 때 발전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변화의 겉모양과 속도에 발맞추려 급급할 때 갈 길을 잃은 채 어지러운 갈래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역동성', 재미있는 태권도 구현 지름길

무릇 태권도인이라면 한결같이 태권도가 재미있는 무도 스포츠로 자리 잡을 때 밝은 미래가 열리리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재미있는 태권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KTA가 재미있는 태권도란 어떤 것인가 그 구체화·현실화 작업에 발 벗고 나



세르베트 타제길(왼쪽·터키)

서 고심한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한국 태권도계에 널리 퍼진 정서와 기대치를 충족시킬 때, 태권도의 성장과 진화는 물론 KTA의 발전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주국 협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도 하다. KTA는 1961년 창립(당시 대한태수도협회) 이후 중앙도장(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탄생의 산파역을 다했다. KTA가 변화를 주도한 시절이 그리 오래전이나 아니다. WT가 한국이 국내 무대에서 시도한 5인 단체전을 월드컵 팀 챔피언십(현 월드 팀 챔피언십)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종주국의 새로운 경기 운영을 독려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溫故知新·온고지신].”라고 하지 않았나? 2019년 새해를 재도약의 해로 삼은 KTA는 경기 규칙 개정도 전자 호구 개선도 중심에 자리해서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 물론 모두가 재미있는 태권도의 연장선상에서 찾은 방책이다. 종주국으로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첫걸음이 재미있는 태권도 만들기라는 공감대 아래서 각계의 중지를 모은 묘안이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태권도 만들기는 KTA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태권도인들이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

다.”라는 최 회장의 역설과도 궤를 같이해서 마련한 처방전이다.

경기 규칙 개정의 핵심 키워드는 ‘역동성’이다. 맥이 풀리거나 느슨해지지 않고 생동감으로 넘치는 경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을 개정하는 쪽에,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 막판에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 다시 말해 큰 기술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역전의 묘미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주장에 모두가 뜻을 함께했다. KTA가 자문했던 각계는 똑같이 힘차고 활발한 플레이에 초점을 맞춰 규칙을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A는 ▲ 경기 규칙 개정 ▲ 전자 호구 시스템 개선 ▲ 심판 개혁에 대해 세 분야에서 의견을 구한 뒤 최종안을 만들었다. 먼저 겨루기 대회운영본부 5개 분과위원회(경기·심판·영상·판독·기록·질서)별로 제안한 의견을 수렴해 1차 안을 도출했다. 이를 TF팀이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하며 검토한 뒤 2차 안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각급 국가대표팀(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국가대표) 지도자가 모여 진지한 토의 끝에, 최종안이 모습을 갖추어 나타났다.

KTA는 올 초 이 최종안을 한층 세밀하게 가

다듬은 뒤 시연 무대를 통해 지도자와 선수는 물론 팬의 반응까지도 엿볼 계획이다. 시연회는 오는 4월 10일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재미있는 태권도 원년을 표방한 KTA의 야망이 구현될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재미있는 태권도 처방전, 시연회에서 약효 시험받는다

그렇다면 최종안은 어떤 골격을 갖추고 있을지 사뭇 궁금하다. KTA는 시연회 적용을 앞두고 마지막 손질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자세한 모양새를 밝히기를 다소 꺼리는 눈치다. 단지 재미있는 태권도의 길로 나가려는 근본 취지를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는 매무새는 선보이는 게 어렵지 않다는 자세다. 이를 이해하는 선에서, 과연 2019년이 재미있는 태권도가 첫걸음을 내디딘 원년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하는 것도 흥미로울 듯싶다. 먼저 ▲ 경기 규칙 개정 부분을 살펴보자. 두 제도 - 역전 포인트·파테르(Parterre) -가 먼저 눈에 띈다. 레슬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파테르를 도입하자는 발상은 무척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반복되는 감점 행위 및 명백히 악의적 반칙 행위 시에 파테르를 준다는 내용이다. 이때 공격권을 받은 선수의 상대방은 발을 들지 못하고 수비만 가능토록 했다. 단, 이 제도를 매 라운드에 적용할지, 마지막 라운드에서만 적용할지 여부는 시연회를 통해 결정기로 했다. 극적 반전의 묘미를 더해 줄 역전 포인트제는 두 경우를 상정했다.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기술 발차기로 상대방을 다운시키거나 얼굴 타격 후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에, 주심이 한판승으로 승패를 가름하는 방식이다.

추가 점수 및 감점 행위도 시선을 모은다. △ 발 공격으로 헤드기어를 날렸을 때 추가 점수

2~3점 부여 △ 공격 득점 후 추가 공격이 이뤄지면 추가 기술 점수를 부여해 연속 득점 활성화 △ 강한 주먹 공격 시 추가 점수를 줘 경기 판도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 △ 종료 2~3초 전 일부러 한계선 밖으로 뛰어 나가는 행위는 2~3점 감점 등에 각급 국가대표 코칭스태프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기 규칙 개정과 관련해 경기 시간 변화에도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KTA는 △ 3전 2선승 세트제 △ 5분 1회전 △ 1분 다회전 등 다양한 방식을 시연회 때 각 부(연령)별로 테스트 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 전자 호구 시스템 개선은 경기 방식과 연관시킨 주장이 힘을 얻었다. 파워 게이지 합산 승패 결정 방식은 매우 이채로웠다. 전자 호구 시스템에서 발현되는 타격치를 점수로 전환해 경기 시간 내에 최대치가 높은 선수의 손을 들어 준다는 기발한 구상이었다. 이와 함께 센서 범위를 넓힘으로써 다득점을 유도하자는 발상도 채택됐다.

▲ 심판 개혁에 대해서도 다채로운 의견이 수용됐다. △ 감점 선언 시 심판이 선수를 세우거나 경기장으로 정위치 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선수에게 감점을 부여한 뒤 경기를 속행하고 △ 수신호 간소화로 득점 및 감점 표출 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 시연회를 통해 감점별 지연 시간을 측정해 경기를 속행할 감점과 경기를 정지하고 선언할 감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심판 판정 체계 정비와 연계한 영상 판독 절차 간편화 주장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 주심이 영상 판독관 없이 직접 영상 판독 절차를 수행하고 △ 신청서 작성→ 제출→ 영상 확인 등 복잡한 절차로 경기가 지연되므로 국제 경기처럼 영상 판독 절차를 최소화하며 △

득점은 심판의 고유 권한이므로 감점에 대해서만 영상 판독을 인정하자는 안이 마련됐다.

KTA를 행복한 꿈에 젖어 들게 하는 요약, '폼새 최강전'

KTA는 재미있는 태권도를 위한 묘방을 위의 세 부문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았다. 역발상도 서슴지 않으며 묘약을 구하려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각고의 노력은 또 다른 형태의 결실로 이어졌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색다른 형태의 대회 신설이다. 더구나 겨루기가 아닌 폼새 대회라면 설부른 예단을 뛰어넘은 구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가히 '파격적 행보'라 할 만하다. 이름하여 'KTA 폼새 최강전(가칭)'이 탄생을 눈앞에 뒀다.

폼새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았다. 현지 인도네시아에서는 물론 한국 내에서도 찬탄을 불러 일으켰다. 폼새 경기가 열린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 플라나리홀을 가득 메운 수천여 명의 관중은 연신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했다. 또 위성 중계를 통해 관전한 국내 팬들은 화려하면서도 절도 있는 몸놀림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태권도 폼새가 이렇게까지 재미있을 줄 몰랐다. 대단하다."라는 폭발적 반응이 쏟아졌다. "재미없다."라는 말에서 쉽게 엿볼 수 있듯, 태권도를 대변하는 겨루기가 그동안 별다른 사랑을 받지 못했던 모습과 극히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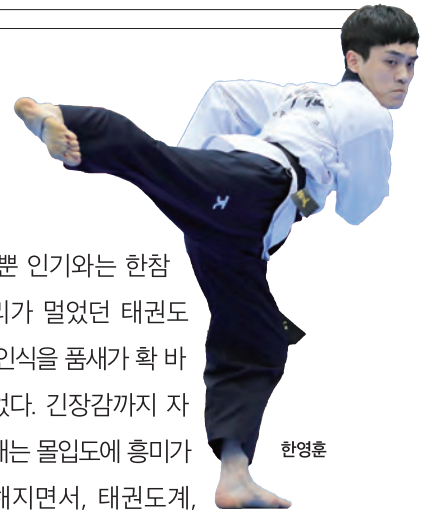
겨루기에 비해 훨씬 연륜이 짧은 폼새로선 실로 망외의 결실이 었다. '효자 종목'으로서만 평가받았

을 뿐 인기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던 태권도의 인식을 폼새가 확 바꾸었다. 긴장감까지 자아내는 몰입도에 흥미가 더해지면서, 태권도계, 아니 스포츠계의 총아로 급부상할 장밋빛 미래의 문을 열었다. 아시안 게임사에 국한할 때, 폼새는 신생아다.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폼새는 처음 실시됐다. 그런데도 단숨에 대도약의 구름판을 마련했다. 풋내는 오히려 더욱 진한 신선미를 느끼게 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KTA도 폼새가 일으킨 돌풍에 크게 자극받았다. 눈이 뜨이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KTA의 간절함이 빛낸 무대가 폼새 최강전이다.

오는 3월 초에 예정된 이 대회는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질 무대다. 무엇보다도 거액의 상금이 눈길을 잡아끈다. 우승 상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불꽃 튀는 경쟁을 이끌어 낼 강력한 요소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또한 TV 방송이 흥행을 보증한다. 이미 KTA와 SPOTV 사이에 일정 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경기도 일반 체육관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올림픽공원 K-아트홀 특별 코트에서 펼쳐진다.

상금-중계방송-무대의 삼자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극적 흥행 요소를 두루 갖췄으니, 대단원이 어떻게 장식될지 쉽게 눈앞에 그려진다. 행복한 꿈에 젖어 있는 KTA다. 자격도 있다. 풍요로운 결실을 기약할 만큼 정혈(精血)을 바치며 열과 성을 불사랐다면 충분히 누릴 만한 행복이다. 2019년을 보내고 KTA가 구가할 대풍가에, 벌써부터 귀가 먹먹해지는 듯싶다. ●



한영훈



곽여원

희망봉에 닿으려는 KTA가 설정한 2019년 방향타는?

정리 최규섭 사진 박성욱 KTA 경기부장, 강경훈

2019년을 알리는 정단(正旦)의 해가 힘차게 솟았다. 새로운 한 해의 첫날 아침,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다듬는다. 364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이해를 되돌아봤을 때 흠뻑 만족감에 젖고 싶다. 희망봉에 닿으려면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목표 설정이 중요한 까닭이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올해 이루려는 과업은 무엇일까? 각 부서장들의 각오를 통해 KTA의 2019 기해년(己亥年) 방향타를 엿봤다.

**사무처(처장 이상헌)
경기부(부장 박성욱)**

“재미있는 태권도가 뿌리내린 첫해로”

“2019년은 KTA에 무척 뜻깊은 한 해였다. 후세에 KTA 역사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의미 있는 자취를 남기려 한다. ‘재미있는 태권도’가 뿌리내린 첫해라는 평가를 기필코 받으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다. 재미있는 태권도에 어울릴 ‘재미있는 경기 문화도 확립하려 한다. 그 실현을 위해 두 키워드, ‘공정’과 ‘질서’를 가슴속에 새기고 열심히 뛰겠다.

올해는 올림픽 전해다. 2020 도쿄(東京) 올림픽에서 종가(宗家)의 자존심을 곧추세울 수 있는 묘방이 필요하다.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까닭이다. 지난해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11월·UAE)에서 대회 사상 으뜸의 전과(금 4은 3동 1개)를 올렸던 기세를 다시 떨칠 수 있는 방향으로 초



박성욱 경기부장

점을 맞추려 한다. 코칭스태프 선임에 최대한 신중을 기했던 건 이런 맥락에서다. 대한체육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강화 훈련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 아울러 철저한 정신 교육으로 일탈에서 올 수 있는 경기력 저하를 미연에 방지할 생각이다.

각급 국가대표팀 간 훈련 연계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와 국가대표 사이의 훈련 교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어린 선수에게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다기능적 효용 가치가 있다. 경기용품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한 공인 용품 확대도 더는 미룰 수 없다.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은 공정한 경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경기력 향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재미있고 공정한 태권도를 위한 상임 심판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하려 한다.”

도장사업부(부장 이종천)

“세 마리 토끼를 잡은 뜻깊은 해로”

“크게 세 마리 토끼를 쫓으려 한다. 올해 3대



이종천 도장사업부장

주축 사업으로 삼은 ▲ 태권도장 활성화 ▲ 심사 질서 확립 ▲ 생활체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달성키 위해 부가 지닌 총역량을 쏟겠다. 하나하나가 모두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 태권도장은 분명한 위기 상황이다. 성장이나 쇠락이냐의 갈림길에서, 지레 겁먹고 물러서서 지켜볼 수야 없지 않겠는가? 패배 의식은 사치일 뿐이다. 능동적으로 나설 때, 달콤한 과실의 맛을 누릴 수 있지 싶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먼저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관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 또 태권도장 성장을 위한 도장 경영 지원 콘텐츠를 제공하려 한다. 홈페이지와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한 홍보는 이의 연장선상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상담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데도 신경을 쓰겠다. 무엇보다도 한국 태권도장이 나가야 할 방향인 성인부 활성화에 주력할 생각이다. 이 맥락에서,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17개 시도 강사 직무 교육으로 지도자 자질을 확대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 교육 과정을 적

극적으로 실시하려 한다. 심사 질서를 확립하려는 뜻에서,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관리를 통해 누구나 수긍하는 심사 제도 확립에 매진하려 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동호인에게 기회



옥동곤 경영지원부장

의 장을 보다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양적 팽창뿐 아니라 경기 규칙 개정과 대회 선진화를 도모해 질적 성장도 이루려 한다. 생활체육 대회를 도장 활성화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사무2처(처장 류호윤)
경영지원부(부장 옥동곤)

“소통과 교감이 충만한 KTA 기풍이 정착한 해로”

“근본을 잊지 않으려 한다. 피상적 수치에 매몰돼 인성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더는 되풀이할 수 없다고 본다. 따뜻한 인간애가 넘치는 조직을 만드는 데 한 톨의 밀알이 되고 싶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조화를 이룬 조직 문화 창출에 이바지하려 한다. 소통과 교감이 소중한 까닭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솔선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를 가슴속에 새기고 부의 명칭과 기본 성격에 걸맞게 타 부의 목표와 활동을 이해하며 그 달성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 이때 ‘살아 숨 쉬는, 생동감으로 충만한 KTA’라는 평가가 나오리라 본다.

구체적으로 ▲ 업무의 표준화 ▲ 선행 관리 ▲ 회원 온라인 서비스 강화 ▲ 조직 효율 극대화에 힘을 쏟으려 한다. 각 부 업무가 일정한 틀을 갖추고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중환 전략사업부장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습성과 풍토 조성에도 신경 쓰려 한다.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제 증명서 발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 소모와 낭비를 줄이겠다. 적절한 업무 재분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 모든 과제를 해냈을 때, 각 부의 효율성은 물론 나아가 전 조직의 총 생산성은 절로 높아지리라 본다.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목표의 실현화에 힘쓰겠다.

잠재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잠자서야 되겠는가? 이를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하의상달의 의사 구조 형성에도 신경을 쓰겠다. 조직이 성장하려면 창의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밝힐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겠다.”

전략사업부(부장 김중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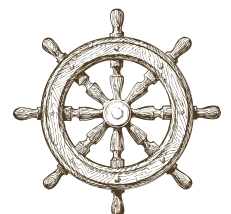
“남북 태권도 교류를 확대해 평화에 기여한 해로”

“태권도는 최근 세계 평화의 도래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인류의 화평을 위해 맨 앞에 서

서 이바지하는 데 전념하는 태권도의 공헌도를 지구촌 가족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요즘이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남북 시범단 합동 공연은 그 좋은 보기가. 남과 북의 팽팽한 긴장감을 완화함으로써 올림픽이 그 이념에 걸맞은 평화 제전이 되는 데 일익을 맡은 바 있다. 삭을 틔웠으니 열매를 맺고 꽃이 피도록 남북 태권도 교류 사업 확대에 주안점을 두려 한다.

스포츠와 미디어는 상생 관계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양자 간에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미디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친화적 대회 창설은 그 처방전 가운데 하나다. 가시화를 눈앞에 둔 품새 최강전과 시범 최강전(이상 가칭) 등은 능히 미디어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 본다. KTA가 올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미있는 태권도’와 같은 갈래의 가치로서, 팬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매력적 무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일선 지도자를 비롯해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바일을 위시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구상을 가다듬고 실현화 과정을 밟고 있다. KTA가 발간하는 『태권도』지(誌)도 모든 태권도인들이 모바일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겠다.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 지난해 태권도가 국기(國技)로서 법률적 지위를 획득한 만큼 접근성은 마련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안일한 사고에 젖어 안주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활동력의 모멘텀을 얻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스폰서십을 구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다.”



2019년 KTA에 바란다 ①

태권도의 '엘랑 비탈(Elan Vital)'을 기대하며

탈 많고 말 많은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왔다. 시간은 반드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를 지니지만, 단 한 번도 미래를 본 적은 없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으로 미래를 기대할 뿐이다.

우려스럽다. 태권도가 진정한 국기(國技)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최소한 국기로서 기본적인 면모를 갖추어 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우리는 흔히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도 스포츠다."라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국기 태권도'라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태권도는 국기로서 위상을 전혀 지니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 효자 종목'이라는 수식어 하나만으로 사실 온갖 사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명품으로 몸을 치감는다고 부실한 몸이 명품이 되지 않는다는 '종주국'에다 '국기'라는 명칭만으로도, 올림픽 효자 종목의 위상만으로 너무 과장되고 빛나는 찬사를 받아 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피와 땀으로 기술과 정신을 전파한 해외 사범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태권도는 세계적 무도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새로운 가치와 위상을 만들어 달라고 다시 종주국을 쳐다보는 세계인들의 눈빛에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답하지 못하면, 태권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올림픽 종목의 하나로만 남을 뿐 실체가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모든 무도와 스포츠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체력과 기술과 정신력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일본 청소년의 체력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력을 앞질렀다. 도장이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하면서도 도장에서 놀이와 즐김이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술은 분화되어 겨루기는 겨루기대로 품새는 품새대로 시범은 시범대로 각자 흘러가고 있다. 겨루기 경기는 이미 그저 경기 규칙에 맞춘 게임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태권도 경기가 재미없다고 누구나 말하고 태권도 기술이 저게 뭐냐고 누구나 말하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체력과 기술을 놔두고 태권도는 도대체 어떤 정신성을 지향하고 있는가? 태권도 정신에 대한 표현만 100여 개가 넘는다.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인데, 국민 체력은 일본보다 못하고 기술은 게임으로 전락하고 정신은 없다. 다시 말해 태권도는 이제 새로운 생명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엘랑 비탈(Elan Vital)'이라는 개념은 모든 생명의 다양한 진화나 변화의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 힘을 의미한다. 우리도 그 힘을 찾아야 한다.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다. 생명의 도약을 이루어 그야말로 새로운 진화가 이루어지는 해이기를 바란다. 태권도의 근원적 힘은 무엇이었을까? 태권도는 스피드와 파워 있는 다양한 발차기로 특징지어지는 무도 스포츠다. 그 근본적 힘을 상실하면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생명의 도약, 태권도의 재도약을 위해 근원적 힘을 되찾아야 한다. 무조

건 지금의 전자호구 채점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태권도의 스피드와 파워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호구 채점기가 반드시 개발되어야만 한다. 경기가 재미있고 흥미 있어야 관심이 식지 않는다.

체육관에서 다시 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놀이와 즐김이 주가 되는 체육관으로서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없다. 다시 발차기와 수련이 이루어지는 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어린이 대상에서 성인과 노인으로 수련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도장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국기'로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국기 태권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연구와 수련 과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신을 확립하여야 한다. 태권도 정신이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무사도 정신, 중국의 무협 정신에 버금가는 국기 태권도의 정신성을 만들어야 한다. 태권도를 살리는 근원적 힘은 태권도가 다시 태권도다워지는 것뿐이다. 2019년이 다시 근원을 되살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



류병관(용인대학교 태권도대학원 원장)

2019년 KTA에 바란다 ②

도장 지원 정책,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해야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는 10년 전부터 도장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지도자 교육을 몇 년 동안 모두 받아 보았다. KTA 지도자 교육은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과 같은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다. 태권도 교육 박람회 등을 비롯해 지도자 전문화 과정과 성인부 활성화 교육 등은 지도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은 있어도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태권도 컨설팅 업체가 하는 지도자 교육에 몇 번 간 적이 있다. 돈을 버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책으로 말하면 걸 포장지만 보여 주고 내용을 알고 싶으면 몇 백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으라는 것과 같아서, 실망하고 그 후부터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KTA가 주최하는 태권도 교육 박람회에 가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강사진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주변의 지인에게 태권도 지도자라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심도 있는 교육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배정된 강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처음 접하는 지도자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할 듯싶다.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초급·중급·고급 과정이어서, 초급자에게는 아주 유익하다.

그러나 여러 번 듣다 보면 한계가 보인다.

중급자가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 시간을 넉넉하게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 점을 보완한다면 최고의 단계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 지도자 교육 때 강사진과 대화하는 콘서트 시간이 있었다.

한 젊은 지도자가 태권도를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데 경쟁 도장은 놀이 체육만 하고 태권도를 등한시하는데도 그 도장의 수련생이 훨씬 많은 걸 보고 놀이 체육을 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도장을 먼저 개관한 선배로서 부끄럽고 태권도계 풍토가 안타까웠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심사가 강화되면 매일 품새를 해야 하고 태권도 교육을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놀이 체육을 할 시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놀이형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컨설팅 업체는 점차적으로 소멸할 성싶다.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있는 지도자가 많아지면서, KTA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심사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요즘 학부모는 아이가 국기원 심사에 응심하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심사 신청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심사를 앞두고 특별 심사 수업은 왜 해야 하느냐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선, 도장에서 태권도 본질 교육을 중시하고 국기원 심사

에 응심하면 일정 부분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심사 제도 개선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나, 대체로 합격하기 때문에 태권도 품·단증이 가치와 권위를 잃어 가고 있다. 이것은 도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필자도 태권도장에서 처음 태권도를 배워서 지도자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다. 태권도의 기초이자 풀뿌리는 태권도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점을 잊지 말고 KTA가 도장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



황태현(용인대 태권도장 관장)

KTA. 2019 기해년 어떤 운세일까?

글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일러스트레이션 김중균

총운

2019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태권도협회(KTA)를 의인화해 사주에 맞춰 올 운세를 봤다. 사주는 KTA 창립총회가 열린 1961년 9월 16일 오후 3시로 했고, 성별은 남성으로 했다.

용이 여의주를 품은 듯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기다.

그동안 막혀 있던 일이나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 해다. 철저한 계획과 그에 따라 실천한다면 큰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거나 자만하면, 자신의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 능력이나 분수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신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고 인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주위 사람들과 협조하고 상생한다면 더욱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듯싶다.



재물 운

올해는 노력하는 만큼 재물이 따라오는 시기다.

안정적 수입은 물론 새로운 투자도 시도할 만하다. 재물 운이 점점 상승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니 적극적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

윗사람이 주는 정보에 귀 기울이면 금전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만족하고 수익을 챙긴다.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도 신경 쓰며 늘 사려 깊게 덕을 베푼다면 이 또한 금전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늘 겸손한 자세로 주변의 인간관계를 다지는데 힘써야 한다. 현명한 투자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드높이는 결과까지도 낳을 수 있겠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금전적 면에서 풍족한 해를 보낼 수 있다.



사업 운

올해 직장 운이 상승하는 기세로, 사내에서 큰 성과를 올릴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는 시기다.

능력을 가장 잘 인정받을 수 있는 때이므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거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 있게 의견을 피력하는 게 좋겠다.

예컨대 회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여러 장의 기획안을 만들어 상사에게 보이는 방법도 자신의 책임감과 적극성을 어필하는 수단이 될 듯하다. 다만 지나친 자기주장은 자칫 아집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아울러 인간관계에 신경을 잘 쓴다면 사내에서 든든한 인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호회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 가능한 참여하는 게 좋다.



연애 운

올해 연애운은 최상이다.

마음먹은 대로 상대방이 움직이니, 연애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기가 되리라.

딱히 연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얼굴색이 밝아지고 전반적으로 외모에 물이 올라 매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주변에 이성이 들끓겠다. 이러한 상승세에 따른 자신감 덕분에, 스스로를 가꿀 여력도 생기니 더욱 금상첨화다. 이처럼 연애의 절정기인 만큼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만 한다면, 연애에 관한 한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신의 매력이 상승함에 따라 연인이 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무한한 애정을 받게 될 것이며 청혼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시험 운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데 운이 따르는 시기다.

상당히 좋은 편이며, 학습에서도 많은 길운이 있다. 실력만으로 따지면 문제 될 게 전혀 없으나, 체력적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공부에만 매진하다가 심신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로가 쌓일 때마다 중간중간 휴식을 통해 피로를 풀어 주지 않으면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망칠 수도 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걷기 운동 등을 통해 마음과 몸에 휴식을 주는 게 좋다. 특히 눈이 지치면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두통은 가벼운 질병이기는 해도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심신이 지쳐 공부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그때그때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큰 시험이 있는 날까지 최적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하겠다.

건강 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몸의 컨디션이 좋으니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져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술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평상시 술을 즐긴다면 취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문제가 없겠다. 가벼운 음주는 삶의 여유를 즐기고 사람들과 친분을 나눌 수 있기에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잦은 음주는 건강을 해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술자리에서 언행에 실수할 경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등산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운동 후 한 잔이라도 음주하면 운동한 공은 무로 돌아가니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게 좋다.



취업 운

좋은 편이다. 특히 그간 닦고 쌓아 온 능력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올 확률이 높은 시기다.

따라서 자신감만 갖고 침착하게 모든 상황에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승진이나 사내에서 큰 성과를 올리는 등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는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자신 있는 태도로 임하면 그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해지고 스스로를 복돋우게 된다. 따라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해결책이라고 믿는다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좋겠다. ㉠

2019을 기약할 겨울철 담금질 ①

지리산 정기로 담금질하는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글·사진 양택진 기자

아직 여명이 오지 않은 새벽, 어둠 사이로 수십 개의 하얀 입김과 지축을 울리는 뿔박질 소리가 조용하며 지리산 자락 구례 화엄사로 향한다. 옛된 티가 역력한 48명의 선수들이 새해 지리산의 정기를 듬뿍 호흡하며 국가대표를 향한 담금질의 하루를 시작한다.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이다. 기해년(己亥年) 벽두,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 김소희(한국가스공사)의 뒤를 이을 '태권도 증가의 동량(棟梁)들은 오늘도 흑한을 뚫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磨斧作針·마

부작침] 전진한다.

진호준·서정민·박주아,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에 뽑혀

한국 태권도를 앞으로 이끌어 갈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은 남자 24명, 여자 24명의 고등부 선수들로 꾸려진다. 전국 대회 입상 성적을 기준으로 실력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검증해 선발한 뒤 1월과 7월에 동계 하계 훈련을 실시한다. 2015년 동계 강화훈련부터

구례에서 담금질하며 미래를 향한 꿈을 불살랐다. 지난 9일 캠프의 문을 연 2019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강화훈련은 1월 28일까지 20일간(일수 기준) 실시된다.

남자 고등부에선, 지난해 전국 체육대회 남자 -63kg급 1위이자 튀니지 함마메트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표에 선발되었으며 2019 국가대표 1차 선발전 1위로 최종 선발전 출전 자격을 거머쥔 진호준(안중고), 1차 선발전 남자 -54kg급 2위로 최종 선발전에 합류한 서정민(한성고),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남자 -74kg급 2위에 오른 임진홍(문성고), 우수대회 남자 -68kg급 3위 장은석(광양고), 그리고 종별 선수권대회 우승자 성준영(강원 사대부고) 등이 선발되었다.

여자 고등부에선, 지난해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표로 선발된 바 있으며 회전 공격이 장기인 권지혜(수원 정보고),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2위인 박주아(영광고), 지난해 국방

2018년도 구례 동계 강화훈련 장면.



부장관기 여자 -67kg급 1위를 비롯해 꾸준한 기량을 펼쳐 온 박은지(성안고) 등이 뽑혔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태권도 전임 지도자로 선임되어 5년째 후보선수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정우 감독을 필두로, 손준길(상지여고), 안원(숙지고), 도해경(흥해공고) 코치가 호흡을 맞추게 됐다.

색깔 뚜렷 ... 체력과 기본기가 최우선

후보선수단의 색깔은 뚜렷하다. 무엇보다 체력과 기본기가 가장 우선이다. 오전에는 기초 체력과 전문 체력을 위주로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에 매진한다. 오후에는 발차기 체력훈련과 전술훈련 및 전자호구 대비 겨루기 스파링을 하고 그 외 자투리 시간에 변칙 동작을 각각 훈련한다. 고등부 남녀 각 체급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하지만 예외 없이 5년째 체력과 기본기에 중점을 둔다. 한국 태권도의 레전드인 올림픽 2연패의 황경선, 2008 베이징(北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차동민과 임수정, 2016 히우(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소희 등 한국 태권도를 대표하는 선수들 모두 서울체육고등학교 시절 박정우 감독이 키워 낸 제자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기본기다. 황경선은 2004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고, 김소희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 2011 경주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전자호구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종 변칙 기술이 난무하나, 종가의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은 언제나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기본기 훈련을 담금질의 대원칙으로 삼는다.

해외 전지훈련과

합동훈련의 순도 높은 시너지

세계태권도연맹(WT) 올림픽 랭킹 5위, 지난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코칭스태프진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손준길-안원 코치(왼쪽부터), 박정우 감독, 도해경 코치(오른쪽).

해 우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우승으로 당당히 2020 도쿄 올림픽 자동 출전권 레이스에 합류한 장준(홍성고), 여고부 연승 행진으로 경희대에 입학한 명미나, 삼성에스원 박보의, 한성고등학교 변명군, 설악고등학교 김민서, 관악고등학교 우하영, 숙지고등학교 천호현, 서울체고 장유진, 시온고등학교 김지원, 흥해공업고등학교 이예지, 울산 효정고등학교 송다빈... 최근 후보선수단에서 훈련한 선수들의 면면이다.

후보선수단의 평균 전력은 해마다 선발된 선수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합동훈련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나름 자부심을 지닌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면서 배가되는 시너지 효과다. 대형 팀을 제외하면 각 학교 에이스급 선수는 평소 훈련 과정에서 마땅한 파트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후보선수단 훈련 기간엔 평소 대회장에서 경쟁하던 같은 체급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더욱이 강도 높은 체력훈련은 평소 훈련량이 부족한 선수에게 좋은 보약이 된다. 실제로 후

보선수단에 참가했던 한 선수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강도 높은 훈련과 경쟁 선수와 합숙훈련이 좋아 다음 후보선수단 선발에서 제외될까 걱정해 발을 동동 굴렀을 정도다. 더불어 매해 실시되는 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2015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중국-베트남-투르크메니스탄-프랑스 등에서 진행된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 대회 참가는 후보선수단의 훈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2017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2017 아시아 실내 무도대회에 출전한 후보선수단은 성인 선수들과 겨뤘던 금 4, 은 2, 동 1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남자 -58kg급 결승전에서, 장준은 2017 타이베이(臺北) 하계 유니버시아드 이 체급 금메달리스트 이란의 하디 티란발리포르를 잡고 정상에 올랐고, 서강은 명미나-우하영이 각각 1위에 올라 한국 청소년의 기개를 뽐냈다.

추억이 아닌 자부심으로

남을 이름, '후보선수단'

올해 후보선수단의 구레 동계 강화훈련 역시 체력과 기본기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다. 특히, 훈련에 더해 강화훈련 기간 후보선수단으로서 몸에 익히게 될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중요하다.

박정우 감독은 "매해 해외 훈련까지 합쳐 50일 정도 한술밥을 먹는다. 이들 모두가 다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꼭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자기 이름과 태극마크가 달린 도복을 입고, 우리가 한때 후보선수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선수들이 알았으면 한다.

단순히 추억이 아닌 먼 훗날 돌아보더라도 자부심으로 남아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18년도 태권도 꿈나무 선수단 동계 합숙 훈련에 참가한 지도자와 선수가 함께 모여 기념 촬영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도 같이해 더욱 뜻깊은 순간이었다.

2019을 기약할 겨울철 담금질 ②

태권 꿈나무의 함성이 겨울을 깨우다

글 류호경 사진 심덕진 씨 제공

“한국 태권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재륜 대한체육회 태권도 전담 지도자가 확신했다. 매서운 한파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초.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선수들로 구성된 꿈나무 태권도 선수단이 무주 태권도원의 이른 아침을 깨웠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56명의 발걸음은 힘찼다. 동계 훈련의 포문을 열고 상승의 기해년(己亥年)을 다짐했다. 구슬땀을 흘리며 훗날의 국가대표를 기약한 이들의 14박 15일은 어땠을까?

무주의 겨울을 재촉하다

선수단 선발 과정은 까다로웠다. 소년 체육대회 체급을 기준으로 승인된 전국 대회와 소년 체전을 포함한 지역 선발전 등위에 경기력 점수를 부여했다. 체급별로 등수가 매겨졌고, 1차 평가에서 초등 5~6학년 총 112명의 선수가 뽑혔다. 2차 평가로, 한국 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체격·체력 측정이 진행됐다. 순발력·민첩성·지구력 등 여러 항목에서, 평가가 이어졌다. 신체 조건도 태권도 선수에

적합해야 했다. 1, 2차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상위 56명(남 32·여 24)이 꿈나무 선수단에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 집결했다. 한 명의 불참도 없었다. 이재륜 전담 지도자가 감독 역을 맡아 앞장을 섰고, 이성탁·이은정·김민아·강희주·윤순·혁·안윤섭 코치가 뒤를 받쳤다.

합숙 훈련은 동계 훈련 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상해 예방 체력 훈련, 멘탈 트레이닝, 그리고 태권도 기술 전술 훈련도 꾸준히 이어졌다. 강행군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다. 태권도원의 넓은 자연 공간과 훈련장도 합숙 훈련에 큰 도움을 줬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태권도원의 환경이 선수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번 합숙 훈련에서, 이 전담 지도자는 파트별 훈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전담 지도자는 기술 전술 훈련을 단체가 아닌 파트별

로 나눠 오전·오후 두 차례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훈련의 성과나 만족도가 높았다. 기존에는 56명의 선수가 단체로 훈련해 왔는데, 이렇다 보니 선수에게 필요한 부분을 섬세하게 집어내지 못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파트별 훈련을 도입한 이 전담 지도자는 “훈련의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 똑같은 시간을 훈련하고 더 나은 성과를 얻었다. 가장 긍정적 부분은 소외된 선수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56명이 함께 훈련했을 때 관심이 집중되는 선수가 있는 반면,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 무심코 지나치는 선수가 있기 마련이다. 코치 1명이 소수의 집단을 맡아 훈련하니, 대화도 많아지고 선수들의 집중도가 높았다.”라고 말했다.

동기 부여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있었다. 지난해 꿈나무 선수단 출신의 중학부 선수들을 초청해 합동 훈련을 계획했다. 지도자들이 직접 연락하며 발로 뚫은 결과였다. 주말에 진행된 합동 훈련에는 학부모까지 초청했다. 훈련을 과감하게 공개해 자녀의 성장 과정과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시켰다. 학부모들은 기대 이상의 호응을 보였다.

이은정 코치는 “한 학부모님은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태권도 선수로 중학교에 진학시켜도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웬만하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원할 정도였다. 뿌듯했다. 공개 합동 훈련에서 5인조 단체전을 진행했는데, 다들 경기에 빠져 응원하시고 세컨드

이재륜 대한체육회 태권도 전담 지도자.



가 돼서 직접 지시도 내리셨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의젓하게 훈련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종가 태권도의 미래를 엿보다

이재륜 전담 지도자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유망한 선수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조희재(신림초등학교 6학년)와 박태찬(신용초등학교 6학년)을 지목했다. 아울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이 전담 지도자는 조희재를 “훈련을 좋아하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조희재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훈련에서 제외되는 걸 특히 싫어했는데,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훈련에 참가했다. 이 전담 지도자는 “발차기 한 동작도 허투루 하지 않는, 재능과 노력을 겸비한 선수다.”라고 평가했다.

박태찬은 몸의 부드러움이 남다른 유망주다.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태권도에 흥미와 욕심을 가지고 있어, 장래가 촉망된다.

이 전담 지도자는 “합숙 훈련에 참가한 56명의 선수는 모두 훌륭하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조희재와 박태찬은 그중에서도 신체 능력이나 생활 습관이 모범이 되는 선수들이다. 이미 소년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진학 후에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14박 15일간 꿈나무 선수단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숨은 조력자도 있다. 우선 김범용 태권도진흥재단 홍보마케팅부 과장을 꼽을 수 있다. 김 과장은 꿈나무 선수단의 3~4개 파트별 훈련 장소를 확보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훈련과 생활을 비롯해 선수단의 적지 않은 의견을 수렴해 합숙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일조했다. 최우진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경기부 주임도 못지않은 협조자다. 이 전담 지도자는 “합숙 훈련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도자들의 몇 가지 요청이 있었는데, 최 주임이 빠른 행정 처리로 마음을 편하게 해 줬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해 예방 체력 훈련에 필요한 갖가지 용품은 AU스포츠에서 스폰서를 자처했다. AU스포츠는 피트니스와 헬스를 포함해 기구 운동 전반에 걸친 용품을 제작하는 업체다. 이렇다 보니 훈련 특성에 맞는 밴드나 짐볼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꿈나무 선수단은 코어 운동과 밸런스를 맞추는 데 효과적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 전담 지도자는 “꿈나무 선수들은 한국 태권도의 미래다. 유망주 육성 사업을 통해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짧지만 유익한 훈련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린 선수들이 태권도를 좋아하게 돼서 기쁘다. 투기 종목이라 무서움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고된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합숙훈련 마지막 날 선수들의 뿌듯하고 행복한 표정을 봤다. 이것이 이번 합숙훈련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성과는 졸업 앞둔 6학년 선수들의 태권도 진학률이 100%다.”라고 말했다. ●

우리의 미래를 밝힐 꿈나무 양성 훈련

꿈나무 선수단 동계 합숙 훈련은 지난해 12월 9일 종료되었다. 이 사업은 2017년 8월 대한체육회의 주최 주관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네 차례(동·하계) 합숙 훈련 형식으로 이어져 왔다. 선수는 경기력 점수와 체력 테스트를 거쳐 선발됐고, 지도자는 KTA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 발탁됐다. 태권도 꿈나무들이 희망을 안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유망주 육성 사업이 지속되길 바란다. 꿈나무는 우리의 미래다.

2019년 일정표는 어떻게 흘러갈까?

클 최규섭

기해년(己亥年)을 밝힌 원단의 해가 솟은 지도 벌써 며칠이 흘러갔다. 발길을 재촉하는 이도 없건마는 해는 쉼 생각이 전혀 없는 듯 싶다. 자연의 섭리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을 쏘냐 하는 양 어김없이 솟았다 지기를 되풀이할 뿐이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는 해를 닦으려 한다. 해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려는 마음을 다지고 자세를 가다듬는다. KTA가 가려는 2019년 길을 미리 가본다. 아울러 국제 마당에선, 어떤 대회가 어떤 일정표에 따라 펼쳐지는지 살펴본다.

국내

한 치 빈틈도 찾기 힘들 만큼 꽉 짜인 일정의 연속

대회의 시작점도 종지점도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2월 11~12일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2019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 대회(겨루기)가 시즌의 문을 연다. 그리고 11월에 2020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 대회(겨루기)가 시즌의 문을 닫는다(날짜·장소 미정). 한 나라의 위세를 좌우하는 국가대표를 뽑는 무대의 중요성이 엮보이는 대목이다.

2019시즌 일반 무대의 막은 제14회 제주 평화기 대회(2월 15~21일 한라체육관)에서 올라간다. 기지개를 켜 국내 대회는 이후 숨 가쁘게 벌어진다. 3월 종별 선수권 대회(고교부·일반부)와 제46회 대학 개인 선수권 대회가 봄이 왔음을 알린다. 봄소식과 함께 꽃망울을 터뜨린 데 힘입어 꽃이 피고 낙엽이 지기까지 숨을 고를 겨를 없이 각종 대회가 열린다. 제54회 대통령기 단체 대항 대회(7월)를 비롯하여 2019 남녀 우수선수 선발 대회

2019 국내 주요 대회·행사 일정			
월	일	대회·행사명	장소
1월	18일	KTA 결산 이사회	서울 올림픽파크텔
	20~21일	2019 경기 규칙 강습회(겨루기·폼새)	무주 태권도원
	25~26일	KTA 강사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시도 강사 직무 교육(1차)	서울 올림픽파크텔
	27~30일	2019년도 KTA 상임 심판원 교육(겨루기·폼새)	무주 태권도원
2월	28일	2019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11~12일	2019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 대회(겨루기)	창녕 군민체육관
	15~21일	제14회 제주 평화기 대회(겨루기·폼새)	제주 한라체육관
	15~21일	생활체육 심판 자격 교육(1~2차)	
3월	22~28일	제10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최종 선발 대회 겸 제5회 아시아 청소년 폼새 선수권 최종 선발 대회 및 제15회 한국 중학교교연맹 회장배 폼새 대회	창녕 군민체육관
	14~21일	2019년도 종별 선수권 대회(고교부·일반부) 겨루기	영천 체육관
	16~17일	제12회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대회	
	26~4월 2일	제46회 대학 개인 선수권 대회	
4월	10일	재미있는 태권도(겨루기) 시연회	제천 실내체육관
	11~19일	2019년도 종별 선수권 대회(중학부) 겨루기·폼새	제천 실내체육관
	15~17일	제33회 문화체육관광기 체육고등학교 체육 대회	부산
	19~21일	제13회 한국 실업연맹 회장기 대회	철원 체육관
5월	25~28일	생활체육 대축전	충주
	25~30일	제30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파견 국가대표선수 선발 대회	
	25~5월 4일	제46회 한국 중학교교연맹 회장기 대회(겨루기)	강원도
	9~16일	제21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남녀 중학교교 대회	광주 빛고을체육관
6월	10~12일	제16회 계명대학교 총장배 폼새 대회	무주 태권도원
	18~19일	KTA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미정	어린이 태권왕 대회	함양
	25~27일	제48회 전국 소년 체육 대회 태권도 경기	무주 태권도원
7월	6~8일	제12회 나사렛대학교 총장배 폼새 대회	천안 유관순체육관
	8~9일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생활체육 대회	
	21~23일	제49회 협회장기 단체 대항 대회 겸 2020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 대회(겨루기)	태백 고원체육관
	22~27일	제1차 미래 인재 양성 교육	
8월	미정	제18회 여성가족부 장관기 여성 대회 겸 제17회 한국 여성연맹 회장배 폼새 대회	화천
	13~14일	제2차 미래 인재 양성 교육	
	16~23일	제54회 대통령기 단체 대항 대회 겸 2020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 대회(겨루기)	김해 실내체육관
	19~20일	KTA 강사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시도 강사 직무 교육(2차)	
9월	24(수)	제5회 대한 태권도협회 회장배 5인조 단체 대항 대회	김해 실내체육관
	31~8월 10일	제3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남녀 중학교교 대회(폼새·겨루기)	태백 고원체육관
	17~20일	제16회 대한 태권도협회 회장배 폼새 선수권 대회	철원 체육관
	22~26일	제5회 태권도원 선수권 대회	무주 태권도원
10월	23~25일	2019 실업 최강전 대회	제주
	미정	2019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초등학교 대회	고창
	24~25일	제3차 미래 인재 양성 교육	
	24~25일	제17회 대한체육회회장배 생활체육 대회	
11월	28~9월 4일	제42회 한국 대학연맹 회장기 대회	
	19~26일	제28회 국방부 장관기 단체 대항 대회 겸 2020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 대회(겨루기)	문경 국군체육부대
	28~29일	제4차 미래 인재 양성 교육	
	5~9일	제100회 전국 체육 대회 태권도 경기	서울
12월	미정	2019 한국 초등연맹 회장기 어린이 대회	정읍
	12일	태권도 페스티벌	
	19~20일	제5차 미래 인재 양성 교육	
	26~27일	KTA 지도자 전문 교육 과정	
11월	5~9일	2019 남녀 우수선수 선발 대회 겸 2020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 대회(겨루기)	창녕 군민체육관
	16~17일	제2회 실버 경연 대회	
	25~27일	제20기 123급 겨루기 심판 연수 교육	무주 태권도원
	28~30일	제23기 123급 폼새 심판 연수 교육	무주 태권도원
미정	2020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 대회(겨루기)		
12월 7일	제13회 태권도장 경영 및 지도법 경진 대회		

(11월) 등이 매달 촘촘히 열리며 태권도 팬을 가 있다. 4월 10일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열 손짓한다. 이 가운데 눈길을 잡아끄는 무대 리는 재미있는 태권도(겨루기) 시연회다. 최

창신 회장 체제에서, KTA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재미있는 태권도'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 줄 마당이다. 시도 협회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제100회 전국 체육 대회(10월 4~10일) 태권도 경기는 5~9일 서울에서, 제48회 전국 소년 체육 대회 태권도 경기는 5월 25~27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각각 벌어진다.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태권 전사의 불꽃 튀길 각축전이 불 만한 마당이다.

KTA는 도장 분야도 각종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마련했다. 상반기에 백미인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5월 18~19일)를 선봉으로 내세우고, 하반기에 지도자 전문 교육 과정(10월 26~27일)으로 뒤를 받친다. 미래 인재 양성 교육도 네 차례(6·7·8·10월)씩이나 열어 태권도의 앞날을 개척할 지도자를 길러 낸다. KTA는 생활체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생활체육 대추전(4월 25~28일)을 위시해 제12회 국무총리배(3월 16~17일),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6월 8~9일), 제17회 대한체육회장배(8월 24~25일) 등을 마련해 동호인을 부른다.

국제 세계 선수권 비롯해 빅 이벤트 줄줄이

2019년은 2020 도쿄 올림픽의 메달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한 해다.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주관하는 대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계 선수권 대회가 도쿄(東京) 올림픽(7월 24일~8월 9일)보다 14개월여 앞서 열리기 때문이다. 올 대회는 5월 15~19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다. 올림픽(G-20)에 이어 두 번째 등급(G-12)의 이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올림픽 직황의 척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남녀 모두 우승을 다시 일굴지도 관심이다. 2년 전 무주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한국은 남자(금 3·동 1개)

와 여자(금 2·은 1·동 3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남자는 러시아(금 1·은 3·동 1개)를, 여자는 터키(금 2·은 1개)를 각각 2위로 밀어내고 우승 축배를 들었다. 남자는 2015 첼랴빈스크 대회 때 빼앗긴 패권을 2년 만에 되찾았다. 여자는 2011 경주 대회부터 4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1973년 서울에서 발원한 이 대회에서, 한국은 남녀를 합한 종합 성적서 성적을 합한 우승을 단 한 차례도 놓친 바 없다. 1985 서울 대회까지 남자부만 열린 초창기에 7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그리고 여자부가 함께 열리기 시작한 1987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30년이 흐르는 동안 남녀 종합 16연패라는 경이적 대기록을 세웠다. 물론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도쿄 올림픽과 관련된 이벤트로, 9월 27일 지바(千葉)에서 테스트 무대가 펼쳐진다. WT와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함께 태권도 경기가 올림픽 때 시스템에 따라 제대로 작동될지를 사전 점검하는 대회다. 현행 올림픽 티켓 배정 방식에선, 올림픽 랭킹이 무척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각 체급별 올림픽 랭킹 1~5위는 자동으로 올림픽 티켓을 배당받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WT 그랑프리 대회는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에 없는 무대다.

세계 선수권에 비해 등급은 낮으나(G4~G8)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이 많다. 그랑프리는 올림픽이 없는 해엔 보통 파이널 대회까지 네댓 차례 열려, 호시탐탐 올림픽 티켓을 노리는 이들로선 언제든지 역전을 노릴 수 있어서다.

2019시즌에도 네 차례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대회는 올림픽에 도전해 보라고 손짓한다. 1차(6월 7~9일) 로마 대회에서 막이 오른 뒤, 2차(9월 13~15일) 지바 대회와 3차(10월 18~20일) 소피아 대회를 거쳐 파이널(12월 6~7일) 모스크바 대회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WT 월드컵 팀 선수권 대회(G-8)는 8월 23~25일, WT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대회는 12월 12~22일 모두 중국 우시(無錫)에서 열린다.

또 두 번의 종합 대회에서 태권도가 치러진다. 2019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7월 3~14일)에선 7~13일에, 제7회 CISM(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우한(武漢) 세계 군인 체육 대회(10월 18~27일)에선 23~26일에 각기 태권도 경기가 벌어진다. 이 밖에 제12회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대회(G-2)가 7월 4~10일 호반체육관에서 펼쳐진다. ●

2019 국제 주요 대회 일정

월	일	대회 행사명	등급	장소
4월	26~28일	2019 WT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1차 예선 대회	G-2	중국 우시(無錫)
5월	15~19일	2019 세계 선수권 대회	G-12	영국 맨체스터
6월	7~9일	2019 WT 그랑프리 1차 대회	G-4	이탈리아 로마
7월	4~10일	제12회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대회	G-2	춘천 호반체육관
	7~13일	제30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태권도 경기		이탈리아 나폴리
	15~18일	김윤용 국제 오픈 대회(품새 겨루기)	G-1	서울
	19~23일	제3회 아시아 카뎀 선수권 대회(겨루기 품새)		요르단 암만
	미정	제5회 아시아 주니어 품새 선수권 대회		미정
8월	15~18일	제10회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	G-1	베트남 호치민
	23~25일	세계 카뎀 선수권 대회	G-8	중국 우시(無錫)
9월	13~15일	제2회 아시아 오픈 대회(품새 겨루기 팀)	G-4	일본 지바
	27일	2019 WT 월드컵 팀 선수권 대회	G-1	일본 지바
10월	18~20일	2019 WT 그랑프리 2차 대회	G-4	불가리아 소피아
	23~26일	2020 도쿄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G-2	중국 우한(武漢)
11월	1~3일	2019 WT 그랑프리 3차	G-2	중국 우시(無錫)
12월	6~7일	제7회 CISM 세계 군인 체육 대회 태권도 경기	G-8	러시아 모스크바
	17~22일	2019 WT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2차 예선 대회		중국 우시(無錫)

기해년(己亥年), 맨체스터를 향한 ‘왕좌의 게임’이 시작된다

글·사진 양택진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품는 이때, 새해 벽두부터 전국의 동계 훈련지엔 번뜩이는 눈빛으로 촉한을 뚫고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비처럼 흘리는 예비 국가대표들이 있다. 과연 누가 2019년 한국 태권도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인가? 2020년 도쿄(東京) 올림픽을 한 해 앞두고 2019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회를 분수령 삼아 왕좌를 차지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각자의 각오를 담금질해 격돌한다. 오는 2월 11일, 경남 창원 군민체육관에서 그 시작을 알리는 2019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 대회가 막을 올린다. 오는 5월 영국 맨체스터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로마, 일본 지바, 불가리아 소피아,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우시, 그리고 중국에는 도교를 향하는 점화가 드디어 시작된다.

도교를 노리는 자, 2019년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을 잡아라!

한국 태권도에서 올림픽을 일 년 앞둔 해는 경기 전문가의 분석과 전망이 요동치는 시기다. 그 특이점은 2015 첼라빈스크 세계 선수권 대회를 발판으로 2016 히우(리우) 올림픽 자동 출전권을 손에 넣은 오혜리(춘천시청)의 케이스를 돌아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당시 세계 선수권 여자 -73kg급 출전을 앞두고 있던 오혜리의 세계태권도연맹(WT) 여자 -67kg급 올림픽 랭킹 포인트는 120점을 상회

하고 있었다. 올림픽 체급을 기준으로, 남녀 각 4개 체급 상위 여섯 명에게 주는 2016 올림픽 자동 출전권은 오혜리에게서 아직 멀리 있었다.

그러나 첼라빈스크 세계 선수권대회 여자 -73kg급서 1위를 한 오혜리는 G12에 해당하는 120점을 쳤고, 동시에 이 점수가 올림픽 체급 여자 -67kg급으로 합산되며 6위권으로 바짝 따라붙었다. 이어 그해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월드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G4에 해당하는 40점을 얻어 6위 이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결국 오혜리는 2016 올림픽 자동 출전권을 획득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우 올림픽 -67kg급 금메달리스트로 등극했다.

그만큼 올림픽을 한 해 앞둔 세계 선수권대회는 중요하다. 이미 올림픽 자동 출전권 범위에 들어 있는 선수에게는 확실한 굳히기를 할 수 있는, 그 밖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선수들에게는 마지막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다. 따라서 세계 선수권대회를 발판으로 그랑프리 레이스에 합류하는 것은 올림픽을 꿈꾸는 모든 선수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한국 태권도계 세대교체의 변곡점도, 지키려는 자의 치열한 몸부림도 매해 첫 대회로 치러지는 최종 선발전에서 펼쳐진다.

뜨겁고 재밌다...

김태훈과 장준의 빅 매치는 성사될까?

지난해 1점 차 승부의 라이벌 드라마로 가장



2015년 첼라빈스크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으로 2016 히우(리우) 올림픽 자동 출전권 발판을 마련한 오혜리.

뜨거운 관심을 받은 두 주인공은 김태훈(수원시청)과 장준(홍성고)이다.

김태훈은 2013 푸에블라, 2015 첼라빈스크, 2017 무주 대회에서 세계 선수권을 3연패했을 뿐만 아니라 2014 인천 대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대표 1진 타이틀을 계속 지킨 경량급 세계 최강자로, 그야말로 철벽이었다. 강력한 체력과 오른발 압박에 의한 공격에, 국내외 모든 선수가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김태훈에게 적수



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경쟁이다. 김태훈은 아시안 게임 남자 -58kg급 선발전 1위, 남자 -54kg급과 -58kg급서 상위 랭커로 최종 선발전 출전 자격을 갖췄다. 장준은 2018 호치민 아시아 선수권대회 -54kg급과 -58kg급 통합 체급 선발전 1위, 세계 랭킹 -58kg급 차상위자로 최종 선발전 출전 자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 선수 모두 -54kg급과 -58kg급 중 자신이 원하는 체급을 선택해 최종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장준이 -54kg급으로, 김태훈이 -58kg급으로 각각 출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두 선수는 열 번째 격돌을 피할 수 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처지에서도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을 향한 가장 이상적 그림이다. 그러나 만일 두 선수 모두 -58kg급으로 출전하면, 둘 사이의 열 번째 맞대결이 성사된다.

체력과 압박으로 상대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세계 최강자 김태훈, 원발 머리 내려차기와 위기 돌파 능력으로 슈퍼 루키에서 절대 강자로 단숨에 등극한 장준. 과연 이 둘은 서로를 피해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대회 실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경량급 최강자의 타이틀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대격돌을 선택할

는 없어 보였다. 2016 올림픽 남자 -58kg급 첫 경기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하고 패자 부활전을 통해 동메달을 따긴 했어도, 2020 올림픽까지 김태훈과 맞설 국내 도전자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장준이 나타났다. 2016 종별 선수권대회 고등부 우승이 시작이었다. 그해 11월 캐나다 버나비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서, 장준은 결승전 종료 직전 과감한 원발 머리 공격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성장세는 무척 가팔랐다. 2018년 국가대표 최종 선

맞붙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김태훈(왼쪽)과 장준.





국가대표 1진 10년 대기록에 도전하는 이대훈.

것인가? 누가 2019년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주사위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다.

전무한 대표 1진 10년의 역사는 완성될 것인가?

단연컨대 태권도 역사상 아직까지 이런 선수는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듯싶다. ▲ 고등학교 3학년 때 2010 광주우 대회 금메달을 시작으로 2014 인천 대회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아시안 게임 3연패 ▲ 2011 경주 대회에서부터 2013 푸에블라 대회, 2015 첼라빈스크 대회, 2017 무주 대회까지 세계 선수권 4회 연속 출전 및 3회 우승 ▲ 월드 그랑프리 통산 12회 우승,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4연패, WT 올해의 선수 4회 수상, 그리고 9년간(햇수 기준) 한국 국가대표 1진을 단 한 차례도 놓치지 않은 '노력이 낳은 천재'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 과연 국가대표 1진 10회 연속의 대기록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대훈은 지난해 두 번의 패배를 경험했다. 그 첫 번째는 지난해 10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99회 전국 체육대회 남자 -68kg

급 준결승전이었다. 상대는 삼성에스원의 신동윤. 도대체 언제 이대훈이 패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훈이 1점 차로 패했다. 당시 관중석에선, 이번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두 번째 패배는 지난해 12월 그랜드 슬램 준결승전. 기존과 다른 라운드 방식으로 치러진 이 대회에서, 올림픽 랭킹 1위 이대훈은 랭킹 7위인 영국의 브래들리 신든의 원발

2018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이아름(왼쪽)의 경기 장면.



에 역전패했다.

공교롭게도 국내의 무대에서 한 번씩 패한 이대훈은 과연 이번 최종 선발전서 다섯 번째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을 성사시킬 것인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역시 신동윤이다. 신동윤은 지난해 아시아 선수권대회 선발전 남자 -68kg급 1위로 출전 자격을 갖추었다. 이대훈 역시 신동윤을 가장 까다로워 한다. 여기에 올해 인천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로 진학하는 서강은, 우수대회 3연패를 달성한 박지민(용인대학교), 그리고 -68kg급 올림픽 랭킹 8위에 올라 있는 김석배(삼성에스원)가 이대훈의 아성에 균열을 내기 위해 도전한다. 특히, 김석배는 올림픽 랭킹 8위로, 올 세계 선수권 대회와 그랑프리 시리즈 성적 여하에 따라 올림픽 랭킹 5위 이내로 진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일 5위 내로 진입하면 내년 초 이대훈과 도쿄 올림픽 출전 티켓을 다툴 가능성도 마냥 배제할 수만은 없다.

한국 태권도 남자 -68kg급의 주인공은 2019년에도 이대훈일까, 혹은 대반란이 펼쳐질까? 결과는 2월 11일 창녕에서 판가름 난다.

김유진(오른쪽)의 2019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경기 장면.





남궁환(왼쪽)의 2018년 최종 선발전 경기 모습.



박우혁(왼쪽)의 2019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모습.



이화준(왼쪽)의 2018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장면.

이아름이 돌아왔다... 경계 0순위 김유진

이아름에게 2017년은 최고의 해였다. 무주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그토록 꺾고 싶었던, 올림픽 2연패에 빛나는 올림픽 랭킹 1위 영국의 제이드 존스를 준결승전서 왼발 내려차기로 침몰시켰고, 그 기세를 몰아 여자 -57kg급 우승과 함께 대회 MVP(최우수 선수)에 뽑혔다. 그랬던 이아름에게 2018년은 시련의 해였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종료 직전 역전을 허용하며 2연패를 눈앞에서 놓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운전이 적발되며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아름이 2019년 돌아온다. 지난해 푸자이라 그랑프리 파이널대회에서 1위에 오르며 랭킹 2위로 복귀한 이아름은 세계 선수권대회 2연패를 노리고 최종 선발전에 출전한다. 이아름의 상대로는 김민선(한국체육대학교), 김유진(서울체고), 윤정연(인천광역시 동구청)이 손꼽힌다. 이 중 김유진은 180cm가 넘는 장신으로, 이아름의 아성을 넘본다. 김유

진은 당초 국가대표 예선대회서 인접 체급으로 1차 선발전 티켓을 확보했다. 그러나 1차 선발전서 체급을 올려 출전해 최종 선발전 참가 자격을 뺏다.

스텝과 오른 주먹과 왼발 몸통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이아름, 장신의 이점을 살린 오른발 머리 공격으로 다득점 경기를 펼치는 김유진, 여기에 관록의 윤정연 중 과연 누가 맨체스터행 티켓을 거머쥘까? 변수는 당일 컨디션이다.

취약 체급 남자 -80kg급, 남궁환·박우혁·이화준 등판 대기

남자 -80kg급은 한국의 취약 체급이다. 최종 선발전 참가 자격을 주는 세계 랭킹 16위 이내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더욱이 이 체급은 올림픽 랭킹 1위 막심 흐람트코프(러시아), 2위 셰이크 살라 시세(코트디부아르), 3위 밀라드 베이저 하르체가니(아제르바이잔) 등 쟁쟁한 강자들이 버티고 있어, 국제 대회서 한국이 넘보기 힘든 체급이다.

신장·스피드·파워·기술을 모두 겸비한 해외

강자들을 상대로 2019년에는 한국의 새로운 스타가 나올 수 있을까?

우선 남궁환(한국체대)이 첫 번째 주자다. 지난 두 번의 우시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에서 쟁쟁한 강호들을 제치고 두 번의 결승전을 치렀다. 비록 두 번 모두 흐람트코프에게 분패하기는 했어도, 한국이 내세우는 -80kg급 선두 주자다.

여기에 2018 아시안 게임에서 석패한 이화준(성남시청)이 물러서지 않는 투지를 내세워 최종 선발전에 출전한다. 또 한 명 주목할 선수는 박우혁(강원체육고등학교)이다. 신장과 스피드, 그리고 발차기 센스가 남다른 박우혁은 일찌감치 차세대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셋별 강보라, 어디로 뿔까? ... -46kg 아니면 -49kg?

지난해 아시아 선수권대회와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치러진 두 번의 최종 선발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강보라(성주여자고등학교)였다. 호치민 아시아 선



강보라(오른쪽)의 2018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장면.



2018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대회 결승전에서, 한국 여자 태권도의 히로인인 김소희(오른쪽)가 맞수 빠니백 왕빠따나깃을 공략하고 있다.

수권대회에선 올림픽 랭킹 1위인 태국의 빠니백 왕빠따나깃을 꺾으며 단숨에 국제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가 독이 되었을까? 이어진 아시안 게임에선 금메달 0순위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8강전서 왕빠따나깃에게 3회전 대량 실점으로 패하며 주춤했다. 불운도 겹쳤다. 여자 -49kg급서 쟁쟁히 버티고 있는 선배들인 김소희(한국가스공사), 심재영(고양시청), 하민아(삼성에스원)와 도쿄 올림픽 출전권 경쟁서 동등한 자격을 얻기 위해 출

전한 그랜드 슬램 준결승전서 다시 왕빠따나깃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라가 올해 최종 선발전에서 어느 체급으로 뛴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아시안 게임 때 -49kg급에 출전한 강보라가 통합 체급 선수에게 주어지는 체급 선택권으로 -46kg급으로 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자 -46kg급에는 세계 랭킹 상위자로 출전권을 얻어 최종 선발전에 나오는 심재영이 버티고 있다. 2017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자이자 올림픽 랭킹 5위에 올라있는 심재영과 승부

를 겨룰지, 한국 여자 경량급의 히로인인 올림픽 랭킹 2위 김소희와 맞설지가 관건이다. 2011 경주 대회와 2013 푸에블라 대회에서 세계 선수권을 2연패한 주인공이자 2014 인천 아시안 게임과 2016 히우 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김소희가 쟁쟁한 후배들의 추격에 어떻게 맞설지도 관전 포인트다.

여자 -67kg급, -73kg급, +73kg급 황금 분할은 어떻게?

여자 중량급은 오헤리와 이다빈(한국체대)이 어느 체급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우선 오헤리는 세계 랭킹 상위자로 여자 -67kg급과 -73kg급 중 한 체급을 선택할 수 있다. 이다빈은 통합 체급 선택권으로 여자 -73kg급과 +73kg급 중 한 체급을 선택할 수 있다. 오헤리가 -67kg급을 선택한다면 김잔디와 경쟁할 가능성이 크고, -73kg급을 선택한다면 이다빈 또는 명미나(경희대학교)와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이다빈은 -73kg급을 선택한다면 오헤리의 선택에 따라 오헤리 혹은 명미나와 경쟁해야 하고, +73kg급을 선택한다면 안새봄(춘천시청), 김빛나(인천 동구청)와

오헤리가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이다빈(오른쪽)의 2018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경기 모습.

겨루어야 한다.

오헤리와 이다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웃게 되고 누군가는 울게 된다.

누가 기해년(己亥年) 태극 마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2011 세계 선수권대회 때 한국은 ▲ 남자부에서 금 2·은 2개를 획득하며 종합 점수로 매기는 순위에서 2위를 ▲ 여자부에선 금 1·은 2·동 3개로 1위를 각각 했다. 남자는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이란에 내주었고, 여자는 2009 코펜하겐 세계 선수권대회 때 중국에 내주었던 종합 1위를 되찾아 왔다. 2013 푸에블라 대회 때엔 남자(금 3·은 1·동 1개)와 여자(금 3·은 2개) 모두 당당히 정상에 올랐다. 2015 첼랴빈스크 세계 선수권대회 때 한국은 평균 전력 약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 3개를 차지한 여자부가 3연패를 이뤘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남자부에선, 금 1·동 1개를 따내는 데 그쳐 이란·러시아·우즈베키스탄에 밀리며 종합 성적 4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2017 무주 대회에선, 남자(금 3·동 1개)와 여자(금 2·은 1·동 3개)가 4년 만에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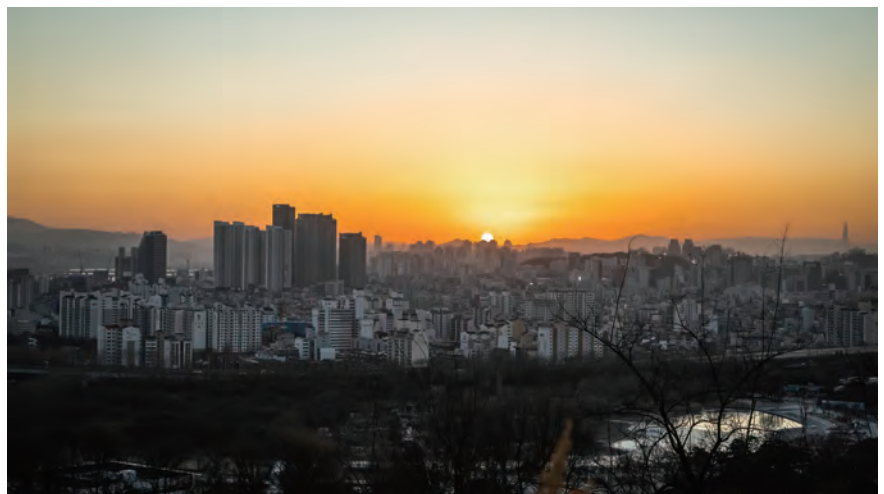
슬아슬하게 동반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당연히 오는 5월에 열릴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동반 우승 2연패를 이룰지가 관심을 모은다. 이와 함께 2020 도쿄 올림픽 출전 티켓을 누가 획득하느냐에도 눈길이 쏠린다. 2월 최종 선발전과 5월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대회가 끝나면, 올림픽 자동 출전권의 향방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 WT 올림픽 랭킹으로 부여하는 5장의 자동 출전권과 그랜드 슬램에 걸린 1장의 자동 출전권을 두고 몇몇 체급에서 2명 이상의 선수가 경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데서, 누가 태극 마크의 영광을 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원칙적으로, 자동 출전권도 대륙 선발전을 통한 출전권도 모두 선수 개인이 아닌 국가 협회에 배정된다. 남자 -58kg급의 경우, 랭킹 1위인 김태훈과 랭킹 5위인 장준이 올림픽 랭킹 자동 출전권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랜드 슬램에 걸린 출전권 역시 현재 장준이 1위, 김태훈이 2위에 각각 올라 있다. 때문에 어느 쪽이든 두 선수 모두 올림픽 자동 출전권을 공유할 전망이다. 남자 -68kg급은 김석배가 올림픽 랭킹 5위 이내로 진입할 경우 이대훈과 선발전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여자 -49kg급은 올림픽 랭킹 2위인 김소희, 5위 심재영, 하민아, 그리고 강보라가 최종 선발전과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대회와 올해 말 그랜드 슬램 결과에 따라 선발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여자 -67kg급 역시 오헤리와 김잔디, 여자 +67kg급은 이다빈과 안새봄이 그렇다.

과연 누가 최종 선발전서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거머쥐며 기해년 태극 마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도쿄 올림픽을 향한 교두보를 점할 영웅은 누가 될 것인가? ●



힘들어도 태권도가 중심에 서야

글 서완석 사진 진재성 KTA 강사 제공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일선 도장 관장들의 가슴에도 붉은 태양이 자리 잡았다. 계획도 세운다. 희망도 품는다. 모두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어둡다. 태권도장을 둘러싼 환경이 더욱 그렇다. 인구 구조적 문제에도 경기(景氣)까지 나빠졌다. 과거 IMF 시절을 회상해 보면 아리다. 경기가 나쁘면, 가장 먼저 도장이 타격을 받았다. 그래도 도장은 견뎌 냈다. 일선 관장들의 피와 땀 덕분이다.

올해도 그들의 노고가 요구된다. 국가도, 협회도 아니다. 바로 태권도 수련 및 교육의 첨병, 도장의 관장·사범들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신학기를 앞둔 지금이 광고 및 홍보의 적기(適期)라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 홍보가 중요하다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의 핵심은 그 어떤 기교가 아닌 태권도 수련 그 자체가 돼야 한다. 태권도 정신, 태권도 발차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더라도, 귀찮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다.

20여년 전 IMF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 올 한 해도 자갈밭을 거침없이 걸어갈 것이라 믿는다. 일선 사범들의 태양과 같은 태권도 사랑을 알기에.

KTA 지상 강좌 지도법<1>

태권도 기본기술 지도법

글·사진 강익필 KTA 강사



강익필 KTA 강사

기본이란?

태권도 기술을 분해했을 때, 더는 나뉘지 않는 동작의 최소 단위를 태권도의 기본이라 정의한다(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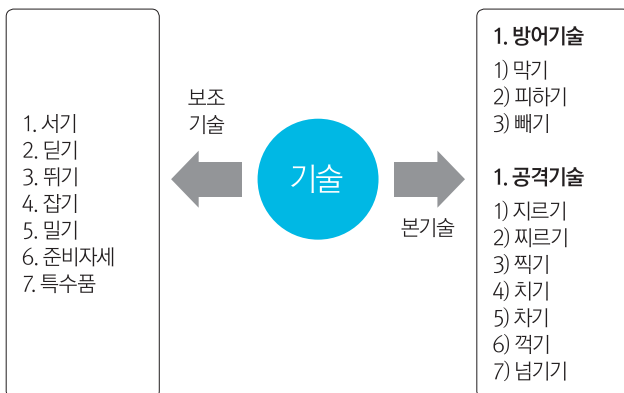
기본 동작이란?

수많은 기본 기술 중에서 그 본이 되는 동작을 선정한 것으로, 열네 가지가 있다(국기원).

기본 동작			
1	기본 준비	8	옆차기
2	주춤새(몸통) 지르기	9	(몸통) 안막기
3	내려막기(아래막기)	10	손날 거들어막기
4	(몸통) 반대지르기	11	돌려차기
5	앞차기	12	올려막기(얼굴막기)
6	(몸통) 바깥막기	13	손날 안치기
7	등주먹 앞치기	14	(몸통) 바로지르기

기술

목적과 수단에 따라 크게 본 기술과 보조 기술로 나눈다. 본 기술은 목적성을 가진 일체의 행위로서 공격과 방어가 해당된다. 본 기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서기와 단기 등을 보조 기술이라 한다.



태권도 기본 기술 지도하기

태권도 기술을 지도할 때 어떤 기술을 선행하여 지도하느냐에 따라 수련자나 지도자가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고 효율적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지도 순서를 제시한다.

태권도 신체 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건 사물에 대한 용어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태권도 수련을 처음 경험하는 초보자는 태권도 전문 용어가 낯설고 생소해 지도자가 말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련자와 지도자가 서로 효율적 교육을 위해서는 태권도 용어를 공유해야 한다. 태권도 용어에는 신체 용어와 기술 용어가 있다.

단계	구분	부위
1단계	전신(급소)	얼굴(인중), 몸통(명치), 아래(단전)
2단계	손	손끝, 손날, 손날등, 바탕손, 손목
3단계	팔목	바깥팔목, 안팔목, 밑팔목, 등팔목
4단계	팔	팔굽
5단계	다리, 발	무릎, 발등, 발끝, 앞축, 뒷축, 뒤꿈치, 정강이, 종아리

신체 용어



서기 지도하기(태극 1장~천권 품새에서 나오는 서기)

서기는 두 발바닥을 지면에 밀착하여 다리의 힘으로 상체를 받쳐 세우는 행위다. 무릎의 굽힘과 폼, 발의 너비, 길이, 중심의 위치에 따라 서기의 모양이 변화된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호흡을 단전에 집중하여 공격과 방어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자세다. 따라서 서기는 몸의 수직, 수평 균형을 맞춰 방어와 공격을 할 때 자세를 안정되게 한다. 동작 완결 시 하단전에 호흡을 집중함으로써 서기(하체)를 견고하게 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상체(몸통)의 유연함을 도모하여 동작의 원활함을 돕는다.



아래와 같이 단계별도 지도한다.

1단계	옆으로 넓혀서기	나란히서기, 왼(오)서기, 주춤서기
2단계	앞으로 넓혀서기	앞서기, 앞굽이, 뒷굽이, 범서기
3단계	모아서기	모아서기, 학다리서기, 꼬아서기(결다리서기, 오금서기)

1단계(옆으로 넓혀서기)

모아서기→ 나란히서기→ 왼서기→ 주춤서기→
 왼서기→ 나란히서기→ 모아서기



주춤서기가 끝나면 역순으로 모아서기까지 하고 1단계를 마무리한다.

2단계

앞서기→ 앞굽이→ 뒷굽이→ 앞굽이→
앞서기→ 범서기→ 모아서기



모아서기에서 앞서기로 시작하여 범서기
다시 모아서기로 2단계를 마무리한다.
사진은 이해를 돕고자 옆면으로 촬영되었지만, 전면으로 내딛기로
시작하여 물러닫기로 하여 모아서기로 마무리한다.

학다리서기→ 꼬아서기→ 모아서기



모아서기에서 학다리서기로
시작하여 꼬아서기로 끝나며 다시 모아
서기로 3단계를 마무리한다.

※ 기본 연습은 오른발을 기준으로
왼발을 움직여 수행하고, 숙달이 되면 왼발을
기준으로 연습한다.
※ 각각의 서기를 정확하게 지도한 후
위와 같이 연결하여 연습한다.
※ 중심이 뒤에 있는 서기는
먼저 중심을 낮춘다.



1
90° 왼발을 연다.
“한 발” 하고 구령을
넣는다.



2
중심을 낮춘다.

3단계



3

“두 발”이라고 구령을 놓으며 한 발 앞으로 내딛는다.



4

뒷굽이하며 완전한 서기 자세를 만든다.



4

옆모습



1

모아서기를 한다.



1

모아서기를 한다.



2

중심을 낮춘다.



2

30° 이내로 열며 “한 발”이라고 구령을 놓는다.



3

“두 발”이라고 구령을 놓으며 한 발 내딛는다.



3

왼발을 올려 날등을 오른발 무릎 안쪽에 가볍게 올려서 붙인다.



4

“범서기”라고 구령을 놓으며 뒤축을 들어 범서기를 완성한다.

KTA 지상강좌 경영법(1)

2019 신학기 광고의 뉴 트렌드 SNS 광고 전략 세우기



진재성 KTA 강사

글 진재성 KTA 강사 사진 KTA DB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 도장마다 신학기 광고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시기다. 일반적으로 태권도장에서 ‘신학기 광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입학식 때 학교 앞에서 전단지, 현수막, 사탕 꾸러미나 사탕 목걸이, 신발주머니, 간단한 생활용품 등을 나누어 주는 도장 홍보가 먼저 연상된다. 그런데 이 홍보물을 받은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다. 투자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나 날지 궁금하다. 남들이 하나까 하지 않으면 째름하고 그런 기분 때문에 신학기 광고를 준비한다면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남들과 무엇인가 다

른 광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우리 도장만의 특별하고 차별화한 광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태권도장의 광고 전략이란?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는 태권도장 선택을 고민하는 소비자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필요에 의해 태권도장을 찾아볼 미래의 잠재 소비자를 ‘정보의 혼란’과 ‘광고의 홍수’ 속에 빠트려 ‘그 태권도장이 그 태권도장’이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태권도장 광고의 목적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소비자들의 긍정적 이미지에 자기 태권도장만의 창의적 메시지 개발을 통해 자기 태권도장을 선택했을 때 소비자의 이익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효과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자신만의 태권도장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광고를 집행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태권도장 광고를 실행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봐야 할 여섯 가지 질문

첫째, 빅 아이디어(Big Idea)가 있는가? 광고를 성공시키는 데 이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이 광고에 빅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강력하며 일관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태권도는 우리 세대가 전 세계에 주는 선물, ‘우리 아이 기를 살려 주는 태권도’ 같은 탁월한 아이디어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테마 라인(Theme Line)이 있는가? 판매 소구점(Selling Point)을 몇 가지 기억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한 테마 라인을 준비해야 한다. 모 침대 브랜드 광고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와 같은 카피는 소비자가 광고의 메시지를 쉽게 기억하도록 한다. 즉, 자기 태권도장만의 차별화한 광고 카피가 필요하다.



예) 모 태권도장의 광고 카피

‘올바른 태권도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0000 태권도장’

‘우리 아이가 하루 한 시간

행복해 하는 0000 태권도장’

셋째, 태권도장과 연관성이 있는가? 소비자

가 태권도의 광고 카피는 기억하지만 태권도

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득도 없이

광고를 증정한 꼴이 된다. 메시지의 주의를

빼 가는 농담, 부적합한 흥미 유발, 제품과 실

질적 연관이 없는 유명 인사의 기용, 그밖에

태권도장과 관련 없는 내용은 전부 없애 버

려야 한다. 어떤 광고에서도 태권도장과 연관

성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우리 도장만의 브랜드 이미지는 준비

되어 있는가? 소비자가 ‘태권도장’ 하면 떠오

르는 이미지 중에는 각 대학의 태권도학과

엠블럼이 대부분이다. 자기 도장만의 차별화

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태권도장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가?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모바일을 통한

구매 비율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은행 거래

부터 영화 예매, 음식 주문, 맛집 검색 등 우

리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선택 수단

이 되는 모바일을 통한 태권도장 광고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신뢰성이 있는가? 많은 태권도장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약속을 하고

있다. 인성교육(자신감·예절·리더십·협동심·

인내 등), 키 성장, 호신 기능, 두뇌 발달, 다이

아트, 체형 교정 등 태권도장 광고가 소비자

에게 너무 많은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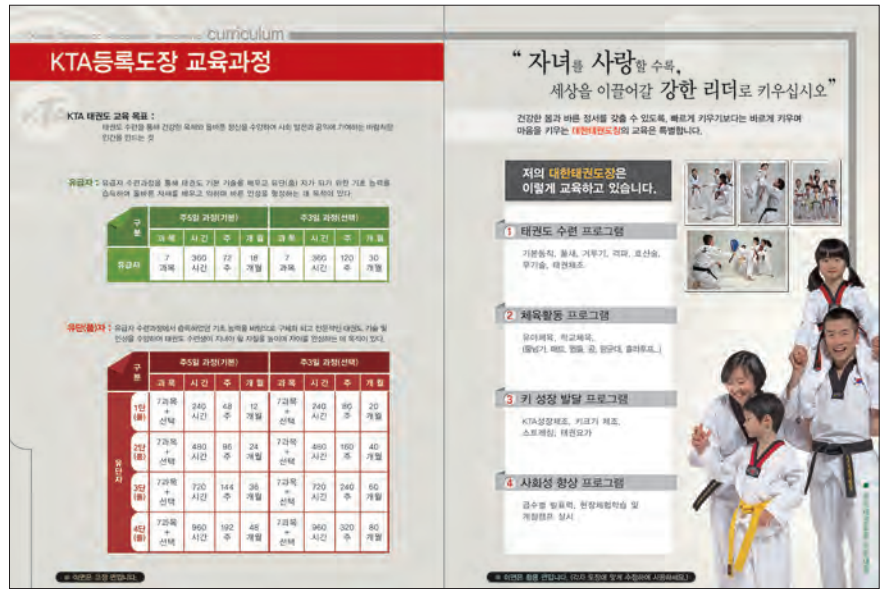
경계해야 한다.

셀링 아이디어가 거짓처럼 들리지는 않는지

되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릇 광고는 전

적으로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다. 지나치게 과한 약속



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작
은 약속이라도 믿을 수 있는 광고라는 인식
을 갖게 하는 게 더 현명하다. 즉, 선택과 집
중이 필요하다.

태권도장의 광고는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 만
들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공한 태권도장
광고 대부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분명
한 질적 우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야 한다. 이는 자기 태권도장의 교육적 가
치,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지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광고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신학기를 대비한, 실천해야 할 SNS 광고 전략

요즘 소비자가 태권도장을 선택하기 위해 알
아보는 방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
다. 대표적으로, 정보의 수집 방법이 모바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다. 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 등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
을 피력한다.

곧, SNS가 이 시대의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도장의
광고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

네이버 포털을 활용한 광고 전략

첫째, 네이버 검색창 이미지를 활용하라. 우
리나라 포털 사이트 중 가장 높은 점유율과
인지도로 자랑하는 네이버 소비자는 알게
모르게 네이버의 검색창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 광고 전단, 현수막, 카드 뉴스, 태권도장
안내문 양식, 홍보물, SNS 글 등에 네이버 검
색창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자기 도장에 대
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할 자기 도장만
의 키워드 선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한
민국태권도협회’를 네이버에서 검색한다면,
소비자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입력하는 것조
차 꺼려할 듯싶다. 그렇다면 알파벳 이니셜
인 ‘KTA’라는 세 글자를 입력하는 건 어떨까?
소비자의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셋째, 요즘 소비자는 도장을 선택하기 전 정
보 수집을 모바일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다.
자. 모바일 네이버 검색창에서 여러분의 도



오면 소개한 분과 소개받아 오는 두 사람에게 작은 성의를 표시하는 등이다.

유튜브를 활용한 광고 전략

요즘 어린 친구들의 새로운 유망 직종 중 유튜브가 상위권에 올랐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요즘 학생들에게 유튜브는 폭발적 힘을 갖고 있다. 수련생은 친구를 따라 도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수련생에게 자기 도장만의 특별한 유튜브 채널을 선물해 보자.

첫째, 유튜브 계정을 개설할 때 도장 상호로 개설한다.

둘째, 동영상 제작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요즘 모바일 어플 중 간단하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어플이 많이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셋째, 유튜브 계정 개설 후 기존 수련생에게 적극 홍보한다.

넷째, 유튜브 계정에 수련생 개개인의 간단한 프로필 영상을 제작해 올린다.

다섯째, 도장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안내 글을 안내 영상으로 제작해 올린다.

여섯째, 도장 수련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린다. 영상은 유튜브라면 사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태권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사진으로 표현해 자기 도장만의 사진 앨범을 만들어 보관한다고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분명 태권도장의 중요 광고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

광고 전략을 적극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

첫째, 지속적이어야 한다.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소비자는 핫한 소식을 기대하며 정보를 검색한다. 그런데 태권도장의 소식이 몇 달 전에 올라온 글이나 영상 사진이라면,

장 상호를 검색한다면 어떤 내용이 보일까? 지금 바로 검색해 보라.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도장이 위치한 지역명과 함께 태권도를 포함해 검색해 보라(예: 대치동 태권도, 붓대마을 태권도). 어떤 내용이 보일지 궁금하다. 태권도장을 선택하려 하는 대다수 소비자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 바로 모바일 검색창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럼 모바일 검색창에서 검색할 때 자기 도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준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이버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라. 태권도장의 일상과 특별한 행사를 사진과 영상 및 글로 작성한다.

1. 영상은 1분 이내로 만들어 올린다.
2. 사진은 5~6장 정도만 올린다.
3. 글의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한다.

4. 글의 내용에 도장 상호, 지역명, 주요 키워드를 적절히 삽입한다.

둘째,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지역 네이버 카페를 적극 활용한다.

셋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가입한다. 네

이버 무료 업체 등록 서비스, 업체 정보 및 비즈니스 관리 기능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https://smartplace.naver.com>).

넷째, 네이버 무료 홈페이지 제작 '모두'(<https://www.modoo.at/home>)를 활용한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것으로, 제작이 어렵지 않고 쉬우며 관리 역시 어렵지 않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태권도장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이 모두 홈페이지는 도장 상담과 등록 과정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모바일 명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수련생 부모가 주변 부모에게 자기 아이가 다니는 도장을 소개하고 싶을 때 모바일 링크만 보내면 소개받는 부모가 쉽게 접근해 도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네이버를 통한 홍보 준비를 마쳤다면 기존 수련생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다.

예를 들면 ▲ 도장 행사를 블로그에 올리고 링크를 부모에게 보내며 작은 이벤트를 열고

▲ 모두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하며 ▲ 소개받아 오는 상담자 가운데 도장 모두 홈페이지를 모바일 바탕 화면에 설치해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하다.
 둘째,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 도장 지도자들은 일명 '슈퍼맨'이라 불린다고 한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SNS 홍보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셋째, 약간의 경제적 투자는 필요하다. 사진과 영상 등이 소비자에게 주는 긍정적 이미지는 매우 크다. 사진의 경우 DSLR로 촬영해 모바일에 올리면 사진이 압축되어 보이게 되므로, 고화질의 선명도와 색채를 자랑할 수 있다. 물론 영상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요즘 모바일의 사진 기능과 영상 기능의 향상으로 DSLR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미지 연출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모바일을 선택할 때는 기왕이면 최신 폰을 권유하고 싶다. 아니면 최소한 노트7 이상의 모바일을 권한다, 이 기종 이전과 이후의 모바일 카메라 기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 태권도장만의 색깔은 무엇일지 숙고한다. 신학기 광고 계획을 하시 전에 반드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지도자의 철학·경험·목표·가치에 따라 각기 다른 광고 전략이

신학기 SNS 광고 전략을 위한 체크 리스트

1. 지도진과 2019년 도장 운영 계획 회의를 진행했는가?
2. 2019년 도장의 슬로건은 준비되어 있는가?
3. SNS(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계정은 개설되어 있는가?
4. 모바일 홈페이지 모두(modoo)는 제작되어 있는가?
5. 모바일에 적합한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는가?
6. 사진 및 영상 제작 어플은 사용할 줄 아는가?
7. SNS 광고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할 대상은 선정했는가?
8.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과 관련된 강좌를 듣거나 책을 읽어 보았는가?
9. 지속적 SNS 광고를 위한 도장의 중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가?
10. SNS 광고 이외에 오프라인 광고도 준비하였는가?

만들어진다. 우선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에게 부족한 것, 자기 도장이 위치한 곳의 시장 조사와 특징 등을 지도진과 함께 회의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은 SWOT 분석 기법을 추천한다. SWOT 분석은 태권도장이나 지도진에 대한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네 가지로 파악하는 마케팅 분석 방법이다. 다섯째,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워라. 자기 도장과 지도진의 강점·약점·기회·위협에 대해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는 그 대안을 세우고 구체적 실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사용해 유명해진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세울길 바란다. KTA 태권도장 지원 밴드에 만다라트 기법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여섯째, 태권도장 광고 전략은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태권도장의 광고 목적은 신규 수련생을 많이 등록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특히 신학기 시즌 신규 수련생 등록은 태권도장의 일 년 농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 하지만 어떤 광고 하나로 수련생이 급격하게 등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요즘 소비자는 도장을 선택할 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 도장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꾸준한 SNS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기 도장의 긍정적 평판을 지역 사회에 만들어 갈 때 신학기에 특히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곱째, 광고 전략의 핵심은 태권도 수련에 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 더욱 가슴 아프다. 태권도 지도자가 땀을 흘리며 태권도를 온 힘을 다해 지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며 태권도장 성장의 바탕이다. 이런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리고 지도자의 올바른 교육관과 가르침을 글로 표현하거나 한 장의 사진 또는 짧은 영상으로 표현해 꾸준히 SNS를 통해 노출해야 한다. 최고의 광고는 진심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㉞



미국 태권도장 탐방을 마치고

글 이종천 KTA 도장사업부 부장 사진 임국 KTA 도장사업부 주임, 진재성 KTA 강사 제공

필자가 미국 태권도장을 처음 직접 경험한 때는 19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는 지금처럼 도장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거나 쉽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지인을 통해 도장의 규모와 도장 커리큘럼을 접하는 정도였다.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조차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세월이 흘러 미국에 있는 여러 주를 다닐 시간이 있었고, 다양한 도장을 방문해 여러 지도자와 깊은 이야기를 할 기회도 있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도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엔 2018년 11월 28일부터 8일간 KTA 도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KTA 강사 등과 함께 미국 2개 주(텍사스-노스 캐롤라이나)의 여러 도장을 방문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미국 태권도장에 대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적어 보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사용하겠지만, 구체적 도장 이름이나 관장 이름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표현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미리 구하고자 한다.

준비 과정

KTA는 2007년부터 도장 지원 사업을 통해 도장 활성화에 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17개 시도의 임원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도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양희석 강원도협회 전무이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 또한 해외 태권도장 탐방을 통해 한국 도장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장 탐방 지역이 왜 미국인가? 한국 태권도는 전 세계의 수많은 무술류 중 지구촌 가족이 가장 많이 수련하고 있는 무술 스포츠 종목이며, 도장은 그 무술을 수련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통한 비즈니스 또한 아주 독특한 성공 모형을 지니고 있고, 그 대표적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아직도 미국 도장이 한국 도장에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미국을 선택했다. 다시 정리하면, 무술이 대중화하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 대표적 국가의 도장이 미국 도장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필자가 경험한 미국 도장이 처음 접한 시점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한국 현실과 너무도 흡사한 부분이 많을뿐더러 그 부분이 미래를 걱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한국 도장과 미국 도장의 경영 모습이나 교육 환경 시스템의 간격이 많이 좁혀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국 도장의 질적 성장이 있었음을 상대적으로 느낀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도장 이야기를 해 보자.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일행이 처음 도착한 곳은 텍사스주에 있는 도장이었다. 이 도장의 특징은 태권도와 체조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큰 규모의 건물이었다. 한쪽은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하



고 한쪽에서는 여러 체육 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체육관이었다. 특히 체조 부분에서는 주 대표등이 배출되었고, 실제로 전문가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설을 설명한 관장의 말에 의하면, 체조는 단체 교습에 있어 인원의 한계를 갖는다고 한다. 태권도처럼 한두 명의 지도자가 수십 명의 수련생을 지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수련 모습과 시설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몇 가지가 마음에 남았다. 한국에도 저 정도 규모의 태권도장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과 저 많은 종목이 태권도를 잘 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이기심이 깃든 생각 등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로 방문한 도장은 한국에서는 낯설지만 전문 도장이었다. '태권도'라는 플랫폼 안에서 '겨루기'라는 특정 영역을 가지고 만든 겨루기 전문 도장이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특정 부분 전문 도장들(여아 전문 도장, 품새 전문 도장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도장을 이끌고 있는 차상훈 관장에게 도장 교육과 시설에 대해 들으며 놀랐던 점은 그분의 열정과 운영 시스템이다. 도장 교육 특징은 한국 도장처럼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기술 요소를 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겨루기만을 가르치는 특성화된 전문 도장으로 미국 대표선수를 3명이나 배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중고등학교 체육관 크기만 한 도장 규모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차 관장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 그가 도장으로 성공한 지도자들의 공통분모 중 두 가지를 가졌다는 것이다. 첫째는 열정이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었다. "수련비(교육비)는 내 교육의 가치다. 옆 도장 가치가 내 가치와 같을 수는 없다"라는 짧은 철학이 필자를 돌아보게 했다.

물론 도장이나 교육 시스템이 한국과 미국 사이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특히 겨루기를 보면 한국에선 학교와 엘리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미국에선 도장 중심으로 선수가 양성되고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지금 겨루기가 태권도라는 플랫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가이다. 겨루기는 태권도 필수 구성 요소다.

그러나 현재 도장 교육에서 겨루기는 얼마나 수련되고 있는가? 지도자들은 겨루기 지도를 기피한다. 수련생의 반응 때문일 듯싶다. 제도권은 지도자에게 겨루기를 지도해야 한다는 사명감만을 요구할 수도 없다. 겨루기란 겨룸의 형태(방식)를 제도(규칙)라는 틀을 이용해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도장, 아니 태권도를 위해서라도 겨루기라는 영역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의 방식은 올림픽 또는 경기를 위해선 최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겨루기를 위한 최적화된 방식이지 도장 교육(겨루기)을 위한 최적의 방식인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겨루기는 도장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방문한 곳은 젊은 사범이 운영하는 도장이었다. 한국으로 말하면 '신규 도장'이다. 지도자에게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젊은 사범 그리고 개관을 준비하는 젊은 지도자들이 떠올랐다. 미국 도장이 한국 도장보다 아직



은 한 걸음 앞서 있음을 느끼면서 연상된 모습이었다. 미국 지도자들은 도장 개관을 준비할 때 수련생의 수는 얼마 정도가 될지, 수입의 정도는 얼마가 될지 등을 고려하여 도장의 규모를 정한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경영과 교육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다. 이 도장 지도자는 도장 개설을 위해 나름 많은 시간을 준비했다고 한다.

자동차 외형은 엔진 마력 수에 비례해야 한다. 그래야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수 있다. 경영자로서 도장의 규모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중 하나가 '기부' 문화다. 물론 이 부분은 도장 문화의 차이라기보다는 국가별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요즘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부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일행이 찾은 도장에서 이루어진 기부 행사는 도장에서 만든 티켓을 수련생과 그 가족이 친구를 비롯한 주변에 판매하고 그 판매금 전액을 병원을 통해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당일에는 기부한 금액을 격파물로 환산해서 수련생은 물론 가족이 참여하는 격파의 시간을 가졌다.





기부금 수혜를 받은 자가 나와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다.

물론 도장 처지에서는 공간을 찾은 많은 사람에게 도장을 홍보할 기회다. 시범단이 시범을 보이고 지도자는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수련 형태를 보여 줌으로써, 도장 이미지를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수련생에게는 소속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모든 일을 도장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심을 바탕으로 단순화하고 행사 가치에 집중해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비슷한 행사를 가 보면 지나친 도장 홍보, 모든 수련생의 노출, 지도자 1인의 진행 등으로 때로는 취지가 희석되는 일



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한 도장은 부모, 이웃, 수련생 중심의 행사를 옅으로써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유단자 수련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유단자가 어린 학년이 높은 그 기준을 띠에 두고 소임과 책임의 권한을 줬다. 한국에선, 이 부분을 보조 사범 또는 유단자 리더십 프로그램 형식을 빌려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도장은 수련생 감소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일부 도장에서 유단자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필자가 본 미국 도장들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유단자 활용이었다.

다만 유단자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관장)의 마음과 가치 부여다. 유단자를 활용하려면 지도자가 제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가치와 의미를 잊으면 안 된다. 그 가치를 잊으면 '제자 이용'이 된다. 가치가 존중될 때 '인스트럭터'다.

마지막 이야기

이 밖에도 여러 도장을 둘러봤다. 수련생이 많은 도장, 수련생이 적은 도장, 시설이 좋은 도장, 위치가 좋은 도장, 여성 관장이 있는 도장(한국에선 특별하지 않지만 미국에선 한국인 여성이기에) 등 다양한 도장을 살펴봤다. 이 모든 도장이 지닌 장점의 집합체가 바로 이 도장이지 않을까 싶다.

필자가 듣기로는 일곱 곳의 도장에서 40여명의 스태프를 거느리고 있는 도장, 부러움의 대상인 도장이다. 관장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인 도장에서 사범 생활을 거쳐 성공한 전형적인 지도 사범 경우다. 참고로 한국에선 이제라도 미국 도장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 이분들 세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고민되지만, 이 글에선 한국 도장에



주는 메시지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필자는 이 도장을 세 번째 방문했다. 이번엔 받은 느낌은 양적 성장만이 아닌 성숙함이었다. 도장과 지도자에 대해 여러 평가와 개인적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장이 태권도를 보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든다. 보석에 굳이 비교한다면, 예전엔 태권도를 진주쯤으로 평가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엔 다이아몬드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형식이 아닌 삶과 태도에서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종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함'이 느껴졌다. 왜일까? 무엇이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일까? 커피만을 팔지 않고 문화를 판다는 모 커피 전문점처럼, 기술 특허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한다는 기업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네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련생과 부모를 존중한다고 한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 즉 태권도를 통해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일과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다고 했다. 자신이 생각한 태권도를 통해 제자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때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몇 명이 입관했는가보다는 오늘 단 한 명의 제자라도 지도를 통해 변화되고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는 그의 말이 가슴 속 깊숙이 울림을 줬다.

50분 수련 중 태권도가 100%였다. 땀이 있고, 사범이 있고, 규칙이 있었던 도장이었다. 그 도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김우섭 관장의 모습에는 행복과 담담함이 있었다. 그런 분에게 “이 도장 수련생이 몇 명입니까?”를 묻는다면 필자의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글을 끝맺으며

한국 지도자는 바쁘고 힘들다. 매일 동일하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많이 지쳐 있는 듯하다. 어린수련생과 학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지도자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 해

야 할 일, 준비할 일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 속에 도장 관장은 힘들다. 경영 환경 악화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무엇이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구원해 줄 것인가? 답은 제자들이 아닌가! 심사장에서, 당당하게 “저기 저 아이가 내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러한 자부심과 가치가 쌓여 간다면, 오늘 이 힘든 일들이 경험으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며칠 전 후배와 식사를 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했으니 친구다. 그가 말했다 “선배님, 이제 가치를 지키며 산다는 게 힘듭니다.” 많은 지도자를 만난다. 후배를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성공의 요인은 다양하나, 핵심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련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답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준비할 때다. ☺



도장 탐방<6> 진천 만승 태권도장

“다 함께 태권도! 성인부 활성화, 어렵지 않다”

진천=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5대 기간 도장 중 하나인 청도관(靑濤館)의 관훈을 기본으로, 수련과 단련을 통해 ‘땀 흘리는 도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2015년, 전 관장은 지인의 권유로 그 해 12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주최한 제9회 전국 태권도장 경영 및 지도법 경진대회에 참가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누구



전병철 관장이 여성 수련생들에게 품세를 가르치고 있다.

세밀 한파가 몰아친 2018년 12월 27일 밤 8시 52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 자리잡은 만승 태권도장(관장 전병철)에 여성이 한 명 두 명 잇달아 들어왔다.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로 뚝 떨어져 성인부 수련생이 얼마나 올지 알 수 없었다.

이윽고 밤 9시가 되자, 예정대로 성인부 태권도 수련이 시작됐다. 20여 명의 성인 여성과 청소년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풀었다.

전병철 관장은 유머를 섞어 가며 명랑하게 태권도를 지도했고, 수련생은 밝은 표정으로 도장 곳곳을 누볐다.

‘다 함께 성인부’로 공감 형성

만승 태권도장은 2002년 10월 개관했다. 이곳에서, 전 관장은 겨루기 선수 생활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육성했다. 태권도

도 예상하지 못한 ‘깜작 수상’이었다.

이날 1,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 관장은 ‘새로운 시작! 다 함께 성인부’라는 주제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성인 태권도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신만의 지도 철학을 재치 있게 설명해 방청객의 공감을 자아냈다.

“도장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태권도장에서 성인부를 하자’는 거였다. 왜 성인부

를 해야 하나면 유소년만 태권도를 하면 머
 잦아 많은 도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다. 아들도 꿈이 태권도장 관장이다. 아들이
 태권도장을 할 수 있으려면, 성인부가 있어
 야 도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
 으로 후배들과 제자들이 태권도장을 하게 될
 텐데, 직접 시도한 방식으로 성인부를 한번

확한 지도 철학과 집념이 없으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현실에서, 전 관장은 성
 인부 활성화 방안과 중요성을 일깨우며 새로
 게 성인부를 개척하자고 부르짖었다.

성인부 태권도를 시작한 계기

충북과 기획해 13개 지역으로 확산됐다.
 전 관장은 “몇 년 전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
 아’ 프로그램을 하면서 색다른 점을 보고 느
 겼다. ‘태권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점을 느껴 공부하게 되면서,
 성인부를 하는 것이 나에게 맞다는 걸 알
 았다.”라고 말했다.



성인 여성들이 실전 주먹 기술을 배우고 있다.

해보자고 발표했다.”
 태권도 수련층 확대와 성인부 활성화는 태권
 도계의 숙원이다. 10세 전후 초등학생이 전
 체 수련생의 90%를 웃도는 현실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품지 않으면 태권도의 풀뿌리인
 태권도장의 추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부 태권도 활성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선 지도자라면 누구나 개척하고
 싶어 하는 블루 오션(Blue Ocean)이지만, 명

만승 태권도장도 여느 도장처럼 어린이 위주
 로 태권도를 지도했다. 기존에 성인부가 있긴
 했어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성인부를
 접었다. 그러던 중 전 관장은 건강 관리 프
 그램인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를 시작하
 면서 다시 성인부를 시작했다.
 ‘다이어트 코리아’는 참가자가 식단 조절과 태
 권도 수련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건강 운
 동 관리 프로그램으로, 2012년 KTA가 MBC

만승 태권도장이 위치한 광혜원은 인구가 약
 1만 1,000명인 도농(都農)형 마을이다. 이곳
 에서 태권도 성인부를 활성화하는 건 신념과
 철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전 관장은 “태권
 도를 수련하는 성인 인원 수를 따지면 성공
 한 성인부 도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태권도를 꾸준히 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고
 건강해지는 성인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라고 밝혔다.

성인부 활성화에 묻고 답하다

‘성인부 전도사’인 전 관장에게 물었다.

왜 성인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저출산 풍조로 어린이 수련생이 줄고 있어 성인층을 태권도장으로 끌어들여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도장에는 성인 프로그램이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한다. 성인부를 만들면서 성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지도자로서 가장 좋았다. 성인부를 만들라고 적극 권유하는 이유는 성인과 태권도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춰야 유아 놀이 체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럼 태권도장에서 왜 성인부를 선뜻 못한다고 보는가?

“지도자 대부분이 자신감이 없어서다. 대부분 성인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도장에서 성인부를 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마냥 겁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부 프로그램이 꼭 완성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꽤 있다. 지도자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걸 토대로 성인부를 시작해도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나 같은 경우도 겨루기 선수들을 육성했기 때문에 성인에게 겨루기만 계속 고집했으면 실패했는지 싶다. 발차기를 응용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성인에게 가르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연구해 성인을 지도하고 있다.”

어떤 것을 응용해서 가르치는지?

“하체 강화의 기본이 되는 주춧서기와 스쿼트(Squat)의 접목이 핵심 포인트다. 스쿼트를 어떻게 주춧서기로 변환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태권도 동작으로 흥미롭게 풀어가는 데서 해법을 찾았다. 런지(Lunge)라고 하는 하체 운동을 앞굽이로 바꿔 보고, 사이드 런지를 뒷굽이로 바꿔 봤다. 신체 근육의 하체 운동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더라. 이런 운동을 태권도로 변환해서 하니가 건강해지

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물론 근육과 근력을 강화하려면 헬스클럽에 가는 것이 좋다. 그렇긴 해도 맨손과 맨발로 하는 하체 운동을 적당한 선에서 태권도로 변형해서 했기 때문에 성인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태권도를 하는 성인 대부분이 여성이다.

체중 감량이 중요한가?

“여성에게 태권도를 수련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말은 한다. 그러나 우리 도장 여성 수련생들은 체중 감량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부분 여성은 ‘즐기면서 건강해지려고 태권도를 한다.’고 얘기한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성인부를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 태권도를 한 성인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하면 태권도를 더는 하지 않으려 한다.”

성인 여성이 태권도에 매력을 느끼고

계속 수련하는 까닭은 뭐라보 보나?

“성인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떤 ‘거

여성 수련생들이 즐겁게 태권도 발차기를 배우고 있다.



리(내용이 될 만한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폼새'였다. 폼새에 매력을 느껴서 열심히 수련하는 여성이 예상 밖으로 많다.”

**성인이 수련할 때 경쾌한 음악을
들어 놓고 유쾌하게 하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내가 유쾌한 수련 분위기를 좋아한다. 선배들한테서 질타받을 수도 있겠지만, 도장은 정적이고 딱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소리도 지르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태권도를 하는 한 시간 정도는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입한 방식이다.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표정은 항상 밝아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즐겁게 태권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본다.”

성인부를 하다 보면 고충이 있을 텐데…

“좀 힘들어서 대상포진을 두 번이나 앓았다. 수련생 간의 갈등과 이성 문제로 마음고생

도 했다. 물론 여성 수련생이 많다 보니 시기와 질투도 있어서 때를 지어 그만두는 고비를 맞기도 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믿고 수련해 주는 분들이 많은 힘이 되고 있다.”

**성인부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지도자들에게 조언해 줬으면 한다.**

“내가 운영하는 성인부 방식이 성공 모델이 아닐 수도 있다. 태권도를 하는 성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만 나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어린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한 시간 한 타임’을 성인부로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데서 찾는다. 수련 시간에 한 시간 정도 성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KTA가 시행하는 성인 활성화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많은 걸 배웠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 성인부를 나만의 색깔로 운영하고 있다. 성인부를 만들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성인 활성화 교육을 꼭 받아 보길 권한다.”

**3년 넘게 태권도를 수련하는 성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지?**

“내년에는 2명이 3단에 응심해서 곧 흰띠부터 4단까지 성인 수련생이 생긴다. 앞으로도 유아부터 성인까지 골고루 태권도를 수련하는 도장이 되고 싶다.”

**“태권도가 좋다” …
성인부 수련생, 한목소리**

만승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성인들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재미있게 태권도를 하면서 삶의 활력도 얻고 건강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수련생 이민주 씨(남·30)는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고 재미도 없어 다른 운동을 찾다가 태권도를 하게 됐는데 재미있다. 체중이 늘어나면서 자주 허리가 아팠는데, 요통이 사라졌다. 태권도를 하면서 담배를 끊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5일 도장에 나와서 태권도를 한다.”라고 말했다.

정인숙 씨(여·42)는 4년 전 지인의 권유로 태권도를 하게 됐다. “처음엔 ‘태권도가 뭘까?’ 하는 호기심에서 태권도를 하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 3명의 아들과 딸들도 함께 태권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권도를 해 건강해지고 싶다.”

박소희 씨(여·24)는 9개월 전에 지인과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태권도를 하기 전에는 90kg이 될 정도로 과체중이었지만, 태권도를 꾸준히 수련하면서 20kg 감량을 했다. “체중이 감량되니까, 활력과 자심감이 생겼다. 여러 사람과 함께 태권도를 하면서 도복이 스치는 소리도 좋다. 무엇보다도 폼새 매력에 빠졌다(웃음).”

전병철 만승 태권도장 관장.



이봉 국기원 연구소장

“위기의 태권도, 새로운 거버넌스로 극복하자”

글 서완석 사진 국기원 제공

21세기 태권도 비전은 ‘인류 문화유산’...
태권도 레거시 위원회, 거버넌스 핵심

여전히 태권도는 위기다.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제 무대에서는 가라테와 우슈 등의 도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오는 6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리는 제2회 유러피언대회에 태권도가 빠지고 가라테가 들어갔다. 따라서 향후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온전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무도 태권도 영역을 지켜 왔던 국내 1만 2,000여 개 도장도 저출산에다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압축적 고도 성장’에 길들여졌던 태권도계는 이렇듯 그 어느 때보다 암담한 시절을 견디고 있다.

스포츠 태권도가 재미없어지고 도장 수련생이 줄어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푸는 열쇠는 없을까? 경기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고 수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대증적(對症的)

거버넌스(Governance)란?

기존 정부의 독점적·배타적·전통적 행정에서 탈피해 정부가 시장(기업)과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통치 과정을 말한다. ‘사회적 소통’과 ‘협치’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태권도를 예를 들면 특정 조직단체의 힘만으로 합목적적 행정 목표 달성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새로운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처방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태권도를 위기에서 건질 묘책은 무엇일까. '태권도계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이봉 국기원 연구소장(67)을 만나 수렁에 빠진 태권도를 건져 낼 비책이 있는지 들어 봤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태권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태권도계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없이는 이 난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터뷰가 진행된 지난해 12월 하순의 국기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언덕바지에 자리 잡고 있음을 감안해도 을씨년스럽고 차가웠다. 원장과 사무총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된 직후였기 때문이다. 국기원 행정의 중추가 무너진 초유의 사건은 위기의 태권도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바람 잘 날 없는 태권도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1세대 원로들이 타계한 뒤, 국기원도 초창기 권위를 잃어”

태권도계가 위기라는데 어디서부터 해결책을 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위기 현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태권도의 위기, 무도 태권도의 위기, 그리고 거버넌스의 위기, 세 가지로 말이죠. 흔히 겨루기 중심의 스포츠 태권도의 위기를 가장 많이 우려합니다. 전자호구 사용 후 태권도가 재미없다, 가라테에 밀려 올림픽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무도 태권도의 위기는 도장의 위기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또한 위기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태권도의 위기 극복은 거버넌스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선 두 가지 위기를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거버넌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태권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거버넌스의 위기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태권도계는 정부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가 재원을 투입하고,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KTA),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등 4개 단체가 독립적으로 태권도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완벽히 구분하기란 힘듭니다. 최근 들어 이들 단체는 상호 중복된 사업과 역할로 인해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버넌스의 위기가 일어난 배경이 궁금합니다.

“1971년 KTA 수장에 취임한 김운용 회장은 맨 먼저 태권도의 4대 비전을 제시합니다. 즉, 국기 선양의 기수, 호국의 기수, 국기화, 세계화가 그것입니다. 김 회장은 태권도의 미래를 4대 비전으로 보여 준 뒤 후속 전략으

로 1972년 중앙도장(국기원) 건립,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당시 WTF)을 창설하며 세계화를 이끕니다. 결국 가라테를 비롯한 유사 종목을 제치고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진입했지요. 김 회장은 정통 태권도인이 아니었지만 이 같은 발전 전략으로 태권도 원로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원로들도 김 회장의 리더십에 공감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단증을 통일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관 통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김 회장과 1세대 원로들이 거의 다 돌아가신 지금, 리더십의 부재가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국기원 단증의 권위도 예전과 다릅니다. 과거 김 회장이 건재했을 때엔 KTA, WT, 국기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태권도 행정이 일사불란했습니다. 그만큼 권위도 있었지요. 일치된 그런 행정력을 바탕으로 비록 태권도가 후발 주자였어도 가라테를 제치고 올림픽에 들어갔던 것 아니겠어요?”





“21세기 디지털 환경이 지배하는, 바뀐 세상에 새로운 태권도 가치 체계 찾아야”

새로운 리더십 혹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태권도를 둘러싼 환경도 과거와 다르지요. 김 회장을 비롯한 원로들도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태권도는 그동안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질적 개혁은 이뤘는지 자문(自問)해 봐야 합니다. 20세기 태권도는 세계화를 목표로 했으나, 21세기는 다른 가치관을 전개해야 합니다. 아날로그식 관점의 20세기 세계관과 달리 21세기는 디지털 기반의 세계이므로 태권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미지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데, 태권도는 아직도 거기에 걸맞은 가치 체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태권도인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위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태권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태권도인이 새로운 거버넌

스를 희구(希求)함은 당연한 것이지요.”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태권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죠.

“저는 2000년대 초 태권도원을 조성할 당시부터 ‘태권도는 21세기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한국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새 지식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세상에서 태권도도 거기에 맞춘 서비스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건 바로 거버넌스에 관한 것입니다. 새 시대에는 하향식 의사 결정을 쌍방향 소통 체제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봉사하는 체제로, 특정한 중심 조직이 아닌 시스템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장께서 과거 주장하신 태권도 발전 방안엔 ‘e태권도가 있더군요. 무순 전자게임 같은 건가요.

“태권도가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일선

도장 관장의 불안 심리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태권도와 관련된 기술·지식 체계를 새롭게 하자는 뜻입니다. 전자게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처음 태권도를 전파하던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 진보를 해 왔습니다. 이 같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태권도 교육, 수련, 전달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으로, e태권도를 주장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영화에 나온 ‘아바타’처럼 ‘아바타 사범’을 예로 들어 봅시다.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기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신기술을 도장과 태권도로 끌어올 정도로, 태권도가 기술 혁신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태권도 훈련의 과학화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발차기를 하라고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부학적 신체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야 한다고 가르쳐야 수련생이 따라오는 시대입니다. e태권도 시대에는 사범도 새로운 지식을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은 24시간 일하는 시대입니다. 아무 때고 운동할 수 있도록 도장도 개방될 필요가 있겠죠. 전통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나,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술 혁신 시대에 뒤처지지 말자는 게 e태권도의 요체입니다.”

“오로지 국기원과 태권도가 거버넌스의 중심이 돼야”

주장하신 새로운 거버넌스에는 권위와 사업 행정의 분리라는 말이 있더군요.

“태권도 초창기에는 무협지처럼 신비주의 같은 게 남아 있어서 관장 본인 이름으로 단증을 발행해도 무관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운동이 과학적으로 분석돼 그런 신비주의가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 허구라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위는 관장의 권위에 기반했으나, 오늘날의 권위는 태권도 수련생

이 자발적으로 국기원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원로가 사라진 지금엔 ‘국기원 경영자’가 아닌 ‘태권도 인격자’가 인정하는 단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불교의 행정 책임자인 총무원장이 아닌 종정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의 단증 같은 것입니다. 국기원 단증은 지금처럼 국기원장이 아닌 명망 높은 9단이 발급하는 형태로 바뀌고, 사업과 행정은 국기원장이 맡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한국기원에서 얻었다고 했다. 아마추어 2단인 그가 1979년 한국기원에서 받은 단증엔 조남철·김인·하찬석·조훈현·서봉수 등 당시 기계(棋界)를 주름잡던 9단들의 연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이 소장계선 태권도 레거시 위원회 제안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태권도 레거시 위원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태권도를 위기에서 구할 전략적 장치로 구상한 게 사실입니다. 21세기 인류의 문화유산인 태권도의 가치를 보전하고 이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태권도 레거시, 즉 유산을 이어 가는 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위원장은 국기원의 명예 이사장이자 김운용 전 IOC 위원과 관계가 남달랐던 세르미앙 응 IOC 위원(싱가포르)을 추대했습니다. 그는 IOC 집행위원으로 IOC 내 권세가 막강합니다. 때마침 IOC도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분위기입니다.

과거 문체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태권도 4개 단체장이 모여 MOU(양해 각서)를 맺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요. 이번에 출범한 레거시 위원회는 태권도 유산 관리라는 공동 과제를 고민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태권도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지 특정한 이익을 놓고 보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레거시 위원회 출범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지 항간에 떠도는 음모론 따위를 확대 재생산해서는 태권도 위기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혀 둡니다.”

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거버넌스로 풀어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제가 국기원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국기원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기원은 KTA의 중앙도장으로 출발했지만, 21세기에는 세계의 중앙도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태권도의 철학·역사·이념의 중심으로 국기원의 정체성을 살리면, 스포츠 단체인 WT나 KTA는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도장은 국기원의 가치와 이론과 태권도 정신을 전파하는 것이 될 것이고, 진흥재단은 정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책 사업에 몰두하면 될 것입니다. 각 단체의 미션이 결정되

그래도 갈등은 존재하고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단체가 알고 있는 미션이란 서로 중첩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체가 태권도 권력을 나누는 논리로 접근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깁니다. 태권도를 중심에 놓고 봐야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면 각자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갈등과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출범한 태권도 레거시 위원회가 새로운 거버넌스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봉 연구소장은 누구?

사범, 심판, 지도자, 행정가, 교수를 역임하며 평생 태권도와 함께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1977년 삼성화재에 입사했다. 1979년 서울 관악구 방배동(현 서초구)에서 도장을 운영할 당시, 5단 심사 때 쓴 태권도 관련 논문이 인연이 돼 국기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 KTA 홍보과장으로 태권도 행정을 시작해 1996년까지 KTA 기획부장과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 신설된 경원대(현 가천대) 태권도학과 교수로 임용돼 학생처장, 체육대학원장, 평생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은 뒤 2017년 2월 정년 퇴임했다. 태권도 경영, 행정, 정책이 그의 주된 연구 분야다. 태권도원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공헌했으며,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으로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품새가 정식 종목으로 추가되는 데 힘썼다.





영남루를 노래한
시인의 노래보다
가파른 계단에 담긴
작은 배려가 더 아름다워

밀양=글·사진 서완석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로 시작되는 밀양 아리랑의 고장 경남 밀양시. 물 맑고 자연 경관이 뛰어난 데다 대표적인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구국의 승장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선 사명대사의 유적지와 생가가 있다.

또 하나. 밀양 최고의 야경을 자랑하는 영남루. 조선 후기 누각으로 보물 147호로 지정돼 있다. 밀양강 정취와 잘 어울린 영남루는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한국의 3대 누각으로 꼽힌다. 후자는 남원의 광한루를 엮어 4대 누각이라 부른다고 한다. 강 언덕에 우뚝 솟은 영남루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이다.

고려 공민왕 때 조성된 영남루에는 수많은 시인 묵객이 다녀가면서 흔적을 남겼다. 조선 초 문신인 권근의 시다.

백 척 높은 누대 중천에 닿은 듯(高樓百尺控長天)
온갖 풍경은 책상 앞에 널렸구나(風景森羅案前)
내 가까우니 물소리 난간 밖에 흐르고(川近水聲流極外)
구름 걷히니 산의 푸름은 처마 끝에 들어오네(雲開山翠滴邊)
천이랑 밭두둑에는 비 맞은 벼요(千畦壟畝禾經雨)
십리 마을 나무는 연기를 내뿜네(十里閭閻樹帶煙)
필마로 귀양길에 경치 좋은데 지나니(匹馬南遷過勝地)
올라와 바라보며 손님자리에 깔만하네(可堪登眺賓筵)

하지만 그동안 다녀간 시인 묵객의 발자취보다 영남루로 오르는 계단이 먼저 감동을 준다. 계단은 경사도 40도가 훌쩍 넘어 보인다. 나이드 이들이 올라가기엔 그저 힘들어 보인다. 특이하게도 지그재그형 경사로와 계단이 함께 설계돼 있다.

다리가 튼튼한 이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면 된다. 그러나 평소 무릎이 시큰거리는 이는 경사로를 이용해 좌우로 걸어가면 훨씬 쉽다. 휠체어도 유모차도 끌 수 있다. 누구의 작품인지 창의성이 돋보인다. 가파른 계단에 힘들어 할,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가 영남루보다 아름답다.

패배의 쓰라림을 올림픽 등정의 디딤돌로 삼아야

글 최규섭 사진 양택진(=우시·無錫)



“영원한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다. 적어도 스포츠계에서만큼은. 심리학에서 통용되는 항상성(恒常性)일망정, 체육학에서는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패배를 모르는 절대 강자는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긴박감을 자아내는 전장(戰場)이 스포츠 세계다.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강약의 차가 심해도 선불리 승패를 점치기 힘든 까닭이다. 아주 낮은 구도다. 언제 봤는지 기억의 저편

에서 가물가물할 뿐이다. ‘과연 본 적이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있다. 늘 가운데에 자리 하던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데 오른쪽에 서 있다. 현실이 아닌, 누구의 꿈을 엿본 듯하기도 하다. 눈을 의심해 본다. 그렇지만... 맞다. 눈을 수차례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장면은 정녕 바뀔 줄 모른다. 이대훈(26·대전광역시체육회·사진 뒷줄 오른쪽)이 누군가? 태권도 천하를 평정한 당대

의 품의 월드 스타다. ‘패배’란 단어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워 버린 ‘무적의 사나이’다. 그가 남자 -68kg급에서 쌓은 철옹성엔, 그 누구도 감히 범접조차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나마 마음을 다잡고 도전장을 내민 자들도 번번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같은 꼴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금성(金城) 같던 그의 아성이 무너졌다. 구랍 우시(無錫) 타이후(太湖) 인터내셔널



널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2018 월드 그랜드
 슬램 -68kg급 준결승전이 펼쳐진 15일은 스포츠계의 진리를 다시금 실감케 한 날이었다. 2회전 종료 2초 전, 그는 브래들리 신든(영국·왼쪽)에게 통한의 왼발 머리 내려차기를 내주고 분루를 삼켜야 했다. 라운드 스코어 0:2, 실로 뜻밖의 좌초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중국이었다. 2016년 12월(월드 그랑프리 파이널)부터 2017년(세

계 선수권, 월드 그랑프리 12차 및 파이널)→ 2018년(2017 월드 그랜드 슬램, 아시안 게임, 월드 그랑프리 13:4차 및 파이널)까지 모습을 나타낸 열한 번의 무대에서, 무적의 주인공 역을 화려하게 연기했던 그가 아니었던가. 잘 짜인 듯했던 연극 '연승 가도'는 일단 막을 내렸다.
 "패배는 성장의 밑거름이다." 이 또한 진리다. 패자의 쓰라림을 알 때 진정한 승자로 정상

에 우뚝 설 수 있다. 이번 대회서 우승한 자오샤이(중국·가운데)가 그랬다. 지난 대회 결승서, 자오샤이는 그에게 14:53으로 참패한 바 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이 보약이 됐음이 이번에 입증됐다. 이대훈에게 남겨진 마지막 등정은 올림픽 금 고지다. 그렇다면 소중히 간직해야 할 패배다.

중국 리장과 둔황에 울려 퍼진 태권도 함성

리장(麗江)·둔황(敦煌)=글·사진 김중수 KTA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 트레이너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국가대표 시범 공연단의 화려한 발차기가 중국인들의 넋을 빼놓았다.

지난해 12월 10일 중국 윈난(雲南)성 리장(麗江)시 원링 극장에서 열린 '니하오-리장 한·중 문화 교류' 공연 행사장. 우리 문화를 중국에 소개하고 한·중 국민 간 우호를 다지

기 위한 이 행사는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중국 소수 민족인 나시족의 전통 무용 공연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 행사는 한국을 대표한 KTA 시범단의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시범이 분위기를 달궜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무용단이 부채춤·장구춤·소고춤을 함께 선보였다.

이에 앞서, KTA 시범단은 리장 바이사완(白沙完) 소학교를 찾아 전교생 350명에게 태권도 시범을 펼치고 태권도를 직접 지도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KTA 시범단의 현란한 태권도 발차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리장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서 깊은 도시다. 행사를 후원한 대한항공은 도서 3,000여 권과 교육용 기기를 학교에 기증했다. 행사는 리장에 이어 12월 13일과 14일 중국 실�크로드의 중추 도시자 세계 문화유산이 산재한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시 둔황(敦煌)에서도 열렸다. 둔황 대극원에서 열린 행

사에서도, KTA 시범단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이어 중국 전통 악기 연주 및 전통무 공연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무용, 너버벌 판타스틱 공연 등 한-중 문화가 한자리에서 어우러졌다. KTA 시범단을 인솔한 최창신 KTA 회장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선두 주자로서, 태권도 시범단의 소임이 점점 막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행사를 주관한 한재혁 주중 한국문화원 원장은 “평소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리장이나 둔황 등 비교적 한국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중국인이 한국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이번 시범 공연의 성과에 대해 흐뭇해 했다.



“산타 할아버지, 행복한 기해년을 가져다주세요”

글·사진 양택진

“앗! 관장님이 변신했다.”

세밑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울 송파구 용인대 월드 태권도장에 산타클로스가 찾아왔다.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한 관장과 함께 징글벨을 흥얼거리는 태권 동자들의 표정은 한없이 밝다. 무술년(戊戌年)을 떠나보내는 어린이들의 기합 소리가 희망찬 기해년(己亥年)을 재촉한다.

기계에 판정을 맡긴 위기의 태권도를 구할 책임도 한국인에게

나는 1970년대 초반부터 태권도 수련에 임하였다. 1970~1980년대는 경기 태권도 발전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이 발전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국기원,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WT)의 시너지를 통해서 기술 분야뿐 아니라 경기 태권도의 체계화·조직화·세계화를 단시일 내에 거둘 수가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발전과 혁신이 거의 다 한국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체계적·운영적 지휘 통솔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기원, WT, KTA의 미흡한 부분, 즉 윤리 도덕적 지도력의 부족 때문에, 지금 태권도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태권도는 전자 호구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경기 태권도가 퇴화하고 있다. 누가 봐도 어렵게 쌓아 놓은 정교한 겨루기 체계가 무너지며 사라지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태권도인들이 더는 태권도 기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그 판단을 전자 호구가 대체하고 있다. 기술을 잃으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왜 경기 태권도 득점 체계와 기술의 결정권을 기계로 넘겨야만 했을까? 그 이

유는 태권도 경기를 둘러싸고 있는 만성적 부정행위 때문이다. WT에 근무하면서(1989~1993) 국기원에서 진행하는 수백 개 경기를 지켜보았다. 승부 시비와 조작 의심 제기가 없는 경기는 드물었다. 국내 경기뿐 아니라 WT가 주최하는 국제 경기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0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경기가 결정적이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보는 가운데 - 온 세계와 함께 - 승부 조작이 적나라하게 벌어졌다. 결국 "태권도가 올림픽에 남으려면 승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태권도인을 배제해야 한다. 즉 기계로 넘겨야 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형태로 귀결됐다. 1960년대에 호구를 착용하고 경기 규칙을 새롭게 하니, 그 이전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눈부신 발차기 위주의 무도 스포츠가 탄생하였다. 그것이 바로 경기 태권도다. 그리고 이후 30~40년 동안 스포츠로서 몸이 튼튼하게 잘 자랐다. 그런데 그 건장한 몸에 수반되어야 하는 무도 정신이 턱없이 부족했다. 새로운 무도 스포츠를 개발하면서 이에 걸맞은 철학도 같이

마련했어야 했는데, 이 작업에는 실패했다. 최소한 태권도 경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심판할 수 있는 정신을 생기게 하는 교육적 기반이 땀을 흘리는 수련과 함께 병행되어야 했다. 경기 태권도가 학교 입학, 군대 면제, 국가대표 혜택, 기타 등등의 사회 진로 문제와 관련성이 깊어질수록, 온갖 폐습들이 경기장에 나타났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윤리 도덕의 기반은 역부족이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심판, 코치, KTA, WT 임원들을 못 믿어서 전자 득점 체계를 도입한 종목이 태권도다. 그리고 이제 그 튼튼하고 건장했던 몸마저도 구부러지고 아프다. 한국 태권도계가 경기 태권도를 만들었다. 그동안 깔끔한 경기 문화를 이룩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 태권도계가 경기 태권도를 구할 의무가 있다. 경기 태권도의 형성기 때 넘쳤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 실험적 마인드, 예술적 감각, 한계에 도전하는 정신, 태권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되살려서 다시 발휘하면 못할 게 없다. 그리고 경기 태권도의 무도적 가치와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는 철학적 기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스티븐 캐프너(Steven D. Capener)

서울여자대학교 영문과 부교수.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1987년 제8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 같은 해 팬암 게임에서 금메달을 각각 따내는 등 엘리트 선수로서 활약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한국 이름이 서태부(西踏夫, 서양에서 온 태권도 사나이)일 만큼,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깊다. 서울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이효석의 소설에 매료돼 연세대학교에서 이효석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권도 공인 8단이며 브라질리언 주짓수 블랙 벨트로도 유명하다.



태권도 지원에 극히 상반된 행보의 두 나라, 한국·중국

글·사진 최진우 전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이사

WT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VS 국회의장배 대회

2018년 12월 15일 중국과 한국에서는 같은 날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중국 우시(無錫)에서 열렸던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World Grand Slam Champions)와 국기원에서 벌어진 국회의장배 대회가 그것이었다.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는 중국태권도협회가 2,300만 달러(한화 약 260억 원)를 투자하여 전 세계 최상위 클래스 선수들을 초청한 대회였다. 이 대회는 막대한 상금을 걸고 1주일간 진행됐다. 한국의 국회의장배는 2회째를 맞이했다. 대회 규모, 참가 선수, 마케팅, 정부의 의지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회명에서부터 한국은 아직 과거의 진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 태권도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옆의 중소 도시인 우시를 스위스의 로잔과 같은 국제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기로 하고 전략 종목으로 태권도를 선택하여 집중 투자 중이다. 중국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임원이 중국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영입되어 자금 조달을 총괄하고 있다. 매년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는 물론 2020년 도쿄(東京) 올림픽 아시아 선발전, 2021 세계 선수권대회 등 세계 주요 태권도 대회 개최를 싹쓸이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세계 태권도 중심은 중국이 부각되리라 쉽게 전망할 수 있는 근거다.



지난해 말에 열린 우시(無錫)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경기 모습.

10조 원 시장 규모 VS 1조 원 시장 규모

중국 태권도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태권도 도장 수는 한국의 5배(5만 6,000개), 수련자 수는 한국의 11배(1,100만 명), 태권도 시장 규모는 한국의 10배(10조 원)로 이미 우리나라 태권도 시장규모를 압도한 지 오래 되었다.

태권도는 용품시장 등 전통적 스포츠산업

시장을 제외하고라도 태권도장이라는 스포츠 분야에서는 독특한 교육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개 도장 연매출이 적어도 1억 원은 발생하고 있는 점과 전체 국내 도장 수가 1만 개임을 감안하면, 1조 원의 태권도 교육시장이 존재함을 간단히 알 수 있다. 중국은 거대한 대륙 면적과 인구수로 한국의 10배에 달하는 태권도 시장을 구축한 것이다.

중국 태권도 관계자는 중국의 전통 무술인 우슈가 아닌 태권도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유로, 중국의 우슈는 유소년이 배우기에 너무 어렵고 상대적으로 태권도가 수월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전하고 있다. 중국태권도협회는 우슈 사범이 일정한 교육을



마치면 태권도장을 개원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태권도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은 전도유망한 국내 지도자의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 종목에서 전무한 기록인 올림픽 2연패(2008 베이징, 2012 런던)의 업적을 달성하고 차세대 지도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세계 태권도 여제' 황경선(33)이 지난해 국내에서 은퇴하고 올해부터 중국 베이징체육대학에서 지도자의 길을

이어 가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황경선에 앞서 수많은 국내 고급 인력이 중국에 진출해 중국 태권도를 단시일 내 키웠다.

중국의 고성장에 비하여 우리나라 태권도 시장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태권도 시장의 주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유소년의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보다 적어지는 골든 크로스가 2017년에 발생하였다.

태권도장 관장이 도장 경영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악화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축구 중주국 영국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비하여 위상이 밀리지 않는 것은 국제축구평의회(IFAB: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Board)를 통해 경기 규칙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FIFA보다 앞서 설립된 IFAB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등 영국 4개 축구협회와 FIFA가 4명씩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해 축구 경기 규칙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잉글랜드가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라는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태권도의 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강력한 경쟁국의 등장과 낙관적이지 못한 국내 태권도 시장 상황은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중주국 위상은 KTA의 몫... 정부는 KTA 지원 늘려야

정부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향후 5년간 1,7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고 5년간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서 209개 회원국을 거느린, 우리가 중주국인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 태권도 무대에서 중주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소임은 누가 하는 것인가?

세계 태권도 스포츠계에서 중주국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KTA)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특정 국가의 편을 들 수 없으며,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중심으로 한 국제 스포츠계에 참여할 수 없는 기관이다. 올림픽, 아시안 게임 및 세계 유수 대회에 태권도 중주국으로서 참가하여 성적을 내고, 총회와 집행위원회 등에서 중주국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은 KTA가 유일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에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을뿐더러 태권도 세계 평화봉사, 국내 거주 외국인 태권도 교육 등에 적지 않은 재원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정작 세계 무대에서 중주국 역할을 수행하는 KTA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KTA에 대표선수 육성과 전지훈련에 17억 원 등 모두 28억 원을 지원했으나, 국가대표 시범단 운영 등 중주국 위상과 관련된 사업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KTA는 중주국 협회로서 다른 종목의 경기단체와는 그 기능과 기대치가 다르다. 향후 정부가 태권도에 대한 지원 이유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계 태권도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그저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이 다가올까 걱정된다. ●

‘영원한 반려’ 태권도와 함께 미지의 삶을 개척해 오다

글 최규섭 사진 이동섭 국회의원실 제공

“백절불굴의 태권도 정신이 없었더라면 정치인의 삶도 열리지 않았을 듯싶다.”

여섯 번 쓰러졌다. 두 번의 낙선과 네 번의 낙천, 쓰러지고 아린 좌절이 거듭됐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짐은 그 순간뿐이었다. 그때마다 오뚝오뚝 일어섰다. 누운 상태를 잊어버린 오뚝이었다. 머릿속에서 ‘좌절’과 ‘포기’란 단어를 아예 지우고 없었다. 대신 가슴속에서 ‘도전’과 ‘극복’이란 두 낱말을 키우고 길렀다. 마침내 굳게 닫혀 있던 희망의 문이 열렸다. 2016년 4월, 그 문은 빗장을 풀고 인내의 도전자를 맞아들였다. 제20대 국회의원! 꺾일 줄 모르는 6전7기의 독심이 빛은 인고의 결실이었다. 이동섭 의원(64·바른미래당), 뜻을 이룰 때까지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을 불살라 온 입지전적 인물이다.

“태권도는 삶의 영원한 반려자다. 괴롭고 고된 길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 주셨다면, 삶의 밑바탕이 된 태권도는 뒤를 든든하게 받쳐 줬다.”

장로(순복음 노원교회)이면서 입신(9단)의 경지에 오른 정치인인 그에 걸맞게 삶의 두 축은 하느님과 태권도다.

약골, 강골로 다시 태어나다

소년은 무척 키가 컸다. 또래 아이들을 모두 내려다볼 정도였다. 그러나 몸은 허약하기만 했다. 오죽했으면 학교를 1년 쉬었을까? 그만큼 약골이었다. 친구와 놀다가 다르면 얻어맞기 일쑤였다. 부모는 애꿎다. 아들이 스스로



백두산 천지를 찾은 이동섭 의원이 도복을 입고 멋진 태권도 동작을 취했다.

를 지킬 수 있게끔 태권도를 배웠으면 했다. 1964년, 모두 가난한 시절이었다. 어머니가 손수 지어 준, 비닐 포대를 기운 도복을 입고 동네 형들에게서 태권도를 배웠다. 태권도라기보다는 그냥 손발을 놀리는 움직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풍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흥중학교에 진학했다. 집(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에서 6km 쯤 떨어진, 고흥읍에 자리한 학교였다. 마찬가지로 한두 살 어린 동급생에게조차 변변히 맞서기가 힘들었다. 속이 탄 아버지는 이번엔 방법을 달리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태권도장을 찾았다. 연무관 전남 본관, 정식으

로 태권도에 입문해 수련의 길에 들어선 소년의 첫 배움터였다. 1968년 4월, 중 1 때 일어난,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그때부터 50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키워 온 태권도 사랑의 출발점이었다.

“공무원(고흥군 농촌지도소장)이셨던 선친(고 이상만 씨)께서 자존심이 남달랐던 것 같다. 그런 분이 아들이 맞고 다닌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셨을지 눈앞에 선하다. 당신께서 아들을 데리고 가 직접 입관시킨 데에선, 더는 맞고 다니지 마라는 무언의 압력이 깃들었음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다.”

화는 오히려 복으로 바뀌었다. 약체였던 아이는 시나브로 건장한 청소년으로 변해 갔다. 약한 골격은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느냐듯 튼실한 신체로 화했다. 강골이 탄생하는 데엔 몇 년이면 충분했다.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던 시절, 중·고 6년 동안 왕복 12km가량을 거의 걸어 다닌 점도 한몫했음은 물론이다.

스승의 가르침, '전설'의 바탕이 되다

고흥군에 가면, 나이 지긋한 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파괴력을 잃지 않는 신화 같은 일화다. 아니 시간의 더께가 덧칠하여 지면서, 도리어 생동감과 흥미성을 더해 가는 전설이라고 할까?

태권도를 연마한 지 3년이 흘렀다. 나 어린 티를 벗은 그는 고흥농업고등학교(현 고흥실업고등학교)로 올라갔다. 잠재된 자질이 발현됐음인지, 그의 태권도 실력은 나날이 다달이 늘어났다. 친구들과끼리 분쟁엔 존재가 필요한 인물이 됐을 만큼 알아주는 실력가로 성장했다.

전설은 어느 날 하룻길에서 비롯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읍내에 사는 열 명의 학생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런데 다들 손에 뭔가 - 돌과 자전거 체인 등 무기가 될 만한, 심지어 칼까지 - 들고 있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며 남을 괴롭히던 그들은 일부러 시비를 걸었다. 걱정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엿보였다. 당연히 말로써 풀릴 리 없는 영킨 실타래였다.

싸움이 시작됐다. 1:10, 누가 봐도 승패가 어떻게 끝날지 분명한 다툼이었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의 현란한 발차기와 힘에 넘친 주먹치기에 열 명은 차례차례 바닥을 툅굴었다. 중국에

뺏어 버린 열 명의 불량아를 뒤로하고 그는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양...

아직 인성과 품성이 제대로 확립되기 힘든, 약관에도 이르지 못한 고교생이었다. 시쳇말로 '전설의 싸움꾼'이라 불리어도 어색하지 않을 듯한 실력을 갖췄으니 자만심에 넘쳐 그릇된 길로 나갔을 성싶기도 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원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장님을 비롯한 사범님들이 인성 교육을 무척 중시하셨다. 그분들 덕분에 강인한 체력 못지않게 건전한 정신을 기를 수 있었다.”

그를 가르친 스승들의 면면은 대단했다. 이성형 관장은 연세대학교를 나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인텔리 무도인이었다. 사범진도 기라성 같았다. 뒷날 해외로 진출해 각각 그곳 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한 서윤남(독일)·박종부(오스트리아) 사범을 비롯해 한동주·김문성·김정민 사범 등은 지금도 그의 가슴속에 사표로 남아 있다. 스승들은 늘 “정도를 걸으며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일깨웠다. 행여나 제자들이 일탈의 길로 들어설까 염려하며 끊임없이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충(忠), 둘째 효(孝), 셋째 예(禮), 넷째 의(義), 다섯째 신(信)이었다. 그는 지금도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하여 스승의 이 가르침을 되새기곤 한다.

태권도 연마 첫 결실, 대학 입학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 말처럼, 좋은 스승 밑에 용렬한 제자가 나올 리 없다. 고교 3년생이 된 그에게 버금가는 적수는 전라남도 안에선 찾기 힘들었다. 그럴수록 더욱 수련에 매달렸다. “무도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스승의 말씀을 되뇌며 땀을 아끼지 않았다.



위)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발대식에서, 이동섭 의원(왼쪽)이 다섯 명이 밀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내공 실력을 뽐내고 있다. 아래) 2017년 9월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발대식에서, 이동섭 의원은 대리석 15장을 깨뜨리는 놀라운 격파 실력을 선보였다.

1974년, 고교 3년 때 달콤한 과실을 맛봤다. 그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체육대회 출전 전라남도 선발전에서 우승하는 감격을 누렸다. 기쁨을 준 결실은 또 있었다. 높은 수준의 실력을 인정한 인천 체육전문학교(1981년 인천전문대학을 거쳐 2010년 인천대학교와 통폐합됨)가 그를 특기생으로 뽑았다. 동기생 200여 명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은 단 세 명에 지나지 않았다. 얼마나 좋았을지 궁금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의 안배에 따라 태권 도복을 입음으로써 가능했던 영광이다. 다른 사람은 내가 그때 느꼈던 기쁨의 크기를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 같다. 많은 친지와 이웃이 몰려와 축하했다.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과장일까(웃음)?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행복한 기분에 젖곤 한다.”

태권도를 도약대 삼아 미래를 개척

수확은 한 해로 그치지 않았다. 한 번 열매를 맺은 '태권도 나무'는 마치 화수분 같았다. 계

속해서 과실이 열렸다. 성실한 삶을 좇으며 정진한 그에게 태권도는 도약대로 기능했다. 늘 곁에 두고 벗했던 그의 열과 성에, 태권도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다. 대학 1학년이던 1975년 9월, 그는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논산훈련소 신병교육소 30연대에 배정돼 받은 훈련 기간(10주)에, 그는 교육생 중대장(항도)을 맡았다. 순전히 갈고닦은 태권도 실력 덕분이었다. 30연대 전체 무도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단숨에 '훈련병 스타'로 떠올랐다. 고단하고 오랜 훈련 기간을 별탈 없이 마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태권도는 행운의 손길을 계속 내밀었다. 김포 공항 경비대 전경대로 배속된 그는 교관으로서 전 대원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꿀 보직'이 달리 없었다. 1981년 결혼해 40년 가까이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아내(왕은옥 씨)를 이 무렵 처음 만났다. 1978년 5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제대를 앞두고 김포공항 근처의 공원으로 태권도를 연마하러 나갔다. 그곳에 미래의 아내가 동생과 같이 역시 운동하러 나와 있었다. 첫눈에 반했다. 요동치는 가슴을 좀처럼 진정시키기가 힘들었다. 그때 스승이 들려주던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다. "용기 있는 자가 뜻하는 바를 이룬다." 기개 있게 다가

가 데이트를 신청했다. 두 젊은 남녀가 한마음으로 고감했다.

"아내가 후에 그러더라. '순수한 마음이 옛보여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도 눈이 반짝이며 살아 있어 마음이 움직였다.' 결국 태권도가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한 셈이다."

첫 만남 뒤 사흘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일사천리'란 말이 절로 떠올러지는 전광석화 같은 혼약이었다.

새옹지마의 수사관 시절, 변신의 계기가 되다

1978년 10월, 마침내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역시 태권도가 바탕이 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과 형사기동대 무도 사범으로 특채돼 20년 5개월에 걸친 공무원 생활의 문을 열었다.

"대한전선 공채 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런데 아내(당시 약혼자)가 '민중의 지팡이'가 내가 추구해 온 삶에 더 어울릴 것 같라며 경찰 입문을 권했다. 대기업에 비해 비록 박봉일지라도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찰 쪽을 원했던 내 생각과 같았다. 주저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을 선택했다."

1999년 3월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에서 명예퇴직할 때까지 일선 경찰서(청량리·중랑)와 검찰청(서울 중앙·서울 북부)에서 수사관으로 맹활약했다. 그 시절 얻었던 별호가 '김두환'이라는 데서 엿볼 수 있듯, 그의 빼어난 태권도 실력은 이 분야에서도 널리 높게 평가받았다.

"검찰청 특수부와 강력부에서 주로 지능범죄와 조직 폭력배 등을 전담했다. 우리나라 조직 폭력 최대 계보를 와해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때 해결했던 많은 일을 생각하면 자부심을 느낀다."

용솟음치는 기세를 떨치며 순탄한 길로 나아가는 듯싶었다. 그렇지만 걸림돌이 없을 리 없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랄까. 뜻밖의 암초가 나타났다. 지방색의 편견에 사로잡힌, 새로 부임한 한 부장 검사의 행태에 분노한 그는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다.

"술기운을 빌려 '지역 차별을 하지 마라'고 부장 검사를 질타했다. 집에 돌아왔는데 깊게 잠든 아이들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 큰딸(하늘)이 막 열 살이었고, 둘째 딸(민아)과 막내아들(규현)은 각각 일곱 살과 다섯 살이었다."

사표가 반려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는



이동섭 의원(앞쪽)이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수련하고 있다.



2018년 3월 30일 열린 제358회 임시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국가(國技)로 지정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자, 이동섭 의원(앞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웃음을 짓고 있다.

경찰로 복귀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삶을 향하고 있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정치, 곧 국회의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사람의 지역 차별에서 말미암은 전화위복이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안배였다. 태권도를 밑거름 삼아 변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태권도 조직을 바탕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다

삶의 마지막 승부수를 정계에 띄웠으니, 걸맞은 가치관과 시각을 재정립해야 했다.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쉬지 않고 움직였다. 체(體)는 닦였으나 부족하다고 느낀 지(智)와 덕(德)을 두루 갖추기 위한 열정을 불살랐다. 용인대학교(체육학 석사), 명지대학교(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정치학 석사), 국민대학교(법학 박사) 등은 열과 성을 다 쏟은 배움의 전당이었다.

조직 관리에도 남다른 신경을 썼다. 특별한 시간을 뺀 나머지 모두를 투자했다. 체육 행사는 말할 것 없고 근처 산을 비롯해 시장·상가·골목길 등 지역(노원구)을 골골살살이 누비며 주민을 만나 얼굴을 알렸다.

“유권자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루 200명 이상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지며 이름 석 자를 알리려 무척 애썼다.”

역시 가장 원천적 힘은 태권도에서 비롯됐다. 노원구태권도연합회와 노원구태권도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의 화합에 힘썼다. 2000년대까지 30년 동안 운영해 온 세 개의 태권도장(한양·을지·용인대 박사)이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자신과 뜻을 같이한 이 지역 몇몇 체육 단체장들과 함께 만들어 회장(2대)직을

맡았던 노원구생활체육협의회도 한몫을 거들었다.

태권도를 바탕으로 한 빼어난 조직 관리는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 마당에 뛰어든 뒤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2000년 제16대 총선 때 노원 을 후보로 정치판에 정식으로 첫 얼굴을 내민 그는 여섯 번씩이나 앞을 가로막은 ‘좌절의 강’을 건너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국민의당)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잇단 태권도 조직을 창설해 빛나는 문화유산을 전파하고 선양하는데 앞장섬으로써 태권도가 세계 속에 뿌리내리도록 이바지했다. 세계 태권도선교협회, 생활체육 세계태권도연맹,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은 그가 잇달아 내놓은 작품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공헌하는 단체다.

그는 지금도 42개국에 66개 지부를 둔 생활체육 세계태권도연맹과 현역 의원 114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로 활약 중이다. 생활체육 세계태권도연맹 중앙 도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 2동에,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중앙 도장은 대한민국 국회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건강관리의 주춧돌도 매한가지로 태권도다. 매주 수요일 1시간 이상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중앙 도장에서 수련하고 숨 돌리기 힘든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수련하며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태권도, 삶의 원천이자 버팀목

그는 2014년 말 최고단인 9단 승단 시험 관문을 뚫고 그랜드 마스터가 됐다. 단 한 번도 월단을 하지 않고 단계를 밟아 오른 지경이다. 명예 단수가 아닌, 실단 소지자로서 어쩌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정치인일지 모른다. 이 맥락에서 보면, 2017년 9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발대식 때 대리석 15장을 깨뜨린



2018년 4월 21일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열린 ‘태권도, 평화의 함성’ 세계 기네스 도전은 8,212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진 뜻깊은 무대였다. 이동섭 의원이 총재로 있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이 주최했다.

격파 실력은 그에게겐 대수롭지 않을 듯하다. 그는 빛나는 영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 스스로를 “태권도에 미친 사람”으로 표현할 정도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권도 광인(狂人)’이 지금까지 살아 온 삶에 있어, 가장 역작은 무엇일까?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 이론 태권도의 국기(國技) 법제화다. 2018년 3월 30일, 한평생 쌓은 정철이 결정체로 구현됐다. 태권도가 법률로서 국기로 지정된 그날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의 태권도 사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미지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의 눈은 한 방향으로 모아진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태권도 명인 지정 입법에 마침표를 찍었으면 한다. 내 마음 같아선 ‘태권도 국보’라고 명명하고 싶을 정도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도 그가 그리는 청사진의 하나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예시예종(禮始禮終)의 무도 스포츠로서, 삼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위대한 고유문화다. 당연히 세계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영원한 반려’ 태권도는 그의 곁에서 늘 함께 하는 수호신이기도 하다. 그를 지탱하며 용기를 불어넣는 삶의 원천이자 세 버팀목인 하나님, 가족, 태권도다. ●

‘친북’ 최흥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태권도에 기여한 공적은 인정해야

글 서완석 사진 KTA DB

지난해 11월 17일 한국체육대학교 합동 강의실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최흥희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모 태권도 전문 매체와 한국 체대 태권도학회가 공동 주관한 학술대회였다. ‘태권도와 삶: 최흥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이 학술대회는 국군 장군에서 친북 인사의 삶을 택했던 최흥희의 태권도 인생을, 그것도 국립대학에서 처음 재조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친북 활동 탓에, 국내 태권도계에서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금어(禁語)였다. 그런 그의 인생을 국립대학에서 조명할 수 있었던 시대 변화는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 무예 ‘택견’에서 힌트를 얻어 ‘태권도’라는 명칭을 창안한 이가 바로 그였다. 오도관을 창설해 전군(全軍)에 태권도를 보급한 것도 그였고, 태권도 보급을 위해 해외에 처음 시범단을 파견하고 국제 기구를 만든 이도 그였다.

오랜 친북 활동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은 2016년 4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역자 17명을 추가 선정하면서 최흥희도 그 명단에 올려놨다. 그는 재단이 선정한 총 27명의 현역자 가운데 ‘필생의 라이벌’ 김운용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비록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지만, 오로지 태권도만의 공과(功過)를 놓고 봤을 때 그의 선정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냉전시대의 논리를 극복한 한국의 시대 변화도 한몫했다. 이는 문학계에서 월북 작가의 일부 작품에 대한 해금(解禁)이 오래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아쉬움도 있다.



마이크를 들고 태권도 강습에 나선 최흥희.

가라테, 태권도, 그리고 최흥희

최흥희는 1918년 함경북도 명천군 하가면에 5남 3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한학(漢學)을 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한

학을 익혔다. 그의 자서전(『태권도와 나』) 곳곳에서 발견되는 중국 고전의 인용문에서, 학문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1939년 일본 유학을 떠난 그는 교토에서 가라테와 만났다. 일본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

해서는 정식으로 가라테를 배웠다. 2단이 된 최홍희는 윤병인과 함께 도쿄 YMCA에서 가라테를 지도하기도 했다. 1944년 1월 학도지원병으로 일군(日軍)에 끌려간 그는 '평양 학병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이듬해 6월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으나 해방이 돼 풀려났다. 1946년 1월 조선경비대 육군 소위로 군문(軍門)에 들어선 뒤 미 군정하 미군에게 당수도(가라테)를 선보이기도 했다. 1953년 9월 제29사단을 창설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주도 모슬포로 내려간 그는 청도관 출신인 남태희 대위를 부관으로 두고 사단 장병에게 당수도를 지도했다. 아직 '태권도'란 명칭이 생기기 전이었다. 최홍희가 이끄는 29사단은 1954년 제주도를 떠나 제1군단에 배속됐다. 그해 9월 강원도 설악산 오호리 평야에서 열린 군단 창설 기념식 때, 최홍희는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사단 당수도 시범을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저것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던 택견이야?"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이 역사적 장면은 그가 '태권도를 작명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는 29사단에 체육관을 짓고 오도관(吾道館)이라 이름 붙였다. 논어 이인편 "오도일이

관지(吾道一以貫之: 나의 도는 한 가지 이치로 일관되게 꿰뚫는 것)"이란 글에서 따왔다. 그러나 오도관은 군에 기반을 두었을 뿐 민간 도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1958년 고딘 디엠 월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국방부 주도로 최초의 국군 태권도시범단이 구성됐다. 시범단을 인솔하고 월남과 대만 순회 시범을 마친 그는 대한체육회 가맹을 서둘렀다. 협회를 대표할 명칭 통일을 위해 지도관 윤쾌병, 송무관 노병직, 창무관 이남석, 무덕관 황기 등 기간 도장 관장을 초청해 회의를 주도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를 창립했다. '공수도'·'당수도'란 명칭을 밀던 민간 도장 관장들은 육군 소장이던 그의 위세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대한태권도협회는 황기가 탈퇴하고 대한체육회 가맹을 서두르는 중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와해됐다.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는 최홍희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의 압력으로 6군단장(소장)에서 예편해야 했다.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는 쿠데타 세력에 반감이 많았다. 최홍희는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최덕신의 권유로 말레이시아 대사로 갔다.

김정일과 환담중인 최홍희.



평양 태권도 전당에 걸린 최홍희 사진.

말레이시아 대사 후 협회 수장, 그러나 단명

5·16 후 사회단체 재등 록이 시행되면서, 유사 단체 통합을 서둘러야 했다. 통합 단체 명칭은 최홍희의 뜻과 달리 대한태수도협회로 결정됐다. 그는 "태수도'가 무의미한 이름인데도 부득이 이를 우기는 이유는 그들 머릿속에 아직도 친일 망국노 정신이 팍 박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개탄했다. 1964년 10월 말레이시아 대사직을 끝내고 귀국한 그는 '태권도'란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 현실에 낙담했다.

1965년 1월 대한태수도협회 회장이 된 그는 대한수박도회와 통합 명분을 내세워 8월 5일 협회 명칭을 현재의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했다. 수박도회와 태수도협회의 통합인 이상 어느 한쪽의 명칭을 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1966년 1월 그는 노병직을 후임 회장으로 내정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이종우는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최홍희는 협회를 사조직으로 여겨 독선적 협회 운영을 일삼았다. 그래서 엄운규와 함께 그의 경질을 시도했다. 협회 총회가 있던 날, 아침 일찍 최홍희의 한남동 자택으로 찾아가 사퇴를 종용했더니, 그는 '6개월만 더 하게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명예, 돈, 권위



최홍희의 ITF 총재 시절.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서, 명예를 위해 국제태권도연맹을 만들어 줄 테니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최홍희가 창설했다는 국제태권도연맹(ITF)에 대해서도 이처럼 증언이 엇갈린다. 1966년 3월 22일 구 조선호텔 로즈룸에서 창설된 ITF는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서독(이하 당시), 이탈리아, 터키, 통일아랍공화국 등 9개국이 가입했다.

엄운규의 증언이다. “최홍희 씨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엉뚱한 일을 해, 회장직을 수행한 지 6개월 만에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결의했다. 그때 이종우 씨가 최홍희 씨의 마음을 달래 주기 위해 ‘영어를 잘하니 국제 태권도 기구를 만들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권유해서 ITF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후 대한태권도협회는 ITF가 유사 단체를 만들어 파벌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맹 해체를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국제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태권도 해외 보급 및 지도자 해외 파견 등 대외 업무를 직접

맡겠다고 나섰다.

분규수습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최홍희는 해외 사범 파견과 단증 발급은 ITF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고, 협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홍희는 수습위원회가 박정희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1971년 8월 그는 수습위원회를 탈퇴했고, 이후 그의 입지는 좁아져만 갔다.

그해 초 대한태권도협회 제7대 회장에 청와대 경호실 출신 김운용이 취임했다. 김운용은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유일하다며 ITF와 차별화를 선언했다.

캐나다 망명 후 1980년 북한에 태권도 보급 … 평양에서 사망

대한태권도협회와 관계가 악화되고 박정희 정권과도 결끄러운 관계였던 최홍희는 1972년 3월 캐나다로 망명을 떠난다.

북한 노동당 간부였던 친형과도 이미 연락이 닿고 있었다고 한다. 1974년 7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3개국이 참여한 제1회 ITF 세계

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1978년 동유럽에 태권도를 보급했고, 1980년에는 태권도 시범단을 결성해 북한에 태권도를 소개했다.

그는 아들 최종화를 평양으로 보내 사범 교육을 도와주며 본격적으로 친북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북한을 자주 왕래했고, 김운용이 1973년 창설한 세계태권도연맹(WTF)과는 수시로 마찰을 일으켰다. 그는 ITF가 태권도의 정통성을 잇는 진짜이며 WTF는 ‘가짜 태권도’라고 했다. 특히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회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WTF의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때 방해 공작에 나서기도 했다.

2001년부터 최종화와 후계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겨 아예 북한으로 들어간 그는 2002년 평양에서 84세로 숨졌다. 그는 ITF 후계자로 장웅 IOC 위원을 지명한 뒤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다.

그는 초창기 태권도 교본 작성과 이론 정립에 누구보다 열성이었다. 말레이시아 대사 시절에도 태권도와 가라테를 확연히 구분하기 위해 기술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호를 딴 ‘창헌 틀(품새)’도 그때 완성했다. 영문판 교본을 만들어 태권도 보급에도 앞장섰다. 전국 도장에 걸려 있던 ‘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 등 ‘태권도 5대 정신’도 그가 만들었다.

그는 태권도 경기화(競技化)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태권도 기술의 3대 요소인 형·대련·격파 중에서 대련만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됨으로 불합리하다. 경기할 때 착용하는 호구가 기술을 완전히 발휘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봐도 탁견(卓見)이 아닐 수 없다. ●



1983년 성동상고 OB팀 일반부 구성

1983년 6월, 주식회사 한국스포츠가 성동상고 졸업생을 주축으로 일반부 팀을 구성했다. 한국스포츠가 일반부 팀을 구성한 배경은 성동상고 졸업생들이 성동 OB팀으로 대통령기쟁탈대회에 참가할 때 한국스포츠가 후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팀 구성은 임성근 성동상고 태권도부 동문회장이 감독을 맡고, 조남수 전 해군대표팀 주장이 코치가 되어 하용성·윤준철·김한노·오배균·김현덕·장승화 선수들과 활동했다.

한국스포츠 일반부 팀은 1983년 6월 국기원에서 열린 첫 대회에서 밴텀급 윤준철이 1위, 라이트헤비급 하용성이 1위, 라이트미들급 김현덕이 3위에 각각 입상했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誌) 제45호(1983년 7월호)는 “한국의 간판 스타인 장승화 선수가 한국스포츠 실업팀에 입단해 팀 발전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했다.

하지만 한국스포츠는 실업팀이 아니라 일반부 팀이었다. 한국스포츠 후원으로 성동상고 출신들이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했다. 이와 관련, 당시 감독을 맡은 임성근 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분과위원장은 “내가 한국스포츠를 개업해 후배 조남수가 직원으로 있었다. 성동상고 OB팀을 만들어 2~3년 동안 일반부에 참가했다.”라고 회고했다.

제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남자 종합 우승

1986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호주 다윈에서 18개국 95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렸다. 한국 대표선수단은 김경기 경희대 교수가 감독, 김우규 동아대 감독이 남자 코치, 김영인 청산여상 감독이 여자 코치, 윤종욱 경북협회 총무이사가 트레이너를 각각 맡아 8명의 선수와 함께 격전지로 떠났다. 당시 선수는 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부는 핀급 김영주, 플라이급 이해진, 밴텀급 지용석, 페더급 정승환, 라이트급 이창건, 웰터급 윤순철, 미들급 장질환, 헤비급 이정진 선수였다.

이 대회에서, 남자는 금 6은 1·동 1개를 획득해 종합 우승을 했다. 김우규 코치는 “조직위원회 경기부장의 배려로 그 대회부터 사용한다는 헤드기어를 빌려서 현지 적응훈련을 했다. 선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헤드기어는 국제 규모 대회에서 이미 착용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경기할 때도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경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윤종욱 트레이너는 “기량 차이가 있는 선수와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유념하며 태권도 묘기 발차기를 시도하는 등 태권도 중주국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썼다.”라고 말했다. (출처)

지도자서 연구원 변신 ‘레전설’ 최연호, 호주서 미래 준비

글·사진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2009 코펜하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부상 투혼으로 우승한 최연호(왼쪽에서 두번째)가 왼손 손가락 네 개를 펴서 4회 우승을 상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신조어로 '레전설'이라는 말이 있다. 레전드(Legend)와 전설(傳說)을 합친 말로, '전설 중의 전설', '최고 중의 최고'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세계 선수권대회 4연패의 정국현이나 5연패의 스티브 로페스 정도를 태권도의 레전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문대성 전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경우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금메달 장면을 연출한 스타임에는 분명하긴 해도 레전설에는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바둑의 이창호, 테니스의 로저 페더러, 종합 격투기의 표도로 예밀리야넨코처럼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최고로 군림한 경우야말로 레전설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국현에 이은 우리나라 태권도의 '레전설'은 누가 뭐라 해도 최연호(38)다. 그는 2001년, 2003년, 2007년, 2009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제패했다. 2000년부터 2010년 무렵까지 10여 년간 세계 태권도의 핀급(-54kg급) '황제'는 최연호였다. 태권도 선수로는 환갑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른 살에 가

깝도록 가장 가벼운 체급인 핀급에서 선수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대회 때면 보통 8kg 정도를 감량하고 경기에 출전했다. 기자에게는 선수 시절 경기장에서 감량 때문에 눈이 쾅하게 꺼지고 힘들어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안쓰럽게 생각한 기억이 남아 있다. 그만큼 감량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다. 그 감량을 딛고서 세계 최고 자리를 오래도록 유지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선수와 감독을 거쳐 호주에서 연구원으로 새 출발

세계대회 4회 우승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찍은 2009년 코펜하겐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은 말 그대로 불사조의 투혼으로 이뤄낸 것이었다. 준결승전에서 오른손 부상을 심하게 당했던 최연호는 붕대를 감고 결승전에 나서 뒤지던 3회전에 극적인 동점으로 연장전에 돌입한 후 여세를 몰아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 뒤 결국 우승을 차지했다. 이 때 우승 후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고 왼손 손가락을 겨우 펴서 네 번의 우승을 표현한 장면을 기억하는 태권도인들이 적지 않다. 2011년 은퇴한 그는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 지도자로서 새 출발을 했다. 가끔 경기장에서 마주치던 최연호 선수, 아니 최연호 감독의 근황이 궁금했다.

최 감독을 만난 것은 천안이었다. 그를 만나러 광주까지 갈 계획이었지만, 마침 최 감독이 천안에 볼 일이 있었던 것. 2018년 크리스마스 이튿날, 최 감독과 천안역 인근에서 만났다. 기자는 개인적으로 4년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태권도 관련 행사로 스페인을 찾았었고, 마침 최 감독이 이끄는 조선대 태권도학과에서도 스페인에 일정이 있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 감독 일행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자는 그 이튿날 새벽 비행기 일정이어서 최 감독의 방에서 신세를 진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따로 만난 것은 오랜만. 취재를 떠나서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최 감독은 지금은 감독이 아니다. 연구원이다. 조선대학교에서 감독으로서 선수를 지도하다가 물러난 후, 지금은 먼 호주에서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연세대학교 부설



동서문제연구소의 호주연구센터다. 여기서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브리즈번에 거주하고 있는 데 지난해 11월 말에 잠시 귀국했다. 최 감독과 인터뷰 날 짜가 안 맞았으면 무산될 뻔했던 것. 마침 최 근 부인이 둘째를 낳았다.

“출산 일정에 맞춰서 귀국했는데 마침 오자마자 아들 후에 아이가 태어났네요.”

그는 2016년 3월 35세에 결혼을 했다. 빠르지는 않은 결혼이나, 요즘의 추세에 비추면 많이 늦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살 먹은 첫 딸에 이어 이번에 둘째로 아들을 얻었다. 둘째의 임신 소식은 6개월 전, 호주로 출국하는 공항에서 알았다.

“아내에게 미안하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네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투자. 그 동안 선수로서, 그리고 은퇴하자마자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원이 되어 호주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언어겠지요. 이번 기회에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태권도뿐만 아니라 체육·문화 등의 분야를 공부해서 최

연호라는 사람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태권도 관련 세미나, 한·호주 문화 연구 등에 매진

그가 몸담고 있는 연세대학교 부설 동서문제 연구원은 문화 중심으로 한국과 호주의 관계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한다.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그의 비중이 작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호주 역시 태권도 보급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곳이다.

“제가 있는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시드니, 멜버른 다음 정도 가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많지 않고,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있습니다. 연구 활동 외에도 퀸즈랜드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가하기도 하고, 비정기적으로 개별 도장에서 원하는 경우 세미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리즈번의 태권도인들은 시쳇말로 붕을 잡았다. 최연호 같은 세계적인 선수 출신의 지도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겨루기 엘리트 선수를 꿈꾸는 수련생들에게, 최연호 같은 지도자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것은 행운이다.

“얼마 전에도 싱가포르에서 교육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같은 곳에서도 종종 요청이 옵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런데 감독 시절에는 요청이 와도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청이 와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도자 생활을 할 때에 비하면 시간 조절이 좀 더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맞으면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기사를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왜 태권도 선수는 비슷한 타 종목 선수에 비해서 대중미디어에서 스타로 뜨는 경우가 드물까?’

같은 투기 종목인 유도·복싱·레슬링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유독 태권도 최고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반인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기자는 태권도 선수가 모범생처럼 너무 얌전해서 그렇다고 분석해 본다.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에는 “너무 튀는 거 아니

냐?”라는 시선을 받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세계 선수권대회 4회 우승에 빛나는 최연호 역시 그런 면에서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요즘 후배들은 더 미디어에 친숙하기도 하고 저희 때보다는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 태권도 선수들 중에서도 끼가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끼를 드러내는 후배들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향후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활약하는 행정가가 꿈”

한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 최연호는 태권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최소 1년 이상 호주에 더 머물 계획이다. 여전히 그는 배움에 목말라 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면 WT 같은 태권도 관련 단체들이나 국제스포츠단체 같은 곳에서도 일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국내 태권도인 중에서 국제 감각과 실력을 갖춘 이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최 연구원은 최고의 선수 출신이면서 글로벌 태권도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 대해 고민하는 선수가 많다. 최연호는 또 하나의 훌륭한 롤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선수에서 지도자, 연구원 그리고 향후 국제기구 행정가.

그에게 현행 태권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던져 봤다. 그는 전자호구와 비전자호구의 시기를 모두 몸소 체험했던 세대다. 전자호구는 그가 마지막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2009년 코펜하겐 대회에 처음으로 채택된 바 있다. 전자호구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일단 전자호구 경기가 박진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의 경우 발차기 횟수는 더 적었지만 뭐랄까, 긴장감이 훨씬 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전자호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자호구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WT는 여러 차례 경기규칙을 개정해 왔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 선수나 지도자 모두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기규칙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은 50 : 50이라고 봅니다. 선수와 지도자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바뀌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요. 계속 변화, 발전한다는 것이 태권도의 장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는 전자호구 변화의 방향은 무엇일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강도의 문제인데, 타격감이 나타날 수 있는 경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발이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뿐인데 3점이 올라간다면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더 타격감이 살아있는 격투기다운 태권도로 비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자호구 채택으로 나타난 대표적 결과 중의 하나는 ‘세계 태권도의 평준화’일 것이다. 종주국의 독주체제가 무너졌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국내 태권도인들은 전자호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평준화에 따른 종주국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태권도가 세계화될수록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평준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또 잘하는 외국 선수들이 나타날수록 우리도 손 놓고 가만



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태권도는 평준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발전한다고 봅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요즘도 보면 영국, 중국, 태국 등의 몇몇 선수들은 눈에 띄 정도로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큰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해외 태권도인이 자랑스러워 할 일이 한국에 많았으면”

그는 태권도 훈련방법에서도 외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시대가 됐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세계 태권도 실력의 평준화 때문이다. 그는 호주에서 더욱 실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태권도의 경우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선수들에 대한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 보다 과학적 훈련방법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오히려 우리가 외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지요. 저도 호주에 나가 있으면서 과거에 내가 훈련했던 방식과는 다른 면에서 많이 보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에 관한 한 호주는 세계적 강국 아닙니까?

태권도는 이제 힘들게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운동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스포츠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제 불혹(不惑)을 바라보는 나이이다. 그만큼 이제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태권도를 바라보고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야 할 나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국기원에서 벌어졌다. 그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선 마음이 아팠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했고 태권도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인이 많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태권도인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태권도인이 자랑스러워 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레전설’ 최연호는 선수로서는 은퇴를 했지만, 태권도인으로서 은퇴하지 않았다. 여전히 현역이다. 그리고 미래에 더 큰 쓰임을 위해서 자신을 갈고닦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갓난 아들과 떨어져 머나먼 호주에서 미래를 준비한다. 10년 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그를 그려본다. ●

태호(太湖)에서 가린 그랜드 슬램, 고교생 장준이 웃었다

우시(無錫)-글·사진 양택진



우시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남자 -58kg급 결승전에서, 장준(오른쪽)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 장준이 우승하며 2018년 대미를 장식했다.

7만 달러(한화 약 7,850만 원)의 우승 상금, 2020 도쿄(東京) 올림픽 자동 출전권 한 장을 걸고 내로라하는 세계적 선수들이 격돌한 2018 우시(無錫) 월드 태권도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에, 장준(19·홍성고등학교)이 우승을 차지했다. 아직 약관도 되지 못한 홍안의 장준은 마지막 고교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대회에 출전한 14명의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금메달을 거머쥔 장준은 이 대회 3년간 누적 포인트 1위에게 주는 2020 올림픽 자동 출전권 레이스에서 선두로 올라섰다.

아울러 상위 랭커 5명에게 출전권을 주는 세계태권도연맹(WT) 올림픽 랭킹 남자 -58kg급서도 5위(2018년 12월 기준)권에 진입하며 선배인 올림픽 랭킹 1위 김태훈(수원시청)과 벌이는 경쟁에 속도를 붙였다.

슈퍼 루키 넘어선 장준, 2020 도쿄 올림픽은 꿈이 아니다

2018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World Grand Slam Champions Series)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닷새간(일수 기준) 중국 장쑤성(江蘇省) 남부 우시 타이후(太湖) 인터내셔널 엑스포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대회 준우승자이자 약 20일 앞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 벌어진 2018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시드 2번을 받아 남자 이번 대회 -58kg급에 출전한 장준은 확실한 존재감을 입증했다.

여느 대회에서처럼 장준의 센스 있는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 같은 체급 선배인 김태훈이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오른발 압박을 통



바 있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대였다. 세이갈라니에게 리드를 내준 상황에서, 장준은 감점 유도과 주먹 공격으로 동점을 만든 뒤 3회전 종료 직전에 자신의 장기인 왼발 머리 공격을 성공해 역전을 일구며 라운드 스코어 2:1로 승리했다.

장준은 준결승전서 김태훈을 물리친 중국의 량위샤이와 결승전에서 격돌했다. 1회전부터 자신의 주특기인 왼발 머리 내려차기로 라운드를 가져온 장준은 2회전서도 왼발 머리 내려차기로 역전을 만들어 냈다. 이어 3회전서는 무승부 전략으로 상대의 허점을 만든 후 보기 좋게 주먹 공격으로 대미를 장식하며 라운드 스코어 3:0의 깔끔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체육대학교로 진학하는 장준은 지난해 8월 모스크바 월드 그랑프리 2차 대회와 11월 푸자이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이미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이제 장준에게 도쿄 올림픽 출전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형 '들소' 남궁환, 가능성은 살아 있다

한국형 '들소' 남궁환(한국체대·올림픽 랭킹 53위)은 남자 -80kg급 올림픽 랭킹 1위인 러시아 막심 흐람트코프와 결승 설욕전을 성사시켰다. 지난 대회에서, 2016 히우(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코트디부아르의 세이크 살라 시세를 제압하며 박력 있는 경기로 결승전에 오른 남궁환은 흐람트코프와 2분 5회전 경기를 펼쳐 29:35로 패한 바 있다. 그렇지만 단신에도 불구하고 저돌적 몸싸움과 접근전 난타 몸통 공격으로 전 세계 태권도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취약 체급인 -80kg급 올림픽 출전의 불씨를 지폈다.

이번 대회에서도, 남궁환은 전형적인 저돌적 경기로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

전 상대인 흐람트코프는 지난해 로마 1차대회, 모스크바 2차대회, 그리고 타오위안(桃園) 3차대회까지 그랑프리 시리즈를 석권하고, 푸자이라 파이널대회에선 2위에 자리하며 절정의 기량을 이어 왔다.

두 선수의 결승전은 1회전부터 불꽃이 튀었다. 남궁환은 1회전서 강한 몸싸움 압박으로 흐람트코프를 감점 다섯 개의 반칙패로 몰아 라운드 스코어를 리드했다. 2회전서는 장신의 흐람트코프를 상대로 오히려 머리 공격으로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뒷차기 몸통 공격을 허용해 라운드를 내줬다. 3회전서는 흐람트코프의 현란한 왼발 머리 공격에 주춤하며 6:16으로 라운드를 다시 내줬다. 분수령이 된 4회전서는 6:1로 앞서던 중 방심하며 흐람트코프의 뒷차기에 잇달아 득점을 빼앗기며 6:9로 저 결국 라운드 스코어 1:3으로 설욕에 실패했다. 그러나 남궁환은 4회전 내내 저돌적 몸싸움과 투지 넘치는 경기력을 선보여 관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대회서 두 번 모두 2위에 그쳤지만, 남궁환이 내년 이 대회에서 1위를 하고 흐람트코프가 3위 이하로 떨어진다면, 2020 올림픽 자동 출전권의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다.

그랜드 슬램 누적 포인트 랭킹 1위, 올림픽 랭킹 5위로 올라선 장준이 우승 상금이 적힌 족자를 들고 있다.



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스타일이라면, 장준은 리드를 내준 상황에서 센스 있는 뒤차기 몸통 공격과 승부처에서 과감한 왼발 머리 공격으로 경기의 흐름을 자신에게 끌고 오는 영리한 플레이로 1위에 올랐다.

올림픽 랭킹 4위인 이란의 아르민 하디푸르 세이갈라니와 벌인 준결승전 격돌은 장준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세이갈라니는 지난해 10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2018 월드 그랑프리 3차대회 남자 -58kg급 결승전서 강력한 왼발로 김태훈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들의 부진 ... 변수는 달라진 경기 방식

지난 대회 우승자였던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 김태훈, 인교돈(한국가스공사), 김소희(한국가스공사)는 이번 대회서 수성에 실패했다. 변수는 라운드마다 승패를 정하는 달라진 경기 방식과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대회까지 숨차게 달려온 챔피언들의 누적된 체력 부담과 부상 등이었다.

특히, 이대훈의 준결승전 패배는 2016년 히우 올림픽 뒤 국제 대회 첫 패배로 기록되었다. 남자 -68kg급 올림픽 랭킹 1위 이대훈은 준결승전서 랭킹 7위인 영국의 브래들리 신든과 격돌했다.

모두가 이대훈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이변이었다. 이대훈은 신든의 왼발 공격에 역전을 허용하며 1회전을 내주었고, 2회전서는 4점 차 리드 상황에서 라운드를 지키려다 감점 두 개를 내준 데 이어 종료 2초를 남기고 상대의 왼발 머리 내려차기에 역전을 허용하며 라운드 스코어 0:2로 패하고 말았다. 올림픽 랭킹 1위 김태훈 역시 준결승전서 패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김태훈은 남자 -58kg급 준결승전서 랑위쉬이를 상대로 몸통 공격에서 고전하며 라운

드 스코어 0:2로 허무하게 졌다.

남자 +80kg급 결승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 인교돈(올림픽 랭킹 2위)은 2분 5회전으로 치러진 결승전서 랭킹 5위인 이란의 사자드 마르다니와 맞서 5회전까지 2:2로 무승부를 이뤘다. 그렇지만 골든 라운드에서, 인교돈은 몸통을 내주며 패하고 말았다. 인교돈은 16강전 부전승과 8강전 기권승 등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준결승전까지 오르는 행운을 누렸으나, 결승전서 지나치게 재는 경기를 펼쳐다져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여자 -49kg급에서는,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이자 올림픽 랭킹 2위 김소희가 8강전서 하민아(삼성에스원)를 맞아 발목 부상과 체력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골든 라운드서 패했다.

강보라의 분투 ... 비안카 워크덴, 대회 2연패 달성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 중 가장 큰 관심은 여자 -49kg급에 출전한 강보라(성주여고)에게 쏠렸다. 강보라는 지난해 11월 푸자이라에서 열린 세계 팀 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첫 경기서 코트디부아르의 루스 그바그비의 오른발 뒤후리기 얼굴 공격에 턱뼈가 골절되었다. 그랜드 슬램 예선전 1위로 출전

자격을 확보했지만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강보라는 결국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세계태권도연맹(WT) 의무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그만큼 강보라로서도 이 대회는 2020 올림픽 출전 가능성의 큰 분수령이었다.

준결승전 상대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8강전서 패한 바 있는 올림픽 랭킹 1위 태국의 빠니빱 왕빠따나깃. 강보라는 왕빠따나깃을 상대로 2회전까지 라운드 스코어 1:0으로 앞섰다. 그러나 2회전이 끝난 후 부상자들의 채점기 무선 오류가 발생하며 40여분 가까이 경기가 지연되었다. 컨디션 난조를 보이던 왕빠따나깃은 그 사이 체력을 회복했고, 골든 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강보라가 패하고 말았다.

준결승전서 패한 강보라와 김태훈은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졌다.

동메달 결정전에 나선 남자 -68kg급 이대훈과 여자 -57kg급 이아름(고양시청)은 승리하며 3위에 올랐다. 남자 -68kg급서는 랭킹 10위인 지난해 준우승자 중국의 자오샤이가 신든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여자 -57kg급서는 랭킹 11위인 중국 저우리준이 랭킹 1위인 영국 제이드 존스에게 라운드스코어를 역전시키며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이변을 만들

여자 -49kg급 준결승전은 강보라(왼쪽)와 왕빠따나깃(태국)의 라이벌전이었다.



남자 -68kg급 준결승전에서, 이대훈(오른쪽)이 종료 2초를 남기고 머리 공격을 허용하고 있다.



남자 -80kg급 결승전에서, 남궁환(오른쪽)이 머리 공격에 성공하고 있다.



었다. 여자 -67kg급서는 영국의 랭킹 5위인 로렌 윌리엄스가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 +67kg급서는 역시 영국의 랭킹 1위인 비안카 워크덴이 2연패를 달성했다.

변수 많았던 그랜드 슬램, 라운드 방식의 장단점

2017년 창설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본선 대회는 올해 대회부터 경기 방식을 바꾸었다. 지난해는 ▲남자부의 경우 준결승전까지 2분 3회전, 결승전과 동메달 결정전은 5분 3회전으로 ▲여자부의 경우 2분 3회전으로 결승전까지 모든 경기가 치러졌다. 그러나 올해는 ▲남자부의 경우 준결승전까지 3라운드 승패(Best of Three Rounds), 결승전과 동메달 결정전은 5라운드 승패(Best of Five Round) 방식 ▲여자부의 경우 3라운드 승패 방식으로 치러졌다.

3판 2선승제와 비슷하나, 엄밀히 구분하면 세 번의 라운드를 펼쳐 가장 많은 승리 라운드를 가져가는 선수가 이기는 방식이다. 한 회전에서 감점을 다섯 개 받거나 득점 차가 20점이 날 경우에는 회전 종료와 관계없이 라운드 승패가 결정된다. 무승부일 경우 골든 라운드로 승자를 가린다. 골든 라운드에서는 득점이 나지 않을 경우 유효타 우선순위가 아닌 전 회전 감점 합산 방식으로 승자가 결정된다.

기존 방식과 다른 형태로 경기가 치러지면서, 변수는 많아졌다. 우선 체력으로 상대를 압박해 승리를 가져갔던 상위 랭커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아변이 벌어졌다. 경기 방식의 특성상 매 회전 승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체력의 우위보다는 단발성 특점력이 강한 선수들이 유리했다. 특히, 긴장감과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동작이 커지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더욱이 푸자이라 파이널대회까



그랜드 슬램 2연패를 달성한 비안카 워크덴이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그랜드 슬램 대회가 열린 타이후(太湖) 인터내셔널 엑스포센터.

지 강행군해 온 상위 랭커들의 경우 누적된 체력 부담과 부상으로 말미암아 고전한 반면, 이 대회를 준비해 온 일부 하위 랭커들이 유리한 조건이었다.

더불어 앞발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단발성 뒷발 몸통 돌려차기의 기본기가 있는 선수들에게 밀리는 경기가 선보여진 반면, 일부 여자 선수들의 앞발 위주 경기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일단 점수를 댄 후 라운드 승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월드 그랜드 슬램, 자금력과 시장성으로 메이저 대회 발돋움

월드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는 2017년 말 창설되었다.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파격적 변화를 예고하며 대회가 창설되었다. 매해 총상금 76만 달러(약 8억 5,120만 원)가 걸려 있다.

태권도 중계방송 콘셉트에 맞춰 전용 경기장을 만들었고, 사전 홍보 단계에서부터 기존 태권도 경기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적지 않은 미디어 인력이 대회 전부터 투입되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우시와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대회 현장에도 투입된다. 대회를 창설한 투자 전문 회사는 첫 대회 성공과 함께 지난해 여름 태권도센터까지 만들

었으며, 중국 태권도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여기에 태권도 외에도 타 종목 국제 대회 유치를 통해 중국의 스포츠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중 소비 시대로 급격하게 들어선 인구 약 14억 명의 중국이 스포츠 마케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태권도가 우시에서 그 첫발을 먼저 댄 것이다.

대회 참가 자격은 메이저 대회 우승자, 올림픽 상위 랭커, 그리고 예선전을 거쳐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어진다. 이들은 시드를 받아 출전한다. 출전 선수 수는 첫 대회 체급별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그랜드 슬램 누적 포인트를 별도로 만들어 본선 1위 1,000점, 예선 1위 120점을 각각 배정해 3년간 누적 포인트를 통해 도쿄 올림픽 자동 출전권까지 한 장 배당하면서 단숨에 메이저 국제 대회로 부상했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 WT 올림픽 랭킹 6위까지 주던 올림픽 자동 출전권이 한 장 줄었고, 한 선수가 두 장의 티켓을 모두 딸 경우 올림픽 랭킹 6위 선수가 5위 자격으로 자동 출전권을 승계한다. 단, 올림픽 자동 출전권은 원칙적으로 선수가 아닌 국가 협회(NMA)에 배정된다.

중국의 태권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국내에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어쨌든 우시가 도쿄 올림픽 이후 2021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유치하면서, 향후 수년간 태권도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

태권도,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다

글 고진현 사진 삼성전자 제공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꺼림칙한 징후가 여기저기서 감지된 터라, 이를 잠재울 수 있는 소식은 마치 복음과도 같았다. 벼랑 끝에 몰렸던 태권도가 굵은 동아줄을 붙잡았다.

태권도를 벼랑 끝에서 살린 구원의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삼성전자의 올림픽 글로벌 후원사인 TOP(The Olympic Partner) 계약 연장이다. 삼성전자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TOP 계약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직접 내한해 계약식에 참석할 정도로 상징성이 컸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였던 TOP 계약 기간을 2028년까지로 연장했다.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IOC도 굴지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TOP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반갑다. 최근 올림픽 유치 경쟁이 급박한 데다 올림픽 흥행 또한 추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삼성전자가 TOP 계약을 연장한 사실은 올림픽 마케팅이 아직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부족함이 없었다.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이 태권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제 스포츠의 변화하는 지형과 트렌드를 파고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의 전통 격투 종목인 태권도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굳건히 버텨 내기 위해선 비밀 언덕이 필요하다. TOP 멤버로서 삼성전자가 갖는 권위와 지위는 태권도의 든든한

방패막이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태권도를 둘러싼 국제 외교의 파열음

태권도가 위기 상황에 내몰린 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실질적 문제였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남달랐다. 세계태권도연맹(WT)이 심혈을 기울였던 두 개의 종합 대회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서 빠진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었다. 승승장구하던 태권도 외교에 급제동이 걸린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충격은 컸다. 초대 대회인 2019 월드 비치게임 정식종목과 제2회 대회인 2019 민스크 유러피언게임 정식 종목에서 태권도가 잇달아 제외되면서, 태권도의 국제 외교 파열음은 심상치 않게 다가왔다. 특히 유러피언게임에서 정식 종목 탈락은 뼈아팠다. 초대 대회였던 2015 바쿠 유러피언게임 정식 종목으로 당연히 채택됐다가 2회 대회에서 빠진 건 가

타테의 정식 종목 유지와 맞물려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WT는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태권도의 유러피언게임 정식 종목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림픽 개최지 다변화 경향에 따른 태권도의 위기

태권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사실은 급변하는 국제 스포츠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IOC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올림픽 개최지의 다변화다. 이제 선진국 중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향후 개발도상국 가운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있어야, 올림픽 무브먼트는 지속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올림픽 핵심 종목(Core Sports)이라는 틀에서 정식 종목이 규정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개최국에 유리한 종목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탄력성 있게 채택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라야 인기가 떨어진 올림픽 개최 열기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OP 연장 계약을 체결해 2028년까지 올림픽 무선 통신 분야 글로벌 스폰서십을 유지하게 됐다. 왼쪽부터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 대표이사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다케다 쓰네키즈 IOC 마케팅위원장.



따라서 기존의 올림픽 종목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 2000 시드니 올림픽부터 2024 파리 올림픽까지 7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태권도 역시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경쟁 종목인 가라테가 2020 도쿄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진입한 데다 그 다음 2024 올림픽 개최지가 프랑스 파리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파리는 가라테의 유럽 본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정보와 국제 스포츠 환경 및 지형 변화를 종합해 볼 때,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과 권위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두 개의 종합 국제 대회 정식 종목에서 잇따라 빠진 데다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폐쇄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개방적 트렌드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권도로선 결코 가볍게 넘겨 버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TOP 연장 계약과 태권도의 상관관계

태권도를 둘러싼 국제적 지형과 트렌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은 큰 힘이 됐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TOP에서 손을 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해 태권도계로선 적잖이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 건은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결정이라, 태권도계로선 병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끓였다. 주위의 예측을 깨고 삼성전자가 TOP 계약을 연장하면서, 태권도는 든든한 방패 하나를 움켜쥐게 됐다. 그러나 태권도계는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에 안도할 게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WT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스폰서십 체결이 태권도가 국제 스포츠계에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WT는 부영이 글로벌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 스포츠 기구(IF)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뒷줄 기업이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WT는 2015년 부영과 6년간 총액 1,0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2억 5,600만 원)의 스폰서십을 체결했지만, 이종근 부영 회장이 최근 탈세와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라 미래는 불투명하다.

WT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이 걸으려는 태권도와 별 상관성이 없는 것 같으나, 내밀하게 파고들면 그렇지 않다. TOP 지위를 얻게 되는 기업은 올림픽 전 종목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마련이다.”라고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을 환영했다. 태권도가 IOC 내에서 지위가 흔들릴 때, IOC의 막강한 스폰서인 삼성전자를 통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만큼, IOC의 재정 뒷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태권도가 비빌 수 있는 언덕으로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TOP 연장 배경 및 태권도의 근본적 처방

TOP 기업은 IOC에 4년마다 1억 달러(약 1,125억 6,000만 원) 정도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은 마케팅 효과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직격탄을 맞았던 삼성으로선 스포츠와 관련해 잇따라 손을 떼는 추세였고, 이에 따라 TOP에서도 물러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불어닥친 데탕트 무드는 새로운 스포츠 지형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2032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동시 개최 의사를 표명하면서, IOC 내에서 삼성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

다. 삼성 측은 기업이 정부의 어젠다에 어깃장을 놓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양새는 한국적 정서에선 맞지 않다고 보고 최근 맘을 바꿔 TOP 연장 계약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의 TOP 연장 계약에 알게 모르게 정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통신 분야에서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도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의 무시하지 못할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후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무선통신 분야 TOP를 내놨다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빈자리를 노리고 들어왔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 경우,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은 급추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국제 스포츠 외교력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 IOC 위원도 유승민 선수 위원 혼자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IOC 후원마저 중단되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게 뻔하다. 이런 결과는 삼성전자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TOP 연장 계약은 이렇듯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TOP 계약 연장은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호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사실을 태권도의 위기를 해결하는 결정적 열쇠로 받아들이는 곤란하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두 가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적이다.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스폰서십의 유치와 취약한 미디어 노출 개선 문제가 태권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개의 숙제다. 취약한 미디어 노출도 따지고 보면 재정 문제와 직결된 만큼, 태권도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WT 위상에 걸맞은 든든한 재정 뒷줄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

용담검무 전수자 장효선

목검으로 춤추는 용담검무 ... 동학 교도들의 열이 서린 전통 무예

글·사진 이길우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칼은 쇠로 만든다. 인간이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먹잇감을 취하거나, 다른 인간을 공격하거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한 칼은 대부분 쇠로 만든다. 예로부터 그랬다. 그래야 다른 사물을 벨 수 있기 때문이다. 충격에 잘 견뎌 칼날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느냐가 명검(名劍)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잘 만든 칼은 다른 칼을 자르기도 한다. (아! 칼이 칼을 자르는 것은 무협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우리 조상은 쇠가 아닌 목검을 갖고 수련했다. 아예 쇠로 만든 칼을 만지지 않았다. 쇠가 없어서일까? 아니다. 목검으로 수련하다가 쇠로 만든 진검을 쥐기 마련인데, 그들은 결코 쇠로 만든 칼을 손에 잡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나무로 만든 칼로 수련하다가 그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바로 수운 최제우(1824~1864)다. 동학의 창시자이다.

그와 동학교도들은 목검을 쥐고 칼춤을 추면

서 노래를 불렀다. 그가 부르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된다.

“시호시호(時呼時呼) 이내시호(以乃時呼)/부재래지(不來來之) 시호로다/만세일지 장부로서/오만년지 시호로다/용천검 드는 칼을/아니 쓰고 무엇하리...” 지금말로 해석하면 이렇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다시 못 올 바로 이때이다. 수만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때, 대장부로 태어나 용천검을 쓰지 않을 수 없도다.” 힘이 넘친다. 기개도 살아 있다. 혁명의 기운이 팽팔하게 살아 있다.



동학 창시자 최제우가 추던 칼춤

지금부터 155년 전 동학을 창시했다가 역모에다 흑세무민(感世誣民)했다는 죄로 사형을 당한 수운. 당시 그를 심문한 관리는 수운에게 칼춤을 더는 추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운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며 굴하지 않았다. 결국 수운은 죽었고, 수운으로부터 칼춤을 배웠던 동학교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숨어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칼춤을 추었다. 칼춤에 대한 기록도 거의 사라졌다.

관리가 수운에게 칼춤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이유는 이 칼춤으로 심신을 단련해서 무장을 한 뒤에 조정에 반기를 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학교도가 추었던 칼춤이



에, 목검의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 당시는 대포와 총 등 첨단 무기를 앞세운 서양의 제국들의 동양에 대한 침략의 시대였다. 그런 외세와 싸워야 했다. 목(木)은 동(東)을 의미했다. 쇠는 금(金)으로 서(西)를 의미했다. 그러나 쇠로 만든 진검이 아닌 동방을 뜻하는 목검을 사용했을 것이다. 더 깊은 의미는 인간

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동학사상을 신봉하기에 인명을 살상하는 쇠칼을 멀리 했을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인본주의 사상과 시대적 변화를 주장하는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정신이 수운의 칼춤에 담겨 있다. 기울어져 가는 조선 말기, 조선의 운명을 걱정하며 달빛 아래 목검을 쥐고 칼춤을 추었

을 수운의 고민과 나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고조부로부터 내려온 '용담검무' 전수자인 태권도 5단 장호선 씨

형장의 이슬로 수운이 사라지며, 그 자취가 거의 사라진 동학교도의 칼춤이 부활한 것

은 오로지 장호선 씨(62)의 노력 때문이다. 장 씨는 그 칼춤에 용담검무(龍潭劍舞)라는 이름도 붙였다. 용담은 수운이 동학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던 경주 구미산에 있는 정자(용담정)에서 따왔다.

장 씨는 일곱 살 때부터 아버지 목마를 타고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한다. 장 씨의 가계를 살펴보자. 장 씨의 고조 할아버지 장남진(1817~1883)은 남원에서 목수 일을 했다. 수운이 동학을 일으켰다가 조정의 수배를 받고 남원 땅에 도피해 와서 은거할 때, 고조부는 수운과 동학교도가 쓰는 목검을 깎아 주었다고 한다. 그런 인연으로 고조부는 수운으로부터 칼춤을 배웠다고 한다. 이런 인연으로 동학교도로 입교했다. 그리고 칼춤은 그의 아들 장수만(1852~1931)에게 전수됐다. 또 그의 아들 장영철(1923~1980)에게 이어졌다. 장영철은 소리꾼으로 마을에 초상이 나면 구슬픈 소리로 망자와 유족을 달래줬고, 마지막을 멋들어진 칼춤으로 장식했다.

그런 장영철이 바로 장 씨의 아버지다. 아버지한테서 어릴 때부터 목검으로 추는 칼춤을 배운 장 씨는 자신이 추는 칼춤이 민족의 설움을 오롯이 담고 있는 동학의 칼춤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한다. 태권도 5단의 실력을 기반으로 20대부터 무예 시범단으로 활약한

장 씨의 특기는 젊은 시절부터 칼춤이었다. 그의 칼춤은 다른 칼춤과는 전혀 다른 리듬과 동작을 갖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칼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막대기를 들고 익혔어요. 나도 모르게 칼의 리듬이 제 몸에 입력됐어요. 그리고 그 칼춤이 수운의 칼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는 목검을 들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동작이 나왔다고 했다. 그가 추는 칼춤이 수운의 칼춤이라는 것을 처음 알아본 이는 한양원(1924~2016) 민족종교협회 회장이다. 생전의 한 회장은 어릴 때 선국사 스님으로부터 남원의 교룡산성에서 동학교도들이 칼춤을 추며 노래 부르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장 씨의 칼춤을 보고 수운의 칼춤과 비슷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인연으로 천도교에 입교한 장 씨는 그 후 25년 동안 용담검무의 계승과 복원에 힘을 쏟았다. 그는 계승과 복원을 반반씩 혼합해 모두 105개의 연속 동작으로 용담검무를 완성했다.

수운이 퍼려 했던 무극대도의 진리가 칼춤으로 승화

기본 자세는 지기(至氣)로 시작한다. 동학의 21자 주문이 17개 동작으로 표현된다. 새벽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은 가운데, 힘차게 용이 비상하듯 목검을 회오리치며 올렸다가 단전으로 깊고 무겁게 끌어당긴다. 금지(今至)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 위로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는 모습이 표현된다. 자리를 박차고 석양에 솟구쳐 비상하는 커다란 봉황의 강렬한 기운도 등장하고, 마른 나무에 불을 붙여 불의 힘으로 마음의 때를 모두 씻어 내는 동작도 이어진다.

새벽의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는 무거운 침묵의 기운을 표현하는 시(侍)에서는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 형상이 목검으로 표현된다. 세상을 향해 장부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본능이 일어나고 용단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알게 된다. 검을 위로 틀어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고, 왼쪽으로 검 끝을 밀어냈다가 다시 휘저어 들어 올렸다가 내린다.

이어 뜻 높은 선비가 심산유곡에서 밝은 달을 쳐다보는 형상으로 칼춤으로 구현된다. 목검을 들어 올렸다가 깊게 찔러 내린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총명한 희열이 넘쳐난다. 넓은 대지에서 풍요롭게 자라는 곡식의 기운은 하늘의 비와 이슬이 생명을 일구어 내는 형상이다. 검을 힘차게 앞으로 밀어 뿌리고 그 탄력으로 좌우로 돌며 검을 끌어안아 낚아챈다.

용천검을 드는 동작은 해와 달의 기운을 한





껏 폼는다. 새벽을 위한 용기와 결단을 갖고 마치 용이 하늘로 오르듯 좌우로 돌며 검을 거침없이 휘두른다. 마무리는 온 세상이 꽃향기로 가득 찬 봄이다. 수운이 퍼려고 했던 무극대도(無極大道)의 진리가 세상 사람을 일깨웠다. 절정에 달한 몸의 기운으로 양팔을 펴 세 바퀴를 돌아 회오리치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 왔음을 알린다.

용담검무가 예술로 승화되기 위해선 호흡이 중요

달이 밝은 밤이면 동학교도들은 산에 올라 하늘에 제를 지내다가 종교적 의식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모두 목검을 손에 쥐고 검무를 추며 갈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수운은 비록 목검으로 칼춤을 추었으나, 칼의 노래(劍訣-검결)는 칼을 통한 변혁과 구체제와의 일전을 준비한 셈이다. 동학은 민

족의 앞날을 열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 검결에 동학의 이념과 정신을 새겨 넣어 동학교도들이 비밀결사하고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실제 갑오 농민전쟁 때 이 검결은 군가로 불리기도 했다. 수운이 칼춤을 춘 기록은 최초의 동학관련 역사서인 『도원기사』에 “또 검결을 지었고(又作劍訣)…”라는 표현이 있고, 천도교 창건사에는 “수운 선생이 관의 지목을 피해 전라도 남원 교룡산성 안에 있는 은적암에 머물러 있을 때, 도력이 나날이 충만해서 그 기운을 받아 달이 밝은 밤이면 산 정상에 올라 검가를 부르며 검무를 추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2015년 ‘용담검무의 춤사위와 검결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장 씨는 명지대 사회교육원 교수기도 하다. “수운 선생의 검무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용과 실제 전투용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동학교도에게 미래 유사시 혁명에 필요한 무사로서의 자질

을 갖추도록 했다.”라고 말한다. 수운의 칼춤 복장은 유학자의 복식이다. 양반가 신분이었던 수운은 미색의 저고리 바지에 옥색 도포를 입고 칼춤을 추었다.

그는 전통무예인 용담검무가 예술로 승화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선 호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 충분히 들이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자연호흡은 몸과 검이 좌우로 회전하거나 연속 동작을 할 때 사용한다. 강한 힘을 내는 동작에선 양(陽)의 호흡을 한다. 이 호흡은 코로 충분히 들이 마신 뒤 3분의 1을 입으로 내쉬고 동시에 단전을 등쪽으로 끌어당기며 호흡을 멈춘다. 강한 기운이 단전에 모인다고 한다.

음(陰)의 호흡법도 동시에 익힌다. 코를 통해 숨을 3분의 2정도 들이 마시며, 동시에 단전을 등쪽으로 잡아당기며 호흡을 멈춘 뒤 뱀뱃이 다시 내쉬는 호흡법이다. 주로 순발력과 정확하고 빠른 동작에서 사용한다. ●

『태권도』 선정 ‘12월의 선수’ 장준

“나는 2020 도쿄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다.”

글 류호경 사진 양택진



우시 그랜드 슬램 남자 -58kg급 장준(왼쪽)의 준결승전 장면.



우시 그랜드 슬램 남자 -58kg급 장준(왼쪽)의 결승전 장면.

바야흐로 장준(홍성고)의 전성시대다. 기세가 심상치 않다. 올림픽 드라이브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꿈만 같았던 도쿄 올림픽은 어느새 현실로 다가왔다. 『태권도』는 12월에 가장 활약이 두드러졌던 선수로 종가 태권도의 ‘셋별’ 장준을 선정했다. 지난 6, 7월의 선수로 선정된 지 두 번째다. 수많은 언론은 “무서운 고교생”이라고 그를 소개했다. 유난히 큰 무대에 서면 빛나는 선수, 전매특허인 왼발 내려찍기가 일품인 선수. 무서운 속도로 세계 태권도연맹(WT) 올림픽 랭킹 5위(2018년 12월 기준)를 꿰찬 장준의 마음은 도쿄로 향해 있었다. “올림픽 무대를 밟고 싶다.”라는 장준의 포부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슈퍼 루키, ‘태권도 종가’의 중심에 서다

주인공은 장준이었다. 지난해 12월 16일(현지

시각), 2018 월드 태권도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남자 -58kg급 결승전이 열린 중국 우시의 타이후 인터내셔널 엑스포 센터. 앞서 올림픽 랭커를 잇따라 격파한 장준이 상금 7만 달러를 놓고 중국의 량위쇄이와 맞붙었다. 상대는 랭킹 206위의 약체였지만, 준결승서 디펜딩 챔피언 김태훈(수원시청)을 꺾은 파란의 주인공이었다. ‘라운드(round)제’로 변경된 경기규칙이 장준을 더 긴장하게 했다. 김태훈을 라운드 스코어 2:0으로 꺾은 상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장준은 냉정했다. 1회전서 주먹공격과 주특기인 왼발 내려찍기로 득점에 성공하며 라운드 스코어서 1:0으로 앞서나갔다. 량위쇄이가 왼발 내려찍기에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장준은 2회전에서 재차 량위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미 라운드 스코어는 2:0으로 벌어졌다. 장준은 량위쇄이의 공격을

어렵지 않게 무산시켰다.

장준은 곧바로 다음 회전에서 경기를 끝냈다. 량위쇄이가 바쁘게 공격해 오자, 침착하게 오른 주먹으로 반격했다. 결국 결승전은 라운드 스코어 3:0으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중국 관중도 그를 인정하는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장준은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2018 시즌 그랜드슬램 우승자가 되었다. 매번 정상을 놓치지 않던 선배 선수들을 뒤로 하고 주인공이 되었다.

장준은 우승 직후 “작년에는 준우승을 해서 아쉬웠지만, 올해 1등을 해서 기쁘다. 도쿄 올림픽과 연관된 경기라 더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그랑프리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안전하게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도쿄 올림픽까지 마지막으로 남은 그랜드슬램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태권도』는 무술년(戊戌年) 마지막 달인 12월의 선수로 장준을 주저 없이 선택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모스크바 그랑프리시리즈 선배 김태훈이 갖고 있던 한국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며 그랑프리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이어 11월에는 전 세계 태권도 스타가 격돌한 푸자이라 그랑프리 파이널서 마침내 김태훈을 잡아내고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12월, 장준은 그랜드슬램 자체 랭킹 포인트 남자 -58kg급 1위로 올라서며 올림픽 자동 출전권 확보에 가장 가깝게 다가섰다.

올림픽 출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증거다. 물론 역대 전적에서 크게 앞선 김태훈이 버티고 있어 쉽지 않은 도전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아직은 김태훈이지.”라던 평가가 단 1년여 만에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제 둘은 한 점 싸움이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김태훈과 장준의 맞대결은 이제 ‘안갯속’이다.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내다

장준은 최근 꿀맛 같은 휴식기를 가졌다. 인천선수촌에서 퇴촌하자, 그의 스승인 송명섭 홍성고 코치가 지시를 내렸다. 송 코치는 “그랜드슬램 이후 훈련 명단에서 장준을 제외시켰다. 손가락 부상에다가 그동안 너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숨 돌릴 틈도 없었다. 휴식도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장준은 오랜만에 재충전을 했다. 그리고 다시 운동화 끈을 고쳐 맸다. 오는 2월로 예정된 2019 맨체스터 세계선수권 선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랭킹 포인트 120점을 부여하는 세계선수권은 올림픽을 향한 분수령이다. 장준 역시 세계선수권의 중요성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장준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고, 스키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정말 모처럼 만의 휴식



우시 그랜드슬램 남자 -58kg급 우승을 차지한 장준의 시상식 장면.

이었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었는데, 훈련을 하지 않아서 조금 불안하긴 했다.” 다시 훈련장에 복귀해 집중해야 한다. 세계선수권 대표선발전 때문이다.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뚜렷한 각오를 밝혔다.

장준이 WT 올림픽 랭킹 5위 이내로 진입하면서, 김태훈과 장준 가운데 누가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T의 규정은 이렇다. WT는 2020년 1월 올림픽 랭킹을 기준으로 상위 1~5위자에게 도쿄 올림픽 자동출전권을 부여한다. 현재 남자 -58kg급 랭킹 1위 김태훈, 그리고 5위인 장준 모두 규정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위자가 올림픽 자동출전권을 획득하는 건 아니다. WT가 상위 1~5위자 개인이 아닌 소속된 국가협회(NNA)에 올림픽 자동출전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김

태훈도, 장준도 자동 출전권의 주인이 아닌 셈이다. 제3자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도 있다. WT는 그랜드슬램 누적 포인트 1위자에게도 올림픽 자동 출전권을 준다. 역시 2020년 1월이 기준이다. 내년까지 한 번의 그랜드슬램이 남아 있다. 현재까지 남자 -58kg급 누적포인트 1위자는 장준이다. 역시 개인이 아닌 국가협회가 자동출전권을 갖는다. 최종적으로 올림픽 자동 출전권은 대한민국 태권도협회(KTA)에 넘겨진 셈이다.

랭킹 1위인 김태훈을 출전시킬 것인지, 현재 상황으로서 2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장준을 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내 선발전을 치를 것인지, 결정권은 KTA에 있다.

장준은 자신만만했다. 최근 한국체육대로 진학이 확정되었고, 내년 그랑프리시리즈, 하계 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 등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할 생각에 들뜬 표정을 지었다. 장준의 꿈은 확고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 올림픽 랭킹 5위로 올라온 만큼 순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재활을 병행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시즌이 시작되면 실 시간 없이 달려야 한다. 그러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지금은 해야 할 때이다.”

장준의 마라톤은 오늘도 순조롭다. 그래서일까. 올림픽 출전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

장준 2018시즌 성적	
2월	제23회 아시아 선수권 -54kg 국가대표 선발
5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58kg 2위
5월	제23회 아시아 선수권 -54kg 1위
7월	제주 코리아오픈 -58kg 1위
8월	모스크바 그랑프리 시리즈II -58kg 1위
9월	타오위안 그랑프리 시리즈III -58kg 3위
10월	제99회 전국 체육대회 고등부 -58kg 1위
11월	푸자이라 그랑프리 파이널 -58kg 1위
12월	세계 태권도연맹(WT) 올림픽 랭킹 5위
12월	우시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시리즈 -58kg 1위

‘중국몽(中國夢)’을 꿈꾼다

인천=글·사진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인천(仁川)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다. 부산이 가까운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으로 나가는 창구라면, 인천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으로 진출하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1981년에 인천이 직할시(1995년 광역시 개칭)로 승격되면서,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ITA·회장 이화현)는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독립됐다. 그 이후 17개 시도 협회 중에서도 서울·경기·부산 등과 어깨를 견주는 대형 협회로서, 대한민국 태권도 중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권도인 중에서, 인천이 배출한 인물은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만큼 현대 태권도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넓고도 깊다. 그 인천 태권도가 2019년을 맞아 한국 태권도계의 변화를 이끄는 기수로서 소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 변화란 무엇일까?

100% 순회 코치제 확립으로 인천 태권도 영광 재현하려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말, 인천 문학체육관 내에 자리 잡은 ITA를 찾아 이화현 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2016년 9월 통합 ITA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회장의 취임과 함께 인천 태권도의 순항이 기대됐다. 그러나 선거 절차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면서, 인천 태권도는 1년여 동안 내홍을 겪었다. 이 회장의 당선에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치러졌다. 마침내 2017년 11월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이 회장을 대체할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단독



인천 실버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 공연을 펼치고 있다.

후보로 출마한 이 회장이 28명의 선거인 중 23명의 찬성을 얻어 회장으로 다시 당선되면서, 비로소 ITA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당시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표류가 개혁의 목소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ITA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년이 흘렀다. 안정을 되찾은 ITA와 인천 태권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또 이 회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 회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점은 학교 태권도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00% 순회 코치 달성이다. 교육청에서는 순회(전임) 코치 제도를 통해 체육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

지도자 가운데 아직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가 많다.

“인천에는 43개 초·중고에 지도자가 있는데, 내가 취임할 당시 이들 중에서 16.8% 정도가 순회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지도자 모두가 순회 코치로서 안정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타격을 맞았다. 이번에 5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이제 겨우 50%를 넘겼다. 이러한 일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 지난 1년여 동안 시의원, 특히 교육위원들을 만나서 체육 발전을 위해 순회 코치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다. 그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초에는 추가로 5명이 순회 코치가 될 전망이다. 내년 말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ITA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주축해서 이 일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우리나라 태권도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의

권도 활성화다. 이 회장은 이를 밝히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실버 태권도는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또한 노인 건강은 곧바로 의료 수가가 낮아지

에 인천에서 실버 태권도 전국대회를 열려고 준비 중이다. 우선은 각 구별로 태권도를 통해 실버 태권도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만들고 후반기에 전국 규모 대회를 열려고 한다.”

또 다른 열정의 과녁, ‘중국몽(中國夢)’

ITA는 중국을 또 다른 과녁으로 삼고 이에 적중하려 애쓰고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창구로서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많은 인연이 있다. 그 중국을 ITA가 주목하고 있다. 왜 중국인가? 이 회장은 소신 있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지역 10개 이상 중·고교에 태권도부를 창설해 수십 년 동안 지도자로서 활동했다. 많은 제자를 한국체육대학교, 경희대학교, 용인대학교 등 내로라하는 태권도 명문 대학교에 진학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회의가 들기도 한다. 대학만 진학하는 게 다가 아닌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자가운데 대학교수도 여러 명이 있다. 그 교수들에게 제자의 진로에 대해 물어봤다. ‘제자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뭐하는가?’ 그러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제자도 많다.’ 대답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대답하더라. 지금 태권도 박사가 수백 명이 넘게 배출되었다. 그들이 앞으로 다 대학교수를 할 수 있을까? ‘뭐하려 하느냐?’는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태권도인이 막상 일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국내에서 사범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꿈꾸지만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이기도 하다. 미국 못지않게 ‘뜨는 시장’이 중국이라는 점을 많은 태권도인이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진출 역시 쉽지 않은 않다고 한다. 왜 그럴까?



인천 실버 태권도 시범단원이 격파 실력을 뽐내고 있다.

안정된 생활이 전제되어야 이룰 수 있는 과제 때문이다.”

스스로가 인천을 대표하는 경기 지도자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치 많은 학교의 태권도 팀 창단을 주도했을뿐더러 문대성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인천 태권도의 산증인인 이 회장의 말이다. 화려한 인천 태권도의 영광은 안정된 순회 코치 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는 이 회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실버 태권도 활성화, 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다”

ITA가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실버 태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도장에서 하는 태권도를 노인에게 ‘이식’한다고 해서 바로 실버 태권도가 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음악과 노래와 함께 태권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반 도장에 있는 20~30대 사범이 아니라 은퇴한 60대 이상의 태권도인이 사범으로서 적당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면 은퇴한 태권도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실버 태권도의 문제 역시 인천 태권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하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그래서 2019년



이화현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이 중국진출이란 목표를 힘껏 밝히고 있다.

“첫 번째는 돈이다. 즉, 급여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우수 대학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에 사범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겠나? 그 금액은 한국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액수인데, 중국에선 그 금액을 맞춰 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중국 현지 태권도 사범 가운데엔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태권도인

이 중국 진출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한국 태권도 사범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인지…

“이렇게 말하면 국내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들한테서 욕먹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꼭 국내 대학 진학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차피 국내 태권도 시장이 포화됐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학과 졸업생을 수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또 그러한 내용을 우리 지도자가 알고 있다면, 제자에게 꼭 국내 대학 진출을 권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중국으로 진출해 거기서 대학도 진학하며 태권도 사범으로서 경력도 쌓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는 뜻이다.” 이미 ITA는 중국의 몇몇 지역 태권도협회 및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막연히 ‘중국 진출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중국 현지의 지역 협회 및 단체와 협약을 통해 한국의 젊은 태권도인이 중국에서 안정적·미래 지향적으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중국 태권도 인구를 3,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산아 제한을 철폐해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말 그대로, 중국 태권도 시장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중국에서 태권도에 대한 수요는 많아도 정통 태권도를 익힌 사범은 극히 적다. 우수-킵복싱 같은 다른 무술을 한 지도자가 흥내만 내어 태권도장을 연 경우도 많다. 그래서 한국의 정통 태권도 지도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어린 태권도인들이 좁은 한국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넓은 중국에서 태권도인으로서 꿈을 펼칠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싶다.”

인천 태권도를 대표하는 이 회장의 ‘중국몽(中國夢)’이라고 할 만하다. 이 회장의 중국몽이 성공적 결과를 낳으면, ITA는 한국의 한 지역 협회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협회로서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

ITA 임원진.



어린이 꿈 키워 나가는 태권도 ‘젓줄’ 연맹

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1974년 창설된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KETF·회장 송재승)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산하 경기 연맹체로서,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며 경기력 향상을 꾀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KETF는 그동안 태권도를 통해 꿈나무 어린이를 키워 나가는 ‘젓줄’ 역을 톡톡히 수행했다. 하지만 상위 단체인 KTA와 ‘엇박자’를 내곤 했다. 2006년 10월, KTA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심사권 파문을 일으킨 KETF를 퇴출시켰다. 안건으로 상정된 ‘KETF 탈퇴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참석 대의원 24명 중 찬성 22표(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KTA 창립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KTA가 KETF 탈퇴를 강행한 건 KETF가 사단법인체로 전환한 후 국기원과 KTA의 승인도 없이 심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KTA는 당시 KETF 탈퇴 강행 이유에 대해 “KETF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및 규모가 산하 단체로서 부적합하고, KTA 산하 단체로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승인하지도 않은 심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리 단체 오명 씻고 5년 만에 재출범

2010년 9월, KTA 운영이사회는 초등사업관리위원회에 KETF 재구성 준비에 따른 권한을 위임했다. 4개월 뒤인 2011년 1월 KTA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는 KETF 구성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이로써 KETF는 관리 단체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재출범했다. 이현부 초등사업관리위원장이 회장에 추대됐고, 노현래

KTA 기술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무이사를 맡았다.

KETF는 이사회를 열고 회원 단체 및 대의원 자격을 논의하고, 도장과 학교로 이원화된 초등학교 팀 현실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회원이 정당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이 회장은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우리 KETF가 태권도의 뿌리로서 제 몫을 다해 어린 선수들의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송재승 회장, “재정 자립에 힘쓰겠다”

이현부 회장 체제는 5년 동안 별다른 잡음 없이 목적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거뒀다. 이런 가운데, 2016년 7월 송재승 후보가 KETF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 ▲ 대회 중계방송을 통해 초등대회 활성화
- ▲ 초등대회 장기 유치 MOU(양해각서) 체결

▲ 우수선수과 지도자 포상 ▲ 초등학교 신규 팀 창단 적극 지원 ▲ 외국 팀 및 인적 자원 교류 추진 ▲ 임기 내 12세 이하 친선 국제대회 국내 개최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건 송 후보는 66:21의 큰 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됐다. 송 회장은 “강한 KETF를 만들기 위해 연간 2,000만 원의 개인 출연금을 내고,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는 부회장 5명을 구성해 KETF 재정 자립에 힘쓰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의지로 출범한 송 회장 체제는 1년 동안 순항했다. 2017년 5월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카펫 선수권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때엔,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된 18명에게 메달·상장과 함께 기념 피켓을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문구가 새겨진 피켓은 응원하러 온 가족끼리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추억을 쌓으면서 SNS로 전파되어 새로운 시상 문화라는 평가도 받았다.





공금 유용·횡령 파문에 격랑

그러나 2017년 여름, KETF는 J 전 사무국장의 공금 유용·횡령 파문으로 격랑에 휩싸였다. 2011년 KETF가 재건됐을 때부터 재정을 담당해 온 J 전 국장이 7개월 동안 1억 2,000만여 원을 빼돌려 해고되며 검찰 수사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KETF 자체 감사 결과, 횡령 금액은 2억 2,000만 원에 달했다. J 전 국장은 이 중 국고 지원금 7,000만 원을 포함해 1억 2,000만여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J 전 국장은 서류상 거래 업체에 돈을 보낸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뒤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KETF 운영비와 국고를 빼돌려 사용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송 회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화에 나섰다. 송 회장은 그해 8월 27일 태권도원 나라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사무국장 공금 횡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근 부회장 제도를 폐지했다. 이날 송 회장은 KETF 정상화를 위해 7,000만여 원의 태권도진흥재단 미정산 및 횡령 금액을 사비로 책임지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약속했다.

송재승 회장, KETF 정상화에 전력

2017년 11월 6일 강원도 화천 실내체육관 귀빈실엔, 정적이 흘렀다. 우여곡절 끝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마쳤으나, 송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만지며 입술을 깨물던 송 회장은 “아주 많은 일이 있어서 소감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쉽지 않은 총회였다.”라며 입술을 떨었다.

되돌아보면 그해 7월부터 4개월간 송 회장은 그야말로 실망과 낙담, 긴장과 초조, 고심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공금 횡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무국장을 파면한 송 회장은 3개월 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KETF 정상화를 위해 7,000만여 원에 달하는 미정산과 횡령 금액을 사비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승부수’를 던진 바 있다.

승부수는 회장을 제외한 전 임원 해임의 건이었다. 이 안건을 토대로 재신임을 받아 리더십을 회복한 후 다시 임원을 선임하고 조직을 정비해 KETF를 정상화하려는 마음에서 꺼낸 비장의 카드였다. 규약에 없던 상근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긴 했어도 만족하기 힘들었다.

송 회장은 흐트러진 KETF를 정상화해서 공약이었던 자생력을 키우려면 명예직 또는 무늬만 회장이 아닌 ‘실무형 회장’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야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회장직을 수행하며 KETF 발전을 위한 동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송 회장의 이 같은 의지는 지난해 9월 초 경남 함양에서 열린 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초등학교대회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송 회장은 “선발전과 공식 대회 세 개를 빼고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한 개 대회를 더 개최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올해에 기필코 이루려 무리하지 않고

송재승 KETF 회장





내년에 추진하겠다. 선수의 기본기를 강화하기 위해 A리그에서도 일반 호구를 사용하는 것을 지도자들과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한 달 뒤인 2018년 10월, 송 회장은 KETF 조직을 튼튼하게 다지고 행정 실무를 강화하기 위해 승부수를 또 던졌다. 인적 쇄신 차원에서 사무국을 정비하고 권태구 씨(전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를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권태구 씨는) 참 훌륭한 분이다. 내가 필요해서 도움을 청했다.”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KETF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며 KETF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송 회장은 곧 정식 회의를 거쳐 권 본부장을 상근 임원으로 위촉해 자신을 보좌케 할 생각이다.

어린이 대회 활성화 방안 강구

현재 KETF는 어린이 대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KETF는 일선 태권도장 수련생이 품새와 B리그 겨루기 경기에 많이 참가하도록 힘써 왔다. 하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초등부 어린이가 정체되거나 눈

에 띄게 늘어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본부장은 “KETF가 주최하는 한 대회에 보통 1,000~1,300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2,000명은 되어야 한다. 태권도장 초등부 수련생을 대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초등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원(선수)은 충분한데,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해내야 할 제도적 당면 과제를 제기했다.

2016년 7월 개정된 KTA로부터 승인받은 KETF 규약 제1장 제2조를 보면, “KETF는 KTA의 ‘전국 규모 연맹체 조직 및 운영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태권도 종목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 KTA와 초등학교 태권도 종목에 관한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약 내용과 관련, 권 본부장은 “KETF가 ‘초등학교 태권도 종목에 관한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KETF를 거치지 않고 각 대학이 주최하는 총장기 대회와 여성연맹 대회에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건 규약상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본부장은 “초등학생 참가 종

목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갖고 있는 KETF의 승인도 없이 각 대학과 여성연맹이 초등학생을 자체 대회에 참가시키는 건 장삿속이며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이런 내 주장에 송 회장님도 생각이 확고하다.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송 회장과 구체적으로 상의한 후 KTA에 이 현안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ETF 규약에 명시된 초등학교 태권도 종목에 관한 독점적 교섭권에 대해 KTA, 각 대학, 여성연맹이 어떻게 법리 해석을 할지 주목된다.

B리그 캐릭터 호구 사용 긍정 검토

KETF가 주최하는 대회의 참가 자격은 KETF에 단체 가입을 한 팀의 선수와 준회원 가입을 한 선수다. 겨루기 B리그는 당해 연도 선수 등록 미필자로,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해당 학교(단체) 재적 기간이 최소 1개월이 경과해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속에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초등학교대회 때 438명이 참가한 겨루기 B리그가 열렸다. KETF는 B리그 경기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캐릭터 호구를 사용했다. 이때 사용된 캐릭터 호구는 대도 인터내셔널이 ‘스파이더 맨’과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를 소재로 제작했다.

KETF는 “B리그 경기는 일반 호구를 사용하는데, 아이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낼 방법을 찾다가 캐릭터 호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소재로 응용해 제작한 호구를 사용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KETF는 앞으로도 선수와 학부모의 호응을 토대로, B리그에서 캐릭터 호구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태권도의 계속되는 변화, 높아진 미적 가치

2019년 태권도는 얼마나 변화할까?

글 안정현(웅인대학교)

2018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품새가 채택된 것은 태권도계의 쾌거였다. 아시안게임 품새 종목에는 기존의 경기용 품새와 새롭게 개발된 새 품새, 그리고 자유 품새가 있다.

국내에서는 자유 품새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자유 품새를 무도로 볼 수 있냐는 것이었다. 태권도가 세계화 되면서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겨나면서 시각적 효과와 새로움을 더하기 위해 체조와 아크로바틱과 같은 기술들이 추가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도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이 쏟아졌다.

또한 겨루기에서는 전자호구시스템의 도입으로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지자 발차기의 점수를 바꾸고 기술태권도를 강화시켰다. 사람들은 회전발차기처럼 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느끼길 원하며 한편으로는 태권도라는 무도를 지켜내길 원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

보면 현재 태권도는 세계화되면서 많은 동작들이 공연화되었고 시범 또한 기술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하나의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시범 기술을 가르치는 도장들이 늘어나고 있고 품새 선수들에게도 시범은 필수항목이 되었다.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도 태권도 시범이 떠오르면서 K팝을 접목한 태권체조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미적가치가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공연화 되면서 태권도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태권도의 본래 가치가 무엇인지 무도로서의 태권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국가대표태아일체태권도장’ 김성희 관장은 품새 전문 도장에서 시범을 결합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 관장은 “품새 전문 도장이었지만 떠오르는 시범을 무시할 수 없었다. 자유 품새에 초점을 맞추며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상 발전하는 시범 기술이지만 그만큼 선수들의 부상도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시범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커스적인 발전을 멈추

고 현재로서는 무도의 가치를 좀 더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다.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 온 태권도. 2019년 기해년에도 새로운 무도적, 미적 가치를 위해 변화를 게을리 말아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승리 지상주의로 일관할 것인가

운동선수들의 학업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글 김수진(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해 보게 된 대학선수들의 운동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눈감고도 차는 하늘 옆차기, 팽이처럼 도는 회전 발차기, 눈 깜빡하는 새 지나가는 겨루기의 공방전 등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즐비했다. 엄청난 운동수행능력을 가진 선수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늘 궁금했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선수들은 새롭게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 그들은 이미 대회 입상, 국가대표 선발, 좋은 팀 입단 등 이미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었다.’

태권도는 투기 종목이자, 고난도의 수행을 요구하는 ‘무술’이다. 그렇다보니 훈련과 경기 도중 선수들이 마주하는 부상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게다가 수술과 재활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뒤쳐진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린다. 그렇다보니 큰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은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외에도 진학·실업팀 진출 실패 등은 어떤 선수에게나 위기를 준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던 운동선수들은 그것이 좌절된 후, 엄청난 혼란을 겪는다. 수년 동안 자신이





노력해 온 목표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선수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 게다가 여러 경험을 해야 했을 청소년기 동안 운동만을 요구받았기에, 스포츠를 배제한 자기이해도 또한 높지 않다. 그래서 선수들은 갑자기 운동 중지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혼란에 휩싸인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성과지상주의의 풍조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수의 비전과 개인적 사유의 고려 없이 맹목적인 승리만을 기대하는 것은 선수의 미래에 큰 난관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운동선수들의 학업과 생활 안정성과 밸런스를 돕기 위해 선진국과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 기반과 지원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과 함께, 개인적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선수의 목표설정에서 단계별 목표가 선수인생의 종착지가 되

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찰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운동생활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맞는 노력과 실천은 필수적일 것이다.

스포츠가 빛나는 이유는 한계의 극복과 경쟁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화려한 승부의 세계 그 끝에는 언제든지 부상과 운동 중지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나은 선수들의 생활과 문화를 위해 계속해서 승리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전인간적인 선수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태권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까?

수련생 적더라도 알찬 수업이 돼야

글 박진주(경희대학교)

태권도는 지난 50년간 어린이층을 타깃으로

급성장을 이뤘다. 국내에만 최대 1만 2,500개 태권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태권도는 무도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과 사회성 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태권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어린이체육'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평도 있다. 태권도 도장이 태권도 대신 줄넘기 같은 어린이 체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돼 왔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최근 낮은 출산율로 인해 어린이 태권도 시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어 태권도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새로운 타깃층 확보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그동안 어린이 스포츠로 왜곡돼온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태권도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고민했다. 이를 주제로 태권도학과 친구들

과 열띤 토론 끝에 “태권도 원비가 문제.”라는 결론이 났다.

일선 도장이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태권도 프로그램에 비해 도장 원비는 지나치게 낮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일반 도장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태권도 도장의 원비는 대략 월 10만 원대 초중반이다. 그렇게 태권도는 월 10만 원대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싼 원비의 이유는 간단하다. 수련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도장에서 학생들은 각자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수련한다. 지도자가 한명의 수련생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도 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수련생 스스로가 느끼는 배움의 가치와 만족도도 크지 않다는 걱정이 들었다.

더 이상 태권도 도장은 많은 원생을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었는지를 목표해야 한다. 점점 소비자들은 가치를 소비하고 있다. 자신에게 얼마나 가치를 주는가에 집중한다는 말이다. 그런 뒤에 원비의 인상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겨울철에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관중의 갈채를 기다린다

글 공찬욱(전주대학교)

운동선수에게 겨울은 새로운 준비 기간이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뼈와 살을 깎아내는 듯한 고통을 견뎌내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 동계훈련의 목적은 개인의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체력과 유연성, 기본기 위주의 운동이 추가 된다. 각 선수에게 필요한 기술의 향상을 도우며 지난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올 시즌 각종 대회를 준비하는 기



간이다.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동계훈련을 진행해 나가듯 태권도 선수들도 그 나름의 동계훈련 진행방식이 있다. 각 분야 태권도 선수들의 동계훈련 프로그램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뉘며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루기 선수들은 오전에 러닝과 인터벌 훈련을 한다. 겨루기 경기는 체력소모가 크기 때문에 매일 선수들의 지구력을 늘리며 체중 감량에 힘써야 한다. 오후엔 경기에 필요한 발 기술 등 기본기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며, 야간엔 개인훈련 시간을 이용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본격적인 훈련과 경기에서 생길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상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폼새 선수들은 오전에 몸을 풀기 위해 간단하게 구보를 한다. 오후엔 태권도 폼새의 기본이 되는 기본 동작과 기본 발차기를 연습하게 된다. 야간엔 태권도 공인 폼새 및 개인 운동, 재활 트레이닝 위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시범단은 오전에는 겨루기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체력 향상을 위해 러닝과 인터벌 훈련 위주로 한다. 오후엔 시범단 제식 훈련과 시범에 사용하는 기술 발차기를 주로

연습한다. 야간에는 시범 및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시범 준비를 하지만 별 다른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연습한다. 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 훈련 및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이처럼 선수들은 자기 자신 또는 팀의 기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개인수련을 끊임없이 한다. 그 노력은 나중에 관객들의 환호와 격려의 박수로써 선수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폼새 수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복소리’

수련프로그램, 부상방지 프로그램, 기술전수 등의 세미나 개최

글 박해진(경희대학교)

‘도복소리’가 탄생하기 전 선수로서 다른 팀 선수는 ‘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2015년도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가을, 다른 팀 선수도 적이 아닌 동료라고 깨닫게 된 순간 태권도의 새로운 세계가 보였다. 그들과 수련방법,

폼새 풀이의 다양성, 지도법 등 여러 주제로 놓고 작은 원룸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져 나갔다. 토론 끝에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모여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보자.”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탄생된 것이 도복소리이다.

초창기 적은 멤버로 출발한 도복소리는 현재 1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 지도자, 관장 그리고 팀 닥터가 도복소리 팀원이다. 또 총무부, 개발부, 인사부, 미디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도복소리는 태권도 폼새 세미나를 처음 진행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다.

대학태권도 동아리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학 동아리 선수권대회 때였다. 멤버들은 전

국 59개의 대학에서 출전한 2,000여 명의 동아리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봤다. 이를 계기로 도복소리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태권도 폼새의 모든 것을 전달해주고자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세미나 후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도복소리 고려 폼새 시범 영상이 52만 명에게 전달되는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났다. 시각보다는 청각적인 감각을 이용해 도복소리에 집중하게 만든 점이 열띤 호응의 이유였다. 도복소리의 첫 세미나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고 도복소리 세미나 문의는 날로 증가했다.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든 도복소리 팀은 27회의 국내, 3회의 해외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는 서류로 접수한 뒤 팀 내 회의를 거쳐

강사를 배정하고 교육 일정을 잡는다. 세미나 커리큘럼은 4회로 베이직 1, 2와 유급자 폼새, 유단자 폼새로 진행되며, 연령별로 세미나 형식도 달라진다. 도복소리가 연구한 수련 프로그램과 부상 방지를 위한 체력훈련, 기술 전수 등의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도복소리만의 교육법도 진행이 되지만 수련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 맞춤 지도가 진행된다.

도복소리는 SNS 활동도 꾸준히 하며 태권도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단체이다. 교육 영상, 세미나 영상, 전국대회 영상, 도복소리 주니어 운동 영상 및 사진 등을 통해 태권도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또 학생의 관점에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일반인들과 공유한다.



폼새는 지루하고 어렵다는 이미지를 깨며, 누구나 쉽게 수련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도복 소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2019년에도 도복소리만의 콘텐츠로 교육 내용을 전할 예정이며,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계획도 있다.

경찰관 시험에 도전한 태권도학과 여학생

“꿈을 위해서는 가진 것을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

글 정혜나(경희대학교)

우리 세대 청년들을 ‘N포세대(N拋世代)’라 한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쟁이 심화되고,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우리는 사랑, 연애, 출산, 결혼, 내 집 마련 등 셀 수 없는 행복의 요건을 포기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에 봉사하는 직업인 공무원이 최고의 일자리로 추앙받는 이유 또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공무원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제도 있어서 100세 시대를 보낼 청년들의 관심

을 끄는 직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잡코리아와 함께 전국 20~30대 취업 준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9%가 목표 직장(직업)으로 ‘공무원을 꿈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순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았다. 2016년 9급 공무원 4,120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22만2,650명이 응시했다고 하니 가히 놀라운 경쟁률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찰 공무원이 된 태권도학과 졸업생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송민영(사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출신이며 가장 최근인 2018년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다. 이른 나이에 꿈을 이룬 그녀, 어떤 비결이 있을까?

힘든 어린 시절을 겪던 그녀는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어 밝게 성장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변화를 준 태권도로 대학 입학률 모색하던 중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등 고교생활을 활발히 하여 경희대학교 레오르네상스



전형으로 14학번으로 입학하였다.

태권도학과 학생이 된 그녀가 가장 많이 고민한 점은 태권도만으로는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태권도를 통해 배운 리더십을 토대로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고민한 끝에 ‘경찰관’이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부합하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3가지 도전을 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도전하게 된 것은 ‘아동가족학’을 복수전공한 것이다. ‘아동가족학’이라는 학문을 접목한다면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한 시민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방학마다 틈틈이 경찰관 채용 시험공부를 하면서 수험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도전은 시험 공부를 위해 고립된 생활을 자처한 것이다. 친구들과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연락을 최대한 자제하며 공부시간을 늘였다. 꿈을 이루고 나서 보니 자신은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것 알게 되었다고 한다.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 경찰관 직무에 보다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현재 가진 것을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죠.”

그녀가 태권도학과 후배들에게 주는 조언이다.



글 최규섭 사진 KTA DB, 태권도신문 제공

조영기·김태훈, 2018년을 가장 화려하게 수놓은 별이 되다

2018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 감격 누려

조영기, 김태훈...

올 한 해 한국 태권도계를 가장 화려하게 수놓은 빛나는 별들이다. 원로 지도자로서, 선수로서 등 각자 활동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자랑스러운 별들이다. 자연스레 그에 걸맞은 영광과 영예를 안았다.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이라는 칭호가 어울린다. 이들을 칭송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구랍 7일 국기원 중앙 수련장(경기장)에서 베풀어진 2018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식은 별들

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아울러 그 빛났던 업적을 축하하는 잔치였다. 세르미양 응 국기원 명예 이사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 홍성천 국기원 이사장,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관 단체 임직원, 원로, 국내외 지도자 등 200여 명의 태권도인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그들을 찬미했다. 한국 태권도계의 '거목'인 조영기 대한민국의 태권도협회(KTA) 고문(국기원 기술고문·80이하 당시 기준)은 최고 영예인 대상 국기장을 수상해 더욱 빛났다. 1957년 태권도장을 개설한 뒤 61년 동안 지도자 외길을 걸으며 어린 제자 정욱(亨育)에 힘써 온 큰 스승의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실이다. 조 고문은 줄곧 고향(전라남도 영광군)을 지키며 수만 명에 이르는 숭한 제자를 길러 냈다. 그 헌신은 오늘날 영광이 전라남도 태권

도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 태권도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국기원 부원장과 국기원 최고단자(9단)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태권도 글로벌화에 일익을 맡기도 했다.

김태훈(24·수원시청)은 태권도인상 선수 부문에서 주인공이 됐다. 이대훈(26·대전광역시체육회)과 더불어 한국 태권도의 '쌍두마차'인 김태훈은 아시안 게임 2연패를 이루며 2018년을 빛냈다. 2014 인천 대회에서 -54kg급 정상을 밟았던 김태훈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선 -58kg급을 석권하며 사자후를 토했다. 지난해 1월 우시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에서 우승(-58kg급)하며 2018년을 화려하게 열어젖혔던 김태훈은 이번 수상으로 대미를 멋지게 장식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3연패(2013·2015·2017년)의 위업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세계태권도연맹(WT) 남자 -58kg급 올림픽 랭킹에서도 확고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월드 스타'다.

또 ▲ 이종호 (사)국기원 태권도9단연맹 부회장(경상남도태권도협회 자문위원)은 지도자 부문에서 ▲ 박정우 KTA 국가대표 상비군 전임 지도자는 교육 부문에서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2018 심사 모범 단체 포상에서, ▲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가 대상을 ▲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와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가 우수상을 ▲ 전라북도태권도협회와 충청북도태권도협회가 장려상을 각기 수상했다. 2007년 처음 제정돼 2015년부터 제도화된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선정해 태권도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은 조영기 KTA 고문(가운데·국기장), 박정우 KTA 국가대표 상비군 전임 지도자(오른쪽·교육 부문), 김태훈(선수 부문)이 자리를 함께했다.



과 태권도인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태권도 대상은 ▲ 국기장 ▲ 진인장 ▲ 문화장의 3개 부문에서, 태권도인상은 ▲ 지도자 ▲ 선수 ▲ 심판 ▲ 심사 ▲ 교육 ▲ 경영 ▲ 창조 ▲ 봉사 ▲ 문화 ▲ 특별의 10개 부문에서 각각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부상, 태권도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부상이 각기 수여된다.

■ 2018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자

□ 태권도 대상 ▲ 국기장=조영기 KTA 고문 ▲ 진인장=예조해 (사)국기원 태권도9단연맹 원로위원 ▲ 문화장=가스통 우아세난 코네티컷다부아르태권도협회 창립 회장
□ 태권도인상 ▲ 지도자=이종호 (사)국기원 태권도9단연맹 부회장(경상남도태권도협회 자문위원) ▲ 선수=김태훈(수원시청) ▲ 심판=알리 모디리(독일) ▲ 심사=곽기욱 국기원 해외 심사 심의위원 ▲ 교육=박정우 KTA 국가대표 상비군 전임 지도자 ▲ 경영=김상건 파주 태권도장 관장(경민대학교 태권도외교과 교수) ▲ 창조=진천수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 지도자 ▲ 봉사=이경석 서울특별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 문화=정관호 모노플레이션 대표 ▲ 특별=최응길 미국 태권도&무예고수총연맹 총재, 김창완 태권도신문 편집국장

■ 2018 심사 모범 단체 포상

▲ 대상=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 우수상=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 장려상=전라북도태권도협회, 충청북도태권도협회

KTA-UTA, MOU 체결

전 세계 연계망 구축 행보 가속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 태권도가 교류의 손을 맞잡았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외국 협회와 손잡은 세 번째 자매결연이다. 전 세계 태권도 강국과 두터운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방위 외교를 추구하는 최창신 회장의 발걸음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최 회장은 구랍 4일 오전 11시 KTA를 방문한 아흐마드존 라히모프 우즈베키스탄태권도협회(UTA) 회장과 두 나라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MOU(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KTA 회의실에서 열린 KTA-UTA 간 태권도 협약 체결식서, 양국 협회는 태권도 전반에 걸쳐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MOU 체결식엔, 이상헌 KTA 사무처장과 오이베크 UTA 국제부장이 배석했다.

최창신 KTA 회장(오른쪽)과 라히모프 UTA 회장이 두 협회 간 협약서(MOU)에 서명한 뒤 기념품을 주고받으며 상호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약속을 나누고 있다.



KTA와 UTA는 먼저 ▲ 태권도 대표단, 지도자, 전문가의 방문 교류 촉진 ▲ 양국 개최 대회와 국제 스포츠 행사에 상호 초청 장려 ▲ 양국 개최 태권도 관련 회의·세미나·학술 포럼에 상호 초청 ▲ 양국 협회 이해관계에 기반한 스포츠 대회 개최 제안 및 교류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 스포츠 의학 ▲ 도핑 방지 ▲ 트레이닝 캠프 ▲ 겨루기·품새 교육 및 지도 강사 파견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실행을 위한 장치로, 합동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두 협회의 협력 관계를 제고함으로써 양국의 태권도 발전을 꾀하려는 생각에서다. 사후 관리, 조직, 프로그램 구성 및 개정 사항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는 매년 1회씩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린다. KTA-UTA 간 MOU는 4년간 유효하고, 두 협회 중 한 곳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된다.

한편 KTA는 이번 UTA와 협약을 맺기에 앞서 두 번의 자매결연을 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8일 제주에서 영국태권도협회(BT:회장 줄리아 뉴턴)와 가장 먼저, 11월 1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태권도협회(CTA:회장 관젠민)와 두 번째 MOU를 각각 체결했었다.

KTA, 대폭 승진의 2019 상반기 인사 단행

새 마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자.

2019년 비상을 꿈꾸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는 지난해 말 사기를 복돋

우고 일신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19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재미있는 태권도 원년, 2019'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KTA는 그 실현화에 앞설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대폭 승진 인사를 결행했다.

이번 인사로, 박성욱·김충환·이종천 부장 직무 대행(3급)이 '꼬리표'를 떼고 부장(2급)으로 승진했다. 직책은 그대로 경기부장·전략사업부장·도장사업부장이다. 장미란(경영지원부), 김영필(전략사업부), 장승종(도장사업부), 유은주(경기부) 과장(5급)은 차장(4급)으로 승격했다. 또 강경훈(전략사업부), 이동신(도장사업부) 대리(7급)는 과장(6급)으로 올라갔다.

구랍 28일 이번 인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창신 회장은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업무 공백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최 회장은 "앞으로 두서너 해 안에 사무처의 정점에 있는 1급 처장 및 부장이 정년퇴직으로 모두 물러난다. 자칫 업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유비무환이라지 않는가? 중간 관리자를 양성해 물 흐르듯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무척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올 1월 1일 자로 실시됐다.

■ KTA 2019 상반기 정기 인사

▲ 3급(차장)→ 2급(부장): 박성욱(경기부장) 김충환(전략사업부장) 이종천(도장사업부장) ▲ 5급(과장)→ 4급(차장): 장미란(경영지원부 차장) 김영필(전략사업부 차장) 장승종(도장사업부 차장) 유은주(경기부 차장) ▲ 7



2019년의 출발을 알리는 약식 시무식이 끝난 뒤, 최창신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KTA 임직원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급(대리)→ 6급(과장) 강경훈(전략사업부 과장) 이동신(도장사업부 과장)

KTA 임직원, '황금 돼지해'에 걸맞은 결실 올리자 다짐

"2019년은 태권도에 매우 중요한 운명의 한 해다. 마음을 굳게 다지고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자."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이 역경을 딛고 2019년을 중흥의 한 해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지난 1월 2일 신년 들어 임직원이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최 회장은 "중국의 우슈(武術)와 일본의 가라테(唐手) 도전에 직면한 태권도는 날개를 펴고 비약할지, 날개가 꺾여 추락할지 갈림길에서 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부닥치느냐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판가름 될 긴박한 시기다. 그러므로 2019년을 마땅히 태권도가 중흥하는 첫걸음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해(己亥)년을 기해(氣海)혈에 빗

대며 올 한 해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정진해 값진 과실을 맺자고 힘줘 말했다. 최 회장은 "기해년은 황금 돼지의 해를 뜻한다. 임맥(任脈)에 해당하는 혈위인 기해혈은 기를 받아들이는 바다를 의미한다. 비록 한자는 다를지언정, 묘하게도 맥이 통함을 느낀다.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한 작품을 내놓음으로써 태권도의 비상을 실감하는 '황금의 해'를 이루자."라고 격려했다.

KTA 임직원은 이에 화답해 기필코 2019년을 최 회장이 주창하는 '재미있는 태권도'가 뿌리내리는 첫해로 만드리라는 각오를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했다.

"내가 미래의 '포청천'이다"

KTA, 심판 자격 연수 실시
그대의 이름은 '코트의 포청천'

코트의 판관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열렸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내일의 포청천을 다짐하는 판관을 위해 마련한 2018년도 하반기 심판 자격 연수가 그 무대

다. 구랍 3~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두 부문(겨루기·품새)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연수엔, 370명의 심판이 몰려 뜨거운 기운을 자아냈다. ▲ 겨루기엔 1급 1명, 2급 18명, 3급(예비 심판) 178명 등 총 197명이 ▲ 품새엔 1급 1명, 2급 15명, 3급 159명 등 총 175명이 각각 참석해 열의를 불태웠다.

이번 연수는 겨루기(3~5일)와 품새(6~8일)로 나뉘어 각기 사흘씩(일수 기준) 진행됐다. 겨루기에선, ▲ 김경일 경기위원장이 경기 규칙 I을, 천우필 심판위원장이 심판론과 경기 규칙 II를 각각 강의했다. 또 천 위원장을 필두로 4명의 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심 실기와 수신호를 맡았다. ▲ 품새는 이종관 본부장이 심판론을, 최종식 경기위원장이 경기 규칙을, 전철기 심판위원장이 용어 및 기본 동작을 각기 강의했다. 또 전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심판위원회 부위원장과 2명의

심판위원이 채점 실기와 스코어링을 맡았다. 한편 KTA는 연수 기간 중 필기·실기시험을 치러 미래의 코트를 누빌 판관 354명(겨루기 191명, 품새 163명·승급자 포함)을 배출했다.

『태권도』지, 복간 8개월 만에 비상 나래 퍼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별 부문 수상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회장 최창신)가 7년 4개월의 동면을 깨고 다시 내놓은 『태권도』지(誌)가 복간 첫해 한국 잡지 간행물계에서 뚜렷한 위상을 정립했다. 한국 태권도가 겪는 영광과 풍파의 세월을 함께하겠다는 소명 의식으로 다시 모습을 보인 본지가 재창간 취지에 걸맞은 행보를 밝아 왔음을 8개



제28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서완석 본지 편집인(왼쪽)이로부터 특별 부문 서울시 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고 있다.

월 만에 높게 평가받았다는 지표다. 구랍 6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서, 『태권도』가 특별 부문 서울시 의회 의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서완석 본지 편집인이 수상자로 시상 무대에 섰다.

한국사보협회(회장 김흥기)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성대하게 연 이번 시상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 편집기자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모두 27개 기관·단체가 후원했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사보협회는 본지를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으로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정신을 바탕으로 격조 높은 콘텐츠 개발과 참신한 편집을 추구하는 자세를 높이 샀다.”라고 밝혔다. KTA가 창간(1971년 4월) 47돌을 기려 복간한 『태권도』는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을 바탕으로 삼아 내일의 거울을 만들자’를 좌우명으로, 잠에서 깨어난 이래 8개월 동안 스스로를 열심히 채찍질해 왔다. 2018년 4·5월호(제167

KTA가 마련한 2018년도 하반기 겨루기 심판 자격 연수 모습.



『태권도』, 비약의 나라 ‘태권 M’ 달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태권도』지(誌)가 거듭났습니다. 2019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준비를 다짐하는 『태권도』가 새로운 나라를 펴니다. 널리 그리고 두루 뉴스를 제공



하려는 『태권도』의 간절한 희구에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곧 『태권 M』의 탄생입니다.

현대인은 이동성, 편의성, 신속성을 추구하고 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바일은 그 갈망을 이룬 하나의 산물입니다. 『태권 M』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부응키 위해 만들어진, 획기적 방식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입니다. 『태권도』가 복간 첫돌(2019년 4월)을 앞두고 애독자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고자 내놓은, 정성을 다해 빚어낸 작품입니다.

단순한 e북(전자책)이 아닙니다. URL 생성에 바탕을 둔 방식의 가장 앞선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장성은 놀라기만 합니다. URL 하나만으로, 스마트폰을 지닌 누구라도 뉴스의 전달과 습득이 가능합니다.

뉴스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HTML5 기반의 플랫폼인 『태권 M』은 오프라인 매체인 『태권도』가 발견된 뒤에 일어나는 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생생한 생명체입니다. 더불어 『태권도』를 스마트폰 화면에 적합하게 재편집해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살아 움직이는 뉴스 매체입니다.

『태권 M』은 『태권도』 제172호(2019년 12월호) 발간과 함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큰 사랑과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태권 M』은 『태권도』 전체 콘텐츠와 내용을 실지는 않습니다. 일부 실리지 않는 콘텐츠와 내용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홈페이지(PC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호)를 첫 작품으로 내놓은 뒤 그해 12월호(제171호)까지 격월간으로, 한국 태권도의 밝은 내일을 개척하는 데 한 톨의 밑알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며 온 힘을 쏟아왔다.

1991년에 한국 사보 대상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 국내에서 발행되는 인쇄 사보, 전자 사보, 웹 사이트, 특별 부문, 사사, 출판물, 광고 및 공익 캠페인, 블로그, PR 이벤트, CSR(사회 공헌 활동),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25개 부문과 ▲ 특별 부문, 외부 기관, 해외상(3개 부문) 등 광범위한 분류에 걸쳐 시상하는 제도다. 국가 기관, 공사기업, 단체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과 비즈니스 저널리즘 관련 매체를 대상으로 기업 문화 발전과 관련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태권도』, 명진 C&P와 다시 손잡다

“우리 다시 어깨를 견고 함께 나아가요.”

복간 2년째인 2019년을 맞아 힘찬 도약을 다짐한 『태권도』지(誌)가 기해년(己亥年)에 함께 걸음을 내디딜 짝꿍을 낙점했다. 2018년 하반기에 행보를 같이했던 명진 C&P와 다시 손을 맞잡았다.

『태권도』를 정기(격월간) 발행하는 대한민국 태권도협회(KTA)는 올 한 해 제작(6회)을 맡을 업체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새해 초인 지난 1월 3일 오후 2시부터 KTA 회의실서 열린 2019년도 『태권도』 제작업체 선정 프레젠테이션에서, 명진



2019년도 『태권도』 제작업체 선정 프레젠테이션에서, 명진 C&P가 제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C&P는 가장 높은 점수로 3:1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 『태권도』 발행 용역 입찰엔, 세 개 회사가 응찰했다.

2019년 『태권도』 발행에 있어 모바일 뉴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KTA는 이의 구현에 주안점을 뒀다.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오프라인 형태의 잡지를 신경돌기인 일선 태권도장까지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선정 심사위원진(6명)은 모바일 뉴스 제공 해결책에 방점을 찍고 세 참가 업체의 실현 방식에 신경을 기울였다. 이 같은 배경 아래 열린 이번 제작업체 선정 프레젠테이션에서, 명진 C&P는 이 같은 KTA의 구상에 가장 부합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솔루션으로 제시함으로써 심사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제작업체 선정 기술 평가는 ▲ 정성 평가 ▲ 정량 평가 ▲ 가격 평가의 세 부문에서 이뤄졌다. 배점은 각각 60점, 20점, 20점 만점이었다.

한편 명진 C&P는 지난해 세 번(제169~171호) 『태권도』 제작을 맡은 바 있다.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18년도 결산 이사회: 올림픽파크텔 서울홀 | 1. 18.(금)
- 2019년도 경기 규칙 강습회: 태권도원 | 1. 20.(일)~21.(월)
- KTA 강사 콘텐츠 연구 개발 및 17개 시도 강사 직무 교육(1차): 장소 미정 | 1. 25.(금)~26.(토)
- 2019년도 KTA 상임 심판원 교육: 태권도원 | 1. 27.(일)~30.(수)
- 2019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 | 1. 28.(월)

FEBRU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1	3. 2
3. 3						

- 2019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 대회(겨루기): 경남 창녕 | 2. 11.(월)~12.(화)
- 제14회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대회(겨루기·품새): 제주 | 2. 15.(금)~21.(목)
- 생활체육 심판 자격 교육(1차): 장소 미정 | 2. 16.(토)~17.(일)
- 생활체육 심판 자격 교육(2차): 장소 미정 | 2. 23.(토)~24.(일)
- 제10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최종 선발대회 겸 한국 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배 전국 품새대회: 경남 창녕 | 2. 25.(월)~3. 3.(일)

스도쿠(SUDOKU)

초급

	6	1			3			9
	5				8	4	1	
	9		1	4		6		
		8	3			9		7
		5		2		1		
1		4	8		6	3		
		7		1	9		2	
	1	9	4				3	
5			2			8	9	

중급

3					4			8
				7			2	
	9			1		3		
	8			3	1			5
		2			6	9		
1				8			3	
		6		4			1	
	5			2				
9			1					4

스도쿠 푸는 법

- ① 가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② 세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③ 작은 상자(3 x 3 =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애독자 선물

『태권도』 스도쿠(SUDOKU) 퍼즐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도복(아래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 맞는 도복과 배송 시 확인을 위해 입을 분의 키(cm)와 상의 크기(100-105 등) 및 전화번호를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02-420-4271~3으로 연락해 당첨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번 호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 ② 본인이 전화로 확인한 후 상품이 발송됩니다.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전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취소됩니다.
- ③ 상품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드리는 상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편집팀 앞.

제 171 호 초급 정답

4	5	2	8	6	7	3	9	1
9	3	8	1	5	2	6	4	7
6	7	1	4	3	9	5	8	2
7	1	3	5	2	4	9	6	8
8	2	9	6	1	3	7	5	4
5	6	4	7	9	8	2	1	3
1	8	5	2	7	6	4	3	9
2	9	6	3	4	1	8	7	5
3	4	7	9	8	5	1	2	6

제 171 호 중급 정답

9	4	7	3	1	8	6	5	2
2	3	5	9	6	7	4	8	1
1	6	8	2	4	5	7	3	9
4	9	1	8	5	2	3	7	6
8	2	6	4	7	3	9	1	5
7	5	3	6	9	1	2	4	8
6	8	9	5	3	4	1	2	7
3	1	2	7	8	6	5	9	4
5	7	4	1	2	9	8	6	3

제171호 정답 및 정답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53길 26-6 남촌빌라 501호
이치승(188cm, 105호, 010-2522-3316)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2가길5, 201호
김규원(160cm, 85호, 010-9493-335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41번길 29. 2층
강민성(166cm, 95호, 010-8391-0100)





Training

ADIDAS TAEKWONDO



